

Journal of ICT Leaders



INTERVIEW

ICT를 움직이는 12명의 리더들

기획특집

ICT 기업이 전망하는 2018년 경제 및 ICT시장

CEO를 위한 또 다른 시각

두 개의 백년을 위한 시진핑 리더십

그 '섬'에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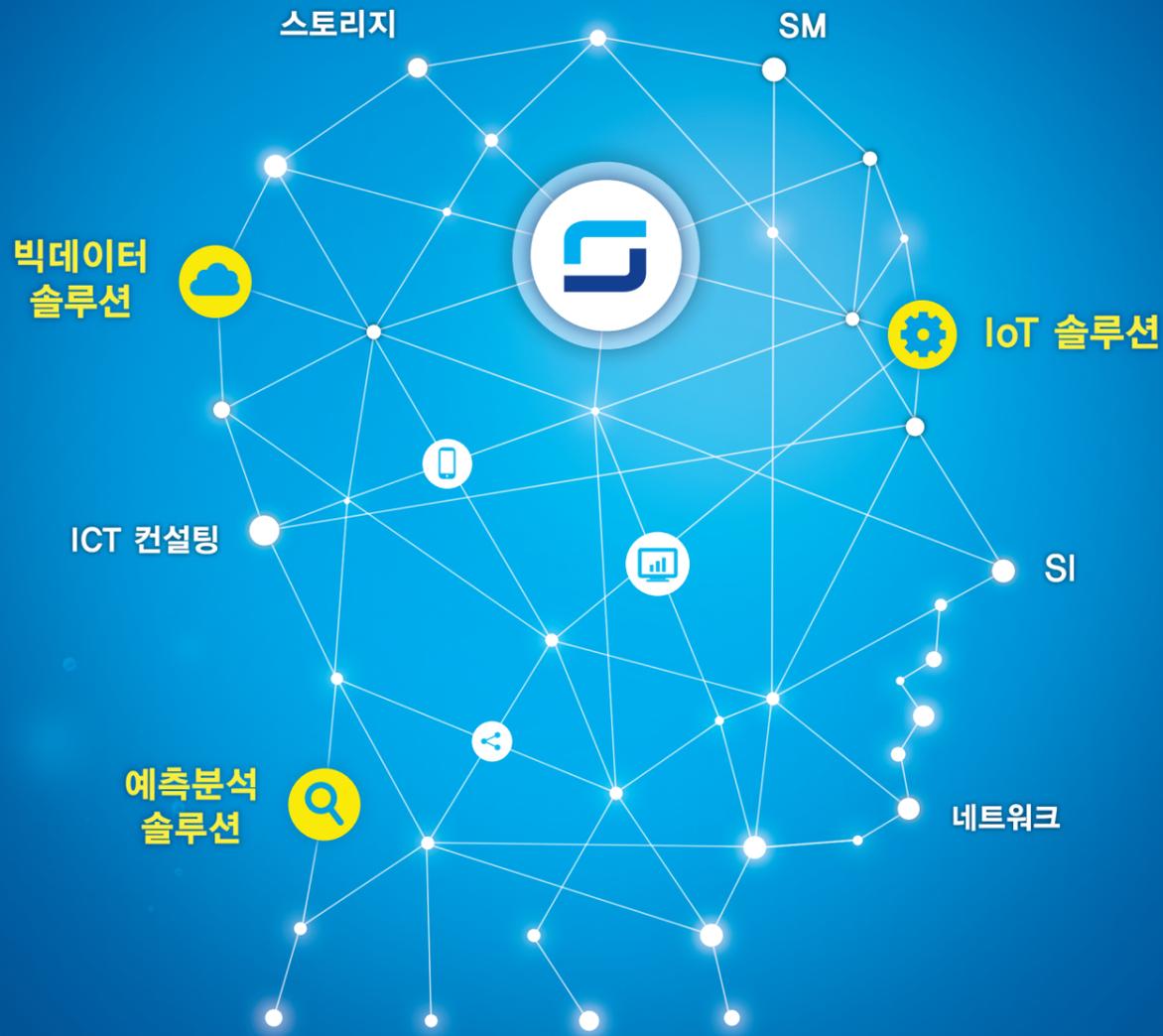
국내 최초 슬로시티, 최적의 겨울여행지 증도



9 772508 835002
ISSN 2508-8351

정가 : 1만5000원

2017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대상
IT(빅데이터 솔루션)부문 대상 수상



데이타솔루션은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의 공급은 물론이고 데이터분석 인프라 구축에서
주제선정 및 분석모델 개발, 상시적인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의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 · 금융 · 제조 · 유통 · 서비스 · 통신 · 의료 · 국방 · 교육

데이터의 길을 찾다

Big Data

Visualization

Analysis

(주)비아이매트릭스는 BI & Big Data 전문기업으로 경영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B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ontents

WINTER 2017, VOL. 04

발행인 겸 편집장 · 전구주
 편집고문 · 박우건
 취재 · 전구주, 강병현, 이애자, 임혜영
 편집디자인 · 황창혁
 사진 · 이재훈(스튜디오 모딜리아니)
 인쇄 · 대한문화 · TEL. 02)2269-0380
 편집기획위원 · 문정현, 김보중, 이영로, 김만기, 손정배,
 이영근, 김은선, 김보미
 구독 · 반송문의 · TEL. 02)2261-1113
 발행처 미오미디어 · 04627 서울시 중구 퇴계로 30길 29
 정가 1만 5,000원, 1년 5만원

ICT LEADERS INTERVIEW

Leaders

- 026 **Cover Story**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송희경 공동대표
- 034 **avant-garde**
4차산업혁명위원회 고진 위원
- 042 **In the News**
소프트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
- 056 **CIO/CISO**
라이나생명 이지현 전무
- 만나고 싶었습니다**
- 062 **랑데부**
삼양데이터시스템(주) 박상훈 대표이사
- 068 **랑데부**
토마토시스템 이상돈 대표이사
- 074 **랑데부**
마크베이스 김성진 대표이사

Focus

- 090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AWS코리아 염동훈 대표이사
- 096 **Meet the Guru**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태명 교수
- 102 **Woman in IT**
TCS코리아 서경화 부사장
- Attrance**
- 120 **Award Winner**
스냅스 김성경 대표이사
- 126 **Young & Smart**
코다임 류성태 대표이사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솔루션

격이 다른 프리미엄 UI,

eXbuilder 6



**투명한
코드구조**

**이클립스
통합환경
그대로**

**시멘틱 콘텐츠
어시스트**

**공통모듈,
표준화 정책**

eXbuilder6는

웹 표준 기반의 통합 UI/UX 플랫폼으로 독보적인 개발 편의성을 제공하며 웹 표준, Cross Browsing, 다양한 컴포넌트, 높은 퍼포먼스의 반응형웹 및 nScreen 지원, 완벽한 UDC 등 UI개발에 필요한 최적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 최고의 성능, 안정성 및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이제 eXbuilder6로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개발하세요.



SPECIAL FEATURE

- 016 PHOTO PANORAMA
'2017 CIO의 밤' 및 올해의 CIO상 시상식
- 020 PHOTO PANORAMA
한이음 엑스포 2017
- 023 PHOTO PANORAMA
제15회 임베디드 SW경진대회
- 142 REPLAY
2018년 ICT 트렌드 전망 세미나
- 144 REPLAY
2017년 SW마에스트로 100+컨퍼런스
- 146 REPLAY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포럼 9월 조찬회
- 148 REPLAY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포럼 10월 조찬회
- 152 REPLAY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포럼 11월 조찬회
- 154 REPLAY
2017 동남아 IT수출 컨소시엄

SPECIAL THEME

- 080 기획특집
ICT 기업이 전망하는 2018년 경제 및 ICT시장
- 086 CEO를 위한 또 다른 시각
두 개의 백년을 위한 시진핑 리더십

COLUMN

- 009 EDITOR'S LETTER
- 010 PHOTO POEM
설일 / 겨울
- 062 한국의窓
종묘
- 164 편집후기



Journal of ICT Leaders

정기 구독 안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디지털 기술 전문기업과
사용자 기업에 중사하는 ICT 리더들이
걸어온 길, 성공 비결,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연간 구독료/50,000원 (년 4회)
(권당가격 : 15,000원)

■ 계좌번호/신한은행 110-098-574781

■ 문의/미오미디어(02-2261-1113)

* 지면 위치에 따른 광고료 차등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원사는 30% 할인)

文化街, IT 文化散策

- 114 **CINEMA**
〈서기 2019 블레이드러너〉
〈블레이드러너 2049〉
- 140 **MUSICAL**
말 로봇 등장하는 창작 뮤지컬 〈벤허〉



TRAVEL & LEISURE

- 108 **WORLD TRAVEL**
소피아, 공존의 미학
- 132 **그 '섬'에 가고 싶다**
국내 최초 슬로시티, 최적의 겨울여행지 증도
- 156 **HEALTH LIFE**
커피



BOARD

- 158 **FKII 東西南北**

〈Journal of ICT Leaders〉는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사진 등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미오미디어가 가지고 있으며 사진 등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Journal of ICT Leaders〉는 ICT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계간 소식지로 인물 인터뷰, 대담, 문화탐방, 산업계 동향과 소식 등의 다양한 읽을거리를 전합니다.

2018년 ICT 현장마다에 매화꽃 향기가 넘쳐나기를...



전구주(편집장)

■ *뜬을 거니노라니 / 달이 사람을 좇아오네. // 매화꽃 언저리를 / 몇 번이나 돌았던고. // 밤 깊도록 오래 앉아/일어나기를 잊었더니 // 옷 가득 향기 스미고 / 달그림자 몸에 닿네.*
- 퇴계 이황, 도산월야영매(陶山月夜詠梅)

퇴계 이황 선생의 매화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는 그의 학문 깊이만큼이나 널리 알려져 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유언도 “저 매화에 물을 주라”였다. 중국인들의 매화사랑도 남다르다. 그들은 매화에 네 가지 덕이 있다고 믿는다. 매화가 태어날 때는 원기(元氣)가 넘치고, 꽃이 피면 만사형통(萬事亨通)하며, 열매 맺으면 이(利)로움이 생기며, 열매가 제대로 농익으면 정(貞)절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매경한고(梅經寒苦)’라는 사자성어를 건넸다. ‘밭이 있되 갈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다. 보검의 날카로움은 연마에서 나오고, 매화향은 고통과 추위에서 나오네. 젊어서 면학의 고통 알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야 독서가 늦었다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네.’ 매경한고라는 사자성어는 남송의 유학자 주희의 〈경세현문(警世賢文)〉에서 나왔다.

중구 필동의 한옥마을 부근이 다시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반갑다. 그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충무로 인근 도로와 골목을 다 차지하고, 시끌시끌한 유커들로 정신이 사나웠을 만큼 혼잡의 극치를 이루다가 일순, 적막감마저 드리울 만큼 고요했던 터라 그 북적임이 오히려 반가운 것이다. 아마도 그들에게서 풍겨오는 미세한 매화향기가 더 반가웠던 것은 아닐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열흘 가는 것은 없는 법.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이 역사라 하니 부디 2018년에는 비 온 뒤의 땅처럼 단단한 시절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을 지나는 한 해가 분명할 터이니 더욱 더 그 바람이 크다.

부디 2018년에는 ICT 현장 곳곳마다에 설중매 향기가 넘쳐나기를...

PHOTO POEM

설일

김남조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다.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 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는
백설을 담고 온다.



PHOTO POEM



겨울

성낙희

황홀하여라.
아우성하던 초록
뿌리로
다 돌아들 오고
빈 가지마다
은사(銀絲)처럼 걸리는
빛과 바람.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 비로소
이 흰 바람 속에
먼 구름 먼 하늘
언 땅에서 올라오는
청보리 새순
푸른 숨소리까지
아지랑이 여릿여릿
연보라 흔들림까지

자연이여,
가장 깊은 어둠에서
가장 밝은 눈부심
층층이 길어올리는
깊은 잠에 안겨서라도
잠들지 않는
고요한 오성(悟性)이
황홀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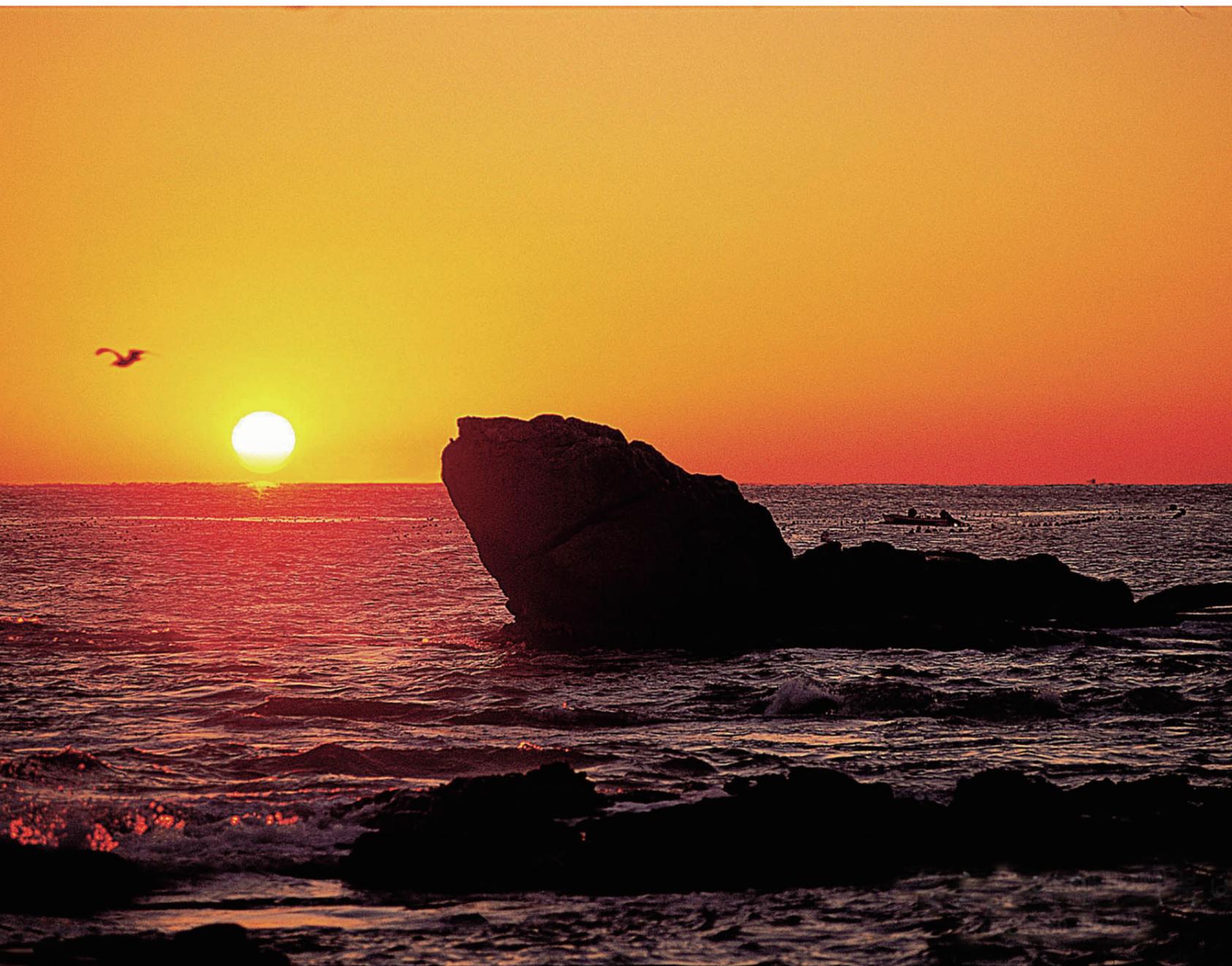


PHOTO POEM

겨울

조병화

침묵이다
침묵으로 침묵으로 이어지는 세월,
세월 위로 바람이 분다

바람은 지나가면서
적막한 노래를 부른다
듣는 사람도 없는 세월 위에
노래만 남아 쌓인다

남아 쌓인 노래 위에 눈이 내린다
내린 눈은, 기쁨과 슬픔,
인간이 살다 간 자리를
하얗게 덮는다

덮은 눈 속에서
겨울은 기쁨과 슬픔을 가려 내어
인간이 남긴 기쁨과 슬픔으로
봄을 준비한다

묵묵히.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포럼 '2017년 CIO의 밤' 및 '올해의 CIO 상' 시상식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포럼은 지난 12월 6일(수) 팔래스호텔에서 '2017 CIO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7년 올해의 CIO상 시상식'과 '회원 송년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본 포럼 원년 멤버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을 비롯한 포럼 회원 120여명이 참석해 CIO상 수상자를 축하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빛내주었다.

황주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본 포럼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것 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각종 사업도 활성화 되고 신규 회원과 협찬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포럼 발전의 원동력은 각계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고군분투 해 온 CIO, CISO 회원 모두의 노고 덕분이다'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 CIO의 밤 행사는 전문 MC 사회로 회원 경품추첨 이벤트와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정리 / 신효선

2017년 올해의 CIO상 수상자

구분	수상부문	소속기관명	수상자	직위
산업별 올해의 CIO	CIO 대상	한국카카오은행	정규돈	부사장
	공공 부문 CIO	한국수력원자력	김갑용	차장
	금융 부문 CIO	BC카드	류재수	전무
	제조산업 부문 CIO	포스코	박미화	상무
IT Innovation CIO	서비스 부문 CIO	한라홀딩스	김희권	상무
		LG화학	최민기	상무
올해의 CISO		롯데카드	최동근	상무
		우리은행	허정진	상무
공로상		대한석유협회	김효석	회장
		한국HPE	함기호	대표





대한민국 ICT인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한이음 엑스포 2017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 1홀에서 '한이음 엑스포 2017'을 개최하였다. '2017 SW 교육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한이음 엑스포 2017'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ICT멘토링'을 통해 진행된 대학생들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우수 성과물을 전시 및 시상하여 수행의 결실을 나누고 격려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번 행사는 ICT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애주기별 SW교육과정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초·중등 SW교육관, SW중심대학관, 한이음 엑스포 등 관련 행사를 통합해 개최한 것이 특징이다. '한이음 엑스포 2017'은 '한이음, 세상을 잇(ict)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이음 공모전 2017' 등에서 선정된 133개의 우수 프로젝트 작품이 전시되었다. 올해는 특히 전체 프로젝트의 80% 이상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분야 주제로 수행되었으며, 기존 자동차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나 운전자가 차량을 조

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같은 작품이 전시되어 ICT트렌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시상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상홍 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및 유관 기관, 기업 대표상 시상이 이루어졌다. '한이음 공모전 2017' 대상으로는 동의대학교 가온누리팀이 차세대 이동수단 세그웨이와 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선조정장갑을 개발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온누리팀이 개발한 세그웨이는 기존 세그웨이가 전후방향으로



만 움직이고 조종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여덟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장갑형 무선 조종기로 원격 제어도 가능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ICT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한 우수 논문 107개를 포스터로 전시하고 발표하는 '한이음 학술대회관'을 비롯하여 '한이음 공모전 수상작 성과발표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이음 클래스'에서는 이용덕 엔비디아 코리아 지사장과 조용민 구글코리아 부장이 멘토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취업에 고민하는 학생을 위해 '커리어 컨설팅존'이 마련돼 다양한 취업 정보 및 컨설팅으로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정리 / 남명화

Photo Panorama



임베디드SW의 미래(Future of Embedded Software)

제15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임베디드SW·System 산업협회가 주관한 제15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결선 개최 전일, 학생들이 모여 본인들의 전시 작품을 미리 설치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의견을 잘 표현하고 긴장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다. 결선 당일, 심사위원들이 부스를 방문할 때 누구보다 당당히 본인들이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설명하며 시연을 보인 까닭이다. 올해는 경진대회가 조금 다른 시작을 맞이한 해다. 바로 주니어 부문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친구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소스코드를 짜고 연습해보기도 하고, 본인의 작품을 편안히 설명하고

시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관람객들은 기특해 할 뿐만 아니라 대단하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한 내용들을 구현하는 '자유공모', 인텔코리아에서 지원하는 인텔 큐리보드를 가지고 실물을 구현해내는 '인텔코리아', 현대자동차가 지원하는 자율주행 모형자동차를 이용한 경기를 진행하는 '자율주행 모형자동차', 사람과 동일한 모습의 로봇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해내는 '지능형 휴머노이드' 까지 총 4가지 부문의 일반분야가 있고, 올해 다시 개최된 주니어 분야는 LEGO EV3를 이용한 무인 택배서비스 미션을 구현해보는 '주니어 임베디드SW챌린저', 어린 친구들의 상

상력을 실현해내는 '주니어 임베디드SW메이커', LEGO EV3를 이용하여 택배 분류 작업 미션을 해보는 '주니어 미니 임베디드SW챌린저'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임베디드SW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대회로서 초등학교부터 일반인들까지 본인들의 IT 역량을 가감없이 뽐내는 경연이었다. 모든 IT분야의 초석이 되는 부분으로서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기회를 많은 참가자들이 경험하기를 바란다.

정리 / 서예윤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송희경**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과 '소프트웨어'

■ 65만 취업 준비생 / 205만 경력단절여성 / 700만 은퇴 앞둔 베이비부머/대한민국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 하지만 현장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 여름이 뜨거우면 가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 어떤 새벽, 어떤 가을, / 그 '어떤'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 긴 밤을 지새우고, 더운 여름에 땀 흘리는 농부처럼 / 대한민국의 그 '어떤' 미래를 위해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 송희경의 다짐,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문

“모과가 해를 걸러 열려요. 작년에는 200여 개가 열렸었는데 올해에는 70여 개로 줄었네요. 대신 알이 굵어지고 향은 더 진해졌어요. 어머니께서 열린 그대로 가져다 제 방에 놓으라고 하셨습다.”

국회 의원회관 1011호실 회의 탁자 위에는 아이 머리통만한 노란 모과 세 개가 앞이 달린 그대로 작은 소쿠리에 가지런하게 담겨있었다. 그 모과는

방 가득 기분 좋은 향을 뿜어내고 있었다. ICT 업계의 유리천장을 깬 대표적인 인물이자 2016년 총선 당시 여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된 송희경 의원이다. 인터뷰 당일 송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과 원내대표 선거로 '비상 대기' 상태에서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일행을 여유롭게 맞이하고 있었다.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인터뷰 시간을 짧게 잡았지만 송 의원은 막상 인터뷰에 들어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열정과 숙고의 흔적이 넘치게 물어나는 답변을 풀어내보였다.

“앞으로 10년이나 15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요?”

“저는 시어머니의 희생에 힘입어 나름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딸이 아이를 낳으면 꼭 돌봐 주리라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합'과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는 소프트 파워로 사물에 지능을 더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산업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적 영향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 ICT를 중심으로 전통산업이 융합산업으로 재편, 산업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돌보고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창업을 해서 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기업에 계속 근무하거나 새로운 모델의 기업 운영을 계획하고 준비해왔거든요. 하지만 넘쳐나는 '애민사상'의 실현 역시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정치에 입문해서 많은 이들과 만나고 나면 파김치가 될 만큼 에너지가 소비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피곤하지는 않았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는 나도 놀랐다”는 송희경 의원이 ICT 전문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국회에서 활약하며 내린 여러 문제들의 진단까지 소개한다.

Q : ICT업계의 '유리천장'을 깬 대표적인 인물이자 총선 당시 여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국회의원으로서는 느끼게 되는 소회는?

A : 저는 느닷없이 국회로 들어왔어요. 다니던 회사에서 대단히 큰 글로벌 계약을 성사시키고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를 비례대표로 선정한다는 뉴스가 났어요. 사실 제가 평소 정치에 뜻이 없었고 따로 하고 싶은 일과 창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국가에 봉사하라는 이러한 제안에 거절을 못했습니다. 결국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입법기관인 국회로 들어온 것 같아요.

국회에 들어서 좋았던 것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4차 산업혁명포럼 등을 통해 국민들과 만나 소통을 이루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 초년생으로서 탄핵 정국을 맞아 혼란스럽기도 했죠. 저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속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ICT 관련 규제를 풀어내겠다는 열의가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

았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포럼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선·후배 모임에 많이 참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오래 전부터 사용했었는데 이것도 중단하고 제 할 일에 전념하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Q :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의 대표적인 성과 두 가지만 꼽는다면?

A : 구체적인 정책성과로는 EMP(전자기 펄스)나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책의 시급성을 적극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에서 EPMP 충격기 시연도 진행했고 '온라인 사드'구축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의 폐해를 지적한 것도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Q :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불리는 송희경 의원이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과 이후 예측되는 '사회적 영향(파장)'은?

A :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합'과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는 소프트 파워로 사물에 지능을 더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산업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적 영향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 ICT를 중심으로 전통산업이 융합산업으로 재편, 산업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전남 고흥에서 드론을 띄어 득량도에 8kg의 우편물 배송을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종전 2시간이던 배송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하게 된 것입니다. 드론 조작·관제에 필요한 ICT 융합 기술과 드론의 자동화 배송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유통의 혁신과 소비



자 편의 제고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데이터 중심의 초연결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O2O 비즈니스, 웨어러블,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이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한편 전통산업이 융합산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술의 혁신이 아닙니다. 혁신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통혁신을 이뤄낸 아마존의 본사에는 4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들입니다. 아마존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제 2 본사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2 본사 신설로 50억 달러 투자와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측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본사 신설 발표 이후 주요 도시들은 아마존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막대한 세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잡기 위해서이지요. '소득주도성장론'이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례라 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자리 걱정이 기우로 끝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새겨야 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혁신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둘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의 혁신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Q :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귀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A : 첫째는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로 창의인재 육

미래 세대는 혁신적인 레시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으로 창의·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줘야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질 높은 소프트웨어 공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업의 중심축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한지 오래입니다. 불과 10년 전,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 순위 상위 랭크된 기업은 석유회사·금융기관·통신회사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를 나란히 점하고 있는 기업은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기업들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을 천명하고 혁신을 거듭 중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제조업 혁신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소프트웨어 파워는 혁신의 촉매이자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는 재료, 소프트웨어는 레시피와 같다 하였습니다. 신선한 데이터와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로 맛있게 요리하는 자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는 혁신적인 레시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으로 창의·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줘야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질 높은 소프트웨어 공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Q :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A : 앞서 말한 소프트웨어 교육 이외에 또 다른 과제로는 산적한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된 이후 줄곧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산업은 ①기존의 전통 산업 보호규제 ②ICT산업 규제 ③개인정보규제라는 '삼각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현장



아마존웹서비스 수석부사장 면담 한국형 도심자율주행 비전 선포식
 공동선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KBS EBS 전자신문
 INDUSTRY4.0 국제컨퍼런스 클라우드 슈밥 회장 특별대담

에서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규제 해소가 시급합니다.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지만 법률적 근거는 없고 재식별화에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부족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 또한 드론·사물인터넷,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비식별화된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아울러 실패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

배해 있습니다. 연구현장과 창업생태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책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은 98%에 육박하는데 이는 실패하는 연구가 없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관료주의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때문입니다. 때문에 몇 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연구의 산업생태계 확산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연구의 기획-과제선정-성과평가-보상 단계별로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면 벤츠, 실패하면 벤치'라는 우스갯소리가 창업 현장에 퍼져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도무지 다시 재기하기 힘든 여건 때문입니다. 창업혁신으로 성공가능도를 달리는 해외와는 사뭇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 번,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여덟 번이나 파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이는 제도적 지원에 있습니다. 세심한 제도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제도 개선과 대출이 아닌 투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스타트업 환경 조성 또한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Q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하여, 국회에서 개최해 화제를 모은 'ICT 평창 특별체험전'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A : 이번 체험전은 'ICT와 올림픽의 결합'을 모토로 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ICT 기술을 국민들께 미리 보여드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에 선보일 다양한 융합 기술을 5G·UHD·VR·IoT·AI등 각종 분야별로 구성, 참석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죠. 아울러 이번 체험전은 ICT 평창 동계 올림픽 알리기에 여야가 합심했다는 점에서도 또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Q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생체인식 시스템'의 적극 활용 촉구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요?

A : 전 세계적으로 생체인증 보안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



림픽을 목표로 지문인식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큰 무대입니다. 올림픽 무대를 융합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올림픽 무대가 테스트 베드 역할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기술 상용화와 우수 기업의 해외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평창 올림픽 생체인증 보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Q :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창립을 주도하셨습니다. 이 포럼의 창립 동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A : 지난 29년 동안 ICT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ICT 발전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인구 절벽·청년 실업·저성장·제조업 위축 등 백척간두(百尺竿頭) 위에 서있는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변곡점에 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허들을 반드시 넘어야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난해에 국회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와보니 정작 과학기술은 비주류임을 절감했습니다. 관련 정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부족했고 관련 법안은 정파 정쟁의 뒤에 밀리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의 부재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20대 국회의 여야 3당 비례대표 의원 1번 모두가 과학기술 출신이어서 3당 과학기술 전문가부터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연구와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Q :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을 운영하시면서 원년과 올해 2017년 통틀어 맺은 가시적인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A : 출범 원년에는 4차 산업혁명 알리기에 역량을 집중했고 결실을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 일주일에 한번 산업계 전문가·국회의원·언론인뿐만 아니라 학생·주부 등 일반인들을 모시고 열 두 번의 아카데미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매회 마다 200여 명의 다양한 분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4차 산업혁명의 대



부,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과 함께 대담을 가지면서 언론의 많은 관심도 이끌어 냈습니다. 올해는 포럼을 전국에서 개최하여 활동의 보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올해 포럼 아카데미 시즌 2는 지역별 융합 특화 산업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스마트시티), 전북(농·생명 밸리), 대전(인공지능·생명과학), 대구(미래형자동차)를 방문했고 그 때마다 지역특화 융합산업 육성에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국회와 지자체간 협업의 물꼬를 텃다고 하겠습니다. 포럼은 출범 이후 수많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인식 확산과 제도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이 때문에 포럼이 여야 협치(協治)의 모범 모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지자체, 그리고 산·학·연 간의 협업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차 포럼의 위상도 함께 높아

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고요.

Q : 새벽 5시에 기상, 솔한 난관 이겨내며 자기개발에 매진하여 한 분야의 정상에 선 '30년차 워킹맘'의 입장에서 '수저의 상승'을 꿈꾸는 젊은 후배, 특히 여성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흑수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키우고 자란 덕분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며 진일보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성 최초로 KT 전무가 되기까지 '어금니가 다 없어졌다', '탬버린 치느라 손이 다 닳았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을 만큼 노력했기에 하는 말입니다. 여성이기에 남성들보다 성과를 더 이뤄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데에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모델이 되어야 하겠다는, 특히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하겠다는 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꿈수저'가 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Q : 미국 CES에서 현대차의 자율자동차를 보고 "뤼베송의 <제5원소>의 한 장면 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그 후편격인 <발레리안 - 천개 행성 도시>와 SF영화의 교과서 격인 <블레이드 런너> 후편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평소 어떤 영화 좋아하시고, 최근에 본 영화는?

A :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해외 출장 중에 비행기에서 서너 편의 영화를 몰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적극 챙겨서 봅니다. 최근에 비행기 안에서 본 <어메이징 메리>라는 수학 천재 소녀의 교육 문제와 가족간의 갈등과 해소를 밀도 있게 다룬 영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ICT 관련 영화나 SF영화는 아니었지만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처한 교육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송희경 의원은 평소 책을 많이 읽은 편이다. EBS의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진행을 할 정도다. 때문에 많은 책들과 만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매일 만나는 책이다. 물론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읽는 <성경> 구절을 통해 흠어진 마음은 정갈하게 하고 열성을 다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롤 모델로 꼽는 이는 두 사람이다. 첫째는 쿼리 박사 혹은 쿼리 연구원이 아닌 '쿼리부인'이다. 당시에는 여성이, 더구나 결혼한 여성이 과학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아주 귀한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부인'이 붙은 쿼리를 롤 모델로 삼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도 출신의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그가 비록 세련되지 않은 심플한 영어를 구사하는 인도인이고 남자이지만 세계적인 대기업을 운영하는 CEO이고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겸손과 스마트한 엔지니어로서의 재능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단.

매일 새벽 5시에 출근을 하고 대학과 전공을 바꿔 공부까지 계속해 석사 학위 두 개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했던 송희경 의원. 그녀는 이제 "치열하게 4년을 보내겠다"면서 국회로 입성해 2년 동안 전문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탁월한 활약을 펼쳐내고 있다. 임기가 끝나는 2년 뒤에도 국회에 머물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치열한 삶의 연장이 되리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특유의 따뜻함은 유지하면서.

정리/전구주 · 사진/이재훈(모델리아니)

송희경 의원 Profile

이화여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아주대학교 정보처리·전자상거래 석사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저출산고령화특위 간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KT GGA IoT 사업단 전무(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전)
 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장(전)

2013의 가장 큰 변화 '플랫폼과 4차산업혁명'

- 경쟁력 있는 산업 중심으로 변화
- 구조적, 서둘러 대응 < 신중하게 추진하며 (선도형 R&D)로 변화

4차산업혁명위원회 고진 위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결성의 궁극의 목표는 국민과의 협의!”

■ “현 시점(시기,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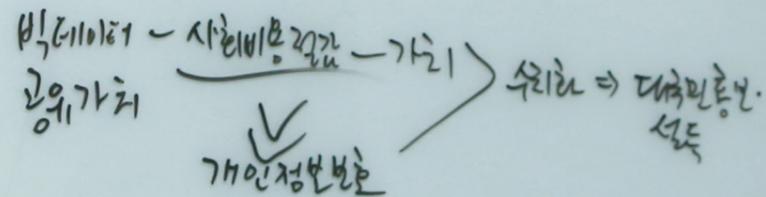
“뉴 노멀 시대 ‘저성장(낮 크래키, 생산성), 저출산, 고령화’를 맞은 우리나라에 혁명적 변화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혁명’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직함을 동시에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고진 위원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과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등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말은 그 래도 꽤 정확하다”고 했다.

일자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디지털 ICT 세계에서 자원도 변변치 않고 땅덩어리도 작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빨리 기회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에 열광하고 호응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해석이었다.

182cm, 77kg. 흰색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 잘 어울리는 그에게서 문학, 예술, 그리고 중년 모델의 기운마저 느껴졌다.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 일행을

MOIBA is a Mobile Internet Business Association
 We protect users from harmful and illegal contents
 try to keep fair business relationship betw Big enterprise and S-M companies
 and ^{make} their ecosystem healthy
 Also we make proposals for the industry adjustment policy
 represent industry against excessive regulation





맞이하는 고진 위원은 질문마다에 명쾌하게 그려나 신중하게 답을 주었다.

고 위원의 집무실은 마치 난제를 하나 풀어낸 어느 물리학자의 연구실마냥 아날로그적으로 스크랩 된 각종 자료와 또 다른 자료들을 담은 수백 개의 종이박스, 고차원 방정식 같은 칠판의 메모로 둘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검붉은 색을 머금어 강렬한 인상 짙게 풍기는 시들어가는 해바

라기 그림(황혼)이 놓여 있었다.

“고혜련 작가의 그림인가요?”

“예, 고인이 되신 저의 고모님 그림입니다. 유독 저 그림을 아끼셨습니다.”

화가이자 시인인 고혜련은 꽃그림을 주로 그렸는데 유독 해바라기만은 강렬한 색조, 그것도 검붉은 색을 사용했다. 날렵한 붓놀림으로 쓰인 시역시 ‘꽃이 피면 길이 보였는데/꽃이 지니 길이 숨어

버린다/길이 보이고/숨어버리고/그러면서 가을은 왔다’처럼 울림이 깊어 화단과 문단 양쪽에서 주목을 받았었다.

고진 위원의 부친은 그 유명한 고건 총리다. 그리고 조부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 전북대 총장, 국회의원을 지낸 고흥곤 선생이다. 그가 대학 진학을 ‘문과’나 ‘이과’냐로 고민할 때 할아버지는 문과를, 아버지는 이과도 괜찮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 창업을 실행할 때는 할아버지께서 창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었을 만큼 좋아하셨다고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결성 의미는 국가의 전체적인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고, 또 그 혁신을 국민들과 공감하기 위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과 ‘소통’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실천’하기 위하여 적절한 때에 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보다 더 됩니다. 할아버지가 바닷가에 가계실 적이나 내장산 산장에 머무실 때 몇 달씩 함께 하면서 밥도 하고 살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한 이후에는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시면서 ‘회사 돈으로 쓰지 말고, 이 돈으로 직원들 술 사주고 필요한 데에 써라’ 하셨지요. 할아버지가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신 기간이 상당합니다. 아버지가 고위직에 계셔서 제가 사업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이 더 컸다고 해야 할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받는 특혜가 거슬려 결벽증 같은 것이 생길 만큼 불편함이 컸고요. 아버지는 지금도 그런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물론 연년생 동생도 이과를 진로로 택했던 데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자연스럽게 부친과 조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는 거리낌 없이 그 질문마다에 답을 주었다. 고건 전 총리는 최근에도 매일 학생들이 다

니는 동네 헬스장에서 1시간 30분 정도 밀도 있는 운동을 할 만큼 건강하시며, 팔순잔치를 하지 않은 대신 매년 주위 가까운 분들과 함께 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들인 그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스스로없이 건넸다. 1시간 20분 넘도록 인터뷰 한 내용과 고 위원이 답변용으로 메모한 내용을 취합해서 정리했다.

Q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결성의 의미와 그 가치는?
A : 위원회 결성 의미는 과학, 기술, 사회, 산업, 경제 등 국가의 전체적인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고, 또 그 혁신을 국민들과 공감하기 위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과 ‘소통’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실천’하기 위하여 시기적절한 때에 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활동 내역이 궁금합니다.

A ; 이는 제가 주장을 강하게 한 것이기도 한데, 먼저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전략, 로드맵 등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말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큰 그림’이라는 용어는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문서에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 체감형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작은 것부터 보여주는 작업이 실행될 것입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공개 제안한 내용인 ‘규제 및 제도개선 해커톤’ 끝장토론은 그 실행의 사전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 해 12월 중으로 날짜와 장소를 정해 정부 부처 담당자 및 위원들이 1박2일간의 끝장토론을 거쳐 규제 제도 개선 시행 여부를 사안별로 결론을 내자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사안 10개 정도를 정해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산업경제 분야에서의 규제 문제를 들여다보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만으로 개선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꽤 많다고 봅니다. 물론 사안별로 그 경중을 나누어 특별법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꼭 밟아야 되

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Q : 고진 위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A : 짧게 답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야 할 '국민과의 협의'라 하겠습니다. 부연하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혁명적 변화와 우리의 대응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협의'가 곧 당위인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이후까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급변적인 혁신 과정을 통해 인력, 직업, 산업지형 등등에서 갭이 생겨날 것이고 이에 관한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세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양성 교육의 문제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 확대, 국민계층 내 고령층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OECD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고 든 생각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인가. 통신망 강국 아닌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ICT지수라는 게 저개발국가와 통신망 부분이 크게 반영되어있거든요. 기업에 반영된 소프트웨어 분야와 시스템화 여부가 더 크게 반영되어야 제대로 된 분석인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는 OECD 국가 중 1위라 할 수 있겠으나 그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디지털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 다음은 역시 '규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Q :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는 무엇입니까?

A :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첫째, 중소기업, 노년층 등의 생산성 격차(경쟁력),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둘째, 신성장동력으로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수급 및 직업변화에 대응한 교육이며 넷째, 데이터 공유 및 활용입니다.

Q : 할아버지 응원으로 안정과 여유가 보장된 자리보

다는 IT벤처창업을 기꺼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들었습니다. 다시 이와 유사한 기로에 서게 된다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A : '벤처사업'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벤처를 시작했다가 길바닥에 나 있을 수 있는 고비를 두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엇인가를 시도한다면 회사에 들어가 경험도 쌓고 좋은 팀도 만들어서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가 정치는 아닙니다. 평소 정치에 삼가야 되는 것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점 중 하나는 대기업(재벌기업)의 규모와 경쟁력입니다. 장단점이 모두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대기업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이끌어 준다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Q :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위원을 재선하면서 '산업생태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A : 우리나라의 강점 중 하나는 대기업(재벌기업)의 규모와 경쟁력입니다. 장단점이 모두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대기업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이끌어 준다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도 신성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소벤처기업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00년대 이동통신생태계'라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다는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질문과 대답, 그리고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 오가면서 사무실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을 '국민과의 협의'라고 한



마디로 정리하는 그는 1994년에 자본금 8천만 원으로 벤처 회사를 설립하여 '외길'을 걸어온 소프트웨어 분야 파이오니어라 하겠다.

동영상압축과 재생하는 기술을 보유한 바로비전이라는 회사로 PC와 휴대폰에 비디오와 오디오 서비스 등을 융합 제공해왔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 화면에 깔린 동영상 압축과 결합하는 제품 중에 여러 가지가 그의 회사에서 개발된 것이다. 그리고 일찌감치 해외로 소프트웨어를 10억 원 넘게 수출하기도 했다.

“저희 회사가 일찍부터 ‘융합’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PC에서의 동영상 보기, DVD 시청 소프트웨어, MP3, 그리고 최초로 제작하여 이름까지 붙여 세계적인 과학지에도 소개가 된 PMP 등등 동영상 압축과 융합하는 제품,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제품, 멜론, 준 서비스 등등이 저희 제품입니다.”

1999년에는 이런 점을 인정받아 그의 회사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상이 세간에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 내고 그는 압박감에 힘이 들었다. “아버지 덕으로 부당하게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였다. 고진 위원은 이런 일련의 오해 사례가 발생할 때뿐만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일찍부터 일종의 ‘결벽증’ 비슷한 불편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가 학창시절에 받았던 불편한 배려 역시 그 크기를 키웠다. 하지만 최근의 그는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 연임,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 굵직굵직한 직함을 여럿 맡아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내면서 보람의 크기 또한 키워내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의 나, 고진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벤처’입니다. 제가 요즘의 이런 직책 제안에 수락을 하지 않았다면 벌써 벤처 회사를 차렸을 것입니다. 물론 어울리는 아이템도 갖고 있고요. 저렇게 쌓여 있는 박스 안에는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창업과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전의 실패 가치를 높게 안 본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의 도전



그리고 실패 등의 경험은 나중에 모두 자신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시도할 때는 자신을 보완해줄 수 있는 파트너들의 팀워크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요.”

“최근 읽은 책과 본 영화는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위의 엄청난 분량의 <디지털화보고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꼼꼼하게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다른 책들을 읽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아이들을 위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을 재구성한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공저(共著)의 <미움받을 용기>를 챙겨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채식주의자>, 김훈의 <남한산성>, <1Q84> 발표 이전의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를 좋아합니다. 영화는 <딩케르크>, <마션>을 재미있게 보았어요. SF 영화보다는 예술을 지향하는 영화를 일부러 극장을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고진 위원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한 요즈음이 불만이다. 광화문의 소극장에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를 보고나오다 관객 인사를 위해 극장을 방문한 감독, 배우 일행과 마주쳐 어색했던 기억을 상기해낸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다룬 영화 <변호인> 촬영 당시 제작비가 부족해 엑스트라를 구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 수십여 명이 법정장면 엑스트라로 직접 출연을 감행했을 만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표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가훈 혹은 명언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삼계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누구의 사람이라는 말을 안 듣게 행동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할아버지께서 강조하신 ‘요행을 바라는 일은 하지 마라. 계획보다는 현재(현실)에 충실해라.’라는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건 전 총리는 그에게 “정치는 하지 마라. 대신 내가 받은 만큼 국가에 기여할 길을 찾아라.”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한다. 그 역시 ‘과학기



술 정책’ 같은 전공분야로 국가에 기여할 생각이어서 바라는 계획과 일정을 잠시 미루고 있다는 고진 위원과의 인터뷰를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넘기고 보충 촬영까지 마쳤더니 그의 사무실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초동 국립도서관 길은 어느새 전조등, 미등을 켜 차량 행렬이 만들어내는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 덕분에 가로등은 일찍 피어났고, 단풍 짙게 든 나뭇잎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그가 가슴에 새긴다는 ‘계획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이 눈꽃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정리/전구주 · 사진/이재훈



고진 위원 Profile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리큐스대 컴퓨터공학 박사
 바로비전(주) 대표이사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 공동위원장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제4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대통령상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

“IT세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핵심 키’가 되자”

■ “이제는 과학기술이, 소프트웨어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는 시대를 넘어 국민의 행복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11월 10일 오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자리한 판교 일대는 짙은 가을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오후 4시에 인터뷰 약속을 잡은 김명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미리 보내진 인터뷰 질의서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미리 답을 정리하고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기를 요청했다. ‘의례적인’ 인터뷰가 될 것으로 예감했다. 하지만 그 의례적인 질문으로 1시간 30분간의 추가 인터뷰가 이어졌다. 김명준 소장의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프랑스로의 유학 동기에서부터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독서 성향과 만년을 전원에서 ‘또 다른 생’을 보낼 계획까지 끊임 없이 듣게 되고 나서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올바른 결정이었다면 일말의 주저함도, 필요한 결정이었다면 그물을 지나는 바람처럼 거칠 것도 없다는 그의 인생 여정과, 소프트웨어정책을 엿볼 수 있도록 정리된 답변서였다.

김명준 소장에 대한 인상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의 인사말이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략개발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하고, 소프트

웨어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사회혁신을 실현하며, 그리고 소프트웨어정책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집현전(集賢殿, Think Tank)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중대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면 호치민이 머리맡에 두고 애독했다는 다산의 <목민심서>를 그 또한 올바른 이정표로 삼으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정책 발전에 기여해온 김명준 소장과의 만남은 늦가을의 단풍만큼이나 아름다웠다.

Q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으로 부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A : ETRI에서 연구자로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다가 국가 정책 개발자로 변신을 하니, 연구개발이 정책개발보다 더 힘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면 개발 성공이나 실패가 확실하고, 성공하더라도 경쟁 제품에 비해 새로운 기능이 있거나 성능 면에서도 월등히 나아야하기 때문에 늘 밀도 있게 연구결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개발은 그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책개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개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교,



공공사업 분할 발주, 분리 구매 등... 말입니다.

Q : 소장님이 취임 하면서 세운 정책을 점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는지요?

A : 초대 김진형 소장께서 소프트웨어 정책 개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으로 창업하여 회사를 만들고 사람을 뽑고 그리고 월간지, 이슈 보고서, 포럼, 컨퍼런스, 석학 세미나 등등 여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보배로운 구슬 같은 인재를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각종 사업의 콘텐츠를 채우는 일이 제2대 소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금년 초에 2대 경영목표로 우선 소프트웨어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과거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을 개발하였다면 앞으로는 '모든 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을 개발한다고 우선 천명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소프트파워 코리아 2025'에서 다른 분야를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인 농수산임업도 다루었고, 전통적인 중소기업 제조업 그리고 금융, 의료 서비스 분야의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혁신 방안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나 고령자가 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창업 분야도 다루었습니다.

국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되기 위한 방안은 우리 연구소가 정책개발 플랫폼이 되어 9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바깥 전문가 120여명을 초청하여 집단 지성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업반장은 모두 외부 전문가이고 저희 연구원들은 PM과 연구원 역할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Q : '국제연구소'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A : 솔직히 올해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고 준비 단계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발간하는 월간지를 일부한·영문 혼합으로 개선하여 외국 수요자들이 제목이나 목차 그리고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의 내용도 차차 영문 내용을 늘려갑니다. 한편, 외국 그 가운데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들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리소

토,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번 달 말에 제가 독일을 방문하여 인터스트리4.0 현장과 관련 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제화의 초석은 저희가 만드는 정책의 기초를 공평, 실용 그리고 보편으로 잡았습니다. 어느 한 이익집단에 치우치는 정책 개발을 하면 피해를 보는 다른 집단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5년 이내에 일정액수의 재정을 투입하면 반드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저희 편집 철학입니다. 이는 바로 국제연구소로 가는 큰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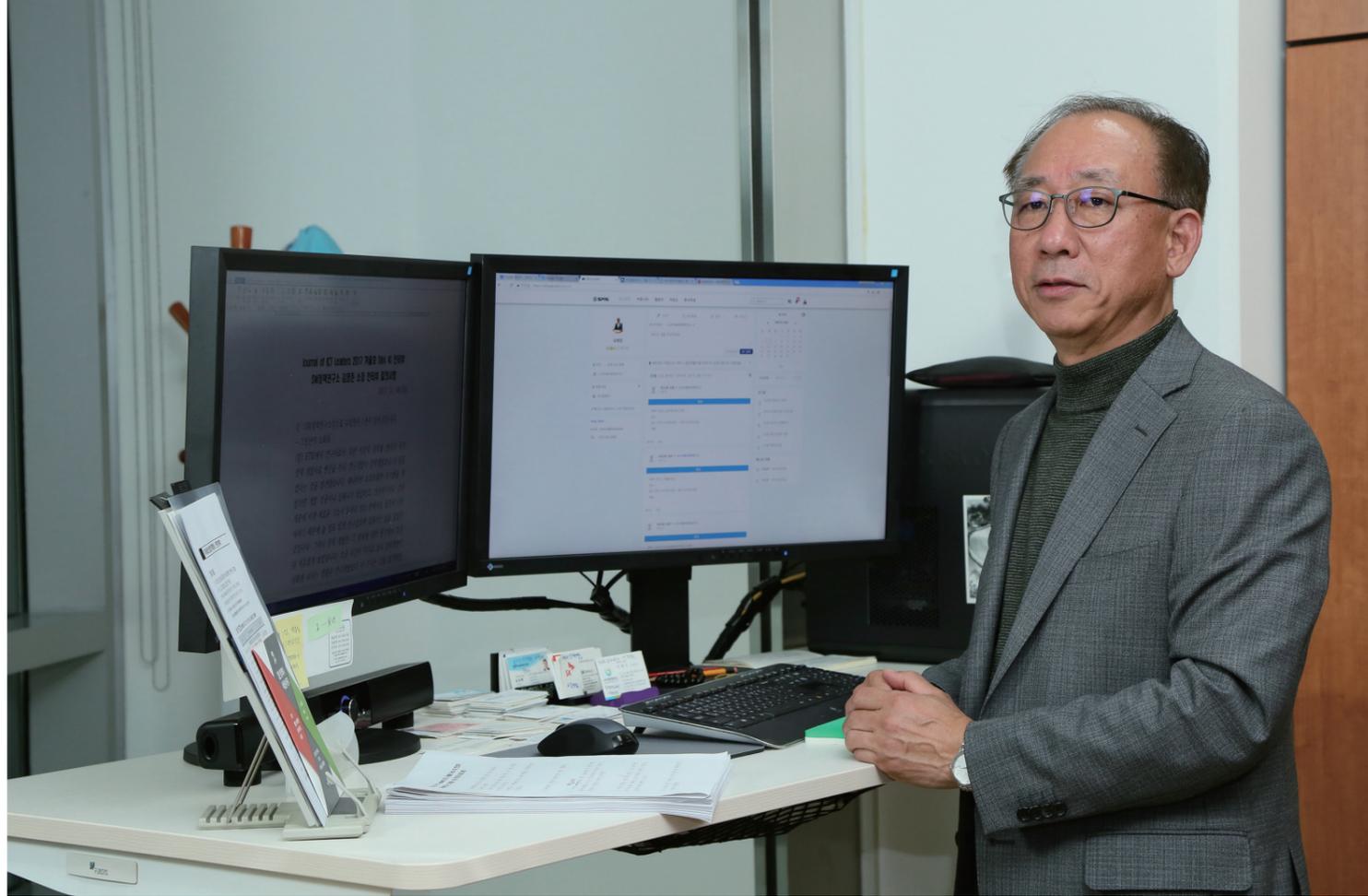
Q :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소장님의 인생에 있어 무엇 일까요?

소프트파워코리아 2025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종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 대통령에 걸친 계획으로서 경제, 농수산업, 공공혁신, 국방, 교육 그리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작했습니다.

A : 제 삶의 자체이고 유산(遺産). 요약하자면 1975년 12월 KIST(과학기술연구소)에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고는 제 삶이 바뀌어 그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의 길을 한 번도 한눈팔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60여년 인생에서 40여년이란 시간이니 '제 삶의 자체'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둘, 그리고 며느리도 같은 분야에서 연마하고 있으니 어찌 가업으로 이어지는 유산이 아닐까요?

Q : 1975년 KIST에서 맺은 컴퓨터와의 첫 인연 이래 ETRI에서 개발자로 수십 년 연구해오면서 소장님이 그동안 이룬 대표적인 성과(업적) 세가지만 꼽는다면?

A : 첫째, '바다'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



템, Database Management System) I, II, III, IV, V(1998-2002), 둘째, '부요' 리눅스 운영체제 핵심 기술 개발(2004-2007),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플래그십 과제 'GLORY' 사업(2007-2011)의 결과물인 GLORY/FS(File System)입니다. GLORY/FS은 현재 KT, SKT, LGU+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GLORY는 '저비용 대규모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개발 사업의 단축 별명입니다. 이는 바다 DBMS를 시작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파일시스템을 여덟 번 만들었더니 현장에서 외국 제품과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례를 거의 30년에 걸쳐서 증명한 것입니다.

Q : 소장님이 지향하는 미래 소프트웨어로드맵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파워 코리아 2025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 앞에서 잠깐 언급한 소프트파워코리아 2025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종합 프로그

램'을 기획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 대통령에 걸친 계획으로서 경제, 농수산업, 공공혁신, 국방, 교육 그리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작했습니다. 방법론은 산업진흥정책, 법/제도, 인력양성, 그리고 연구개발이라는 정책도구를 검토하여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속내는 보편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 후보과제를 제안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개방형 정책개발 플랫폼이 되고, 외부 민간 전문가들 120여명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집단 지성으로 2월부터 6개월간 작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 후보과제 45개를 선정하였고 그 과제들이 실현되면 고용률 1%를 제고할 수 있고 그것을 일자리 숫자로 환산하면 약 35만개입니다. 물론 향후 5년간 약 5조원의 재정이 투자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안한 후보과제 가운데 몇 개는 이미 정책으로 채택되어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Q : 소장님이 가장 주목하는 신기술과 10년 뒤를 예측해 어떤 변화가 따라올까요?

A : 작년 세계경제포럼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쓴 '제4차 산업혁명'이란 책을 읽어보면, 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여전히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일부 학자와 전문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뒷받침하는 세 가지 근거 가운데 시스템 충격을 인정하고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경제, 외교, 교육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라고 봅니다. 기술발전은 계속 융합하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 시각에서 보니 그 파급효과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10년 신기술을 예측하기보다 사회 문화적인 예측과 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가치'를 연구하고 나누고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류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가치는 개방, 공유 그리고 참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가치는 감히 '배려'라고 오늘 주장해 봅니다.

Q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본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바람직한 대응전략은?

A : 제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탈바꿈(Transformation)'이라 풀고, 그 핵심 방법은 소프트웨어 인 것을 이제는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 혁명으로 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수준은 세계 5~6위입니다. 관련 기업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탈바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회 전반의 탈바꿈으로 이해하시길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아직 취약한 1차 산업 즉 농수산업업을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과거 새마을운동 이후 우리나라 농어촌에는 제조업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혁신이 없었습니다. 제조업의 경험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우리나라 1차 산업의 발전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비



슷한 맥락에서 서비스업의 발전도 제4차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 서비스의 발전이나 자주 국방도 제4차 산업혁명에서 구현할 대한민국 사회의 디지털 탈바꿈 대상인데 이에 대한 답은 다음 질문에서 합니다.

Q : "소프트웨어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소장님은 상시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

떤 내용입니까?

A : 많은 분들이 이름이 '산업혁명' 이기에 제4차 산업혁명을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고 하고 그래서 기업이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는 기회로 삼고 주장합니다.

공공 서비스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권위주의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국민이나 기업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로 탈바꿈하고, ABCi(AI, Bigdata, Cloud, Internet of things)로 대표하는 신기술이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데 사용하면 국격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교통 체증, 사교육비용, 학교 폭력, 노인 치매, 산업재해, 화재나 재난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합니다. 더 나아가 저 출산, 의료비 부담, 주거비 부담, 자주국방과 안전 그리고 청정에너지 문제까지 다 풀었다면 그런 나라는 당연히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겠지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는 과학기술이, 소프트웨어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는 시대는 보내고 국민의 행복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비교: 헌법 제127조 제1항, 제10조)

Q : '初發心(초발심)' '柔能勝剛(유능승강)' 등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경구나 사자성어와, 가까이 두고 보는 책, 주위에 권하는 책 소개를 해주세요.

A : 경구로는 제갈공명의 寧靜致遠(영정치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 보는 책으로는 이오덕의 <우리 글 바로쓰기>, 다산 정약용의 <牧民心書(목민심서)>, 루이스 거스너의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등이 있으며 김훈 <칼의 노래>, 군터 파울리 <블루 이코노미>, 리처드 도킨스, <지상 최대의 쇼>, 사이먼 싱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등을 주변에 권하고 싶습니다.

Q : 만약 청년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A : 저희 세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이나 국가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렇게 만드는 데 일조한 세대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낮고



내일은 더 좋아진다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지닌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순간이 청년시대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굳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Q : 10년 뒤의 소장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A : 귀촌(歸村) 준비를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백 평정도 농사는 1995년부터 시작하였고, 이번 달에는 친구 몇 명이서 금산에 귀촌하여 집 지을 땅을 계약 완료합니다. 작은 규모나마 주변 산을 공원으로 만들어 개방하고 스마트 팜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도 가졌습니다. 산에 새로 심을 나무와 풀을 모두 흰색이나 보라색 꽃으로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정리/문정현 · 사진/이재훈



김명준 소장 Profile

1978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1980년 카이스트 대학원 전산학 석사
1986년 남시제대학교대학원 전산학 박사

아주대학교 종합연구소 연구원
프랑스 남시 전산학연구소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연구실장
소프트웨어연구부장
인터넷서버그룹장, 기획본부장, 창의연구본부장
소프트웨어&콘텐츠연구소장
제27대 한국정보과학회장
미국 리눅스재단 선출이사(2013~201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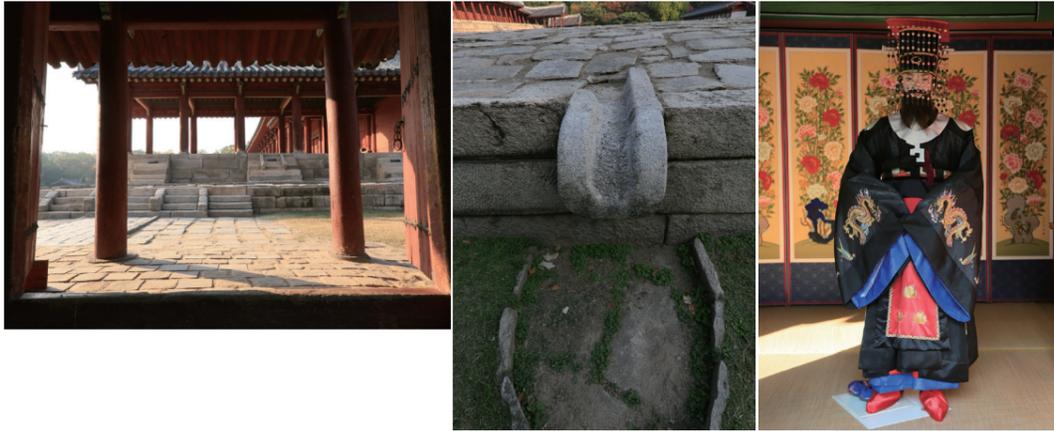
한국의窓

조선의 역대 왕들과
조우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

종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 최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조선의 왕궁과 더불어 종묘와 사직을 감동적으로 소개한 후여서 관람객이 많을 것을 예상하고 종묘를 찾았다. 가을이 한창 깊어지던 때였고, 문화재청의 4대궁 통합관람 등의 지원책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때문이었는지 평소보다 종묘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백여 명이 한 조를 이루어 관람을 해야 할 정도였고, 조별 간의 간격도 짧아 앞의 팀과 뒤의 팀이 섞일 정도였다. 외국인 관람객도 예상보다 많았다.

오롯이 망자를 위한 공간이랄 수 있는 종묘는 유학을 통치기반으로 하여 건국한 조선왕조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장소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정전을 종묘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전과 영녕전을 모두 합쳐 종묘라 부른다.

정전과 영녕전은 장식과 기교를 절제하여 단조롭게 보일 정도다. 그 이유는 왕실의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기에 존엄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의도를 갖고 만든 장치이기 때문이다. 지붕은 수평으로 하늘 끝까지 펼쳐져 있는데 무한을 상징한다.

정전에는 태조 이성계의 신주를 비롯해 공덕이 있는 역대 왕과 왕비 49분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 영녕전에는 태조의 4대조를 비롯해 조선의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 34분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

종묘는 태조 3년(1394)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그해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1395) 9월에 완공 하였으며, 곧이어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다. 정전 뜰 앞에 있는 공신당에는 정전에 계신 왕들의 공신 83위가 모셔져 있다.

종묘는 건물과 더불어 제례 및 제례악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예로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종묘 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2001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전

정전은 왕과 왕비가 승하한 후 궁궐에서 삼년상을 치른 후 신주를 모시는 건물이다. 길게 펼쳐진 묘정 월대는 나라의 안정을, 건물 전면에 무한반복 되는 듯한 기둥의 배열은 왕위의 영속을 상징한다. 단일 목조 건물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국보 제227호.

영녕전

영녕전은 세종 때 종묘에 모시던 태조의 4대 추존왕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그 왕비들이 신주를 옮겨 모시기 위해 세워진 별묘이다. '왕실의 조상과 자손이 함께 길이 평안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사후세계와 맞닿아있는 것 같은 양녕전은 그야말로 고요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보물 제821호.

종묘제례

종묘제례는 왕이 직접 행하는 가장 격식이 높고 큰 제사로서 정전에서는 사계절의 각 첫 달에 정해진 날과 선달을 합쳐 일 년에 다섯 번, 영녕전에서는 봄·가을에 두 번 봉행했다. 현재는 봄과 가을에 두 번 봉행되고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56호.

사진/이재훈

종묘역사

- 1394년(태조3년) 종묘기공
- 1395년(태조4년) 9월29일 정전 7실 영건
- 1395년(태조4년) 윤9월28일 추존 4대(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새 종묘에 봉안
- 1398년(태조7년) 2월 종묘 남쪽에 가산(假山)조성
- 1406년(태종6년) 2월 재공건립
- 1421년(세종3년) 정종(定宗)을 부묘할 때 태실(太室) 부속으로 송조사조전 전례(宋朝四祖殿 前例)에 따라 동년 10월 태묘 서측에 영녕전(永寧殿) 4실을 건립[12월16일 목조를 영녕전 정전 제1로 체천(遞遷)하였음]
- 1546년(명종원년) 정전 4실 증축
- 1592년(선조25년) 5월3일 임진왜란으로 정전·영녕전이 모두 병화(兵火)로 소실
- 1608년(광해군 즉위년) 5월30일 정전 중건(重建) 정전 11실이 됨. 영녕전 10칸 규모로 다시 세움
- 1726년(영조2년) 정전(正殿) 4실 증수(增修)
- 1836년(헌종2년) 정전 4실 증수(增修)
- 1928년 정전(태조에서 순종까지 19실 48위) 영녕전(목조에서 장조까지 15실 32위) 공신당(功臣堂)(태조부터 순종까지 83위의 공신배향(功臣配享))
- 1945년 종묘대제(宗廟大祭) 폐지
- 1961년 일반 공개
- 1963년 1월18일 종묘 史蹟 125號 지정
- 1964년 12월7일 종묘제례악 중요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
- 1969년 순정효황후를 부묘하여 정전 신주가 49위가 됨
- 종묘대제봉행 재개. 10월1일 1회 대제봉행(국가)
- 1970년 영친왕(英親王) 승하(昇遐)
- 1971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초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봉행하기로 결정함.
- 1973년 영녕전 16실에 의민황태자(영왕) 부묘 총33위가 됨.
- 1975년 5월3일 종묘제례 중요무형문화재 56호로 지정
- 1985년 4월15일 정전·영녕전 일반 공개
- 1991년 영녕전 16실에 의민황태자비(이방자) 부묘 총 34위가 됨.
- 1995년 12월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1997년 5월2일 세계문화유산 표식 제막
- 2001년 5월18일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



가장 신뢰받는 ICT산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 8층 TEL (02)2132-0701 FAX (02)782-1266 E-mail fkii@fkii.org

SINCE 2004

한이음

내가 개발한 프로젝트가 세상을 바꾼다면



한이음 ICT멘토링

WHY?

- 기업은 스펙보다 실무역량을 중시!
- 기업체 멘토와 함께하는 실무 프로젝트!
- 매년 4,000여명의 대학생 참여!
- 취업 경쟁력 향상!

SW Level-Up 프로젝트 참여 대학생 모집

WHO? ICT분야 진로에 관심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전공무관)

WHEN? 2017년 3월 6일 ~ 2017년 4월 30일
* 프로젝트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WHERE? 한이음사이트 www.hanium.or.kr 에서 신청

WHAT? 개발 중심의 실무프로젝트
* 한이음사이트 프로젝트 현황에서 확인가능

HOW?

Step.1 프로젝트신청

- 한이음사이트 프로젝트 검색
- 프로젝트 참여 신청

Step.2 프로젝트개설

- 팀(멘티 3~5명) 구성
- 수행계획서 / 장비신청서 제출
- 프로젝트 심의 및 개설승인

Step.3 프로젝트수행

- 프로젝트 진행
- 지원제도 활용
- 한이음 공모전 신청
- 한이음 엑스포 전시

Step.4 프로젝트종료

- 결과보고서 작성
- 프로젝트 성과등록
- 수행확인서 발급

3월 ~ 4월 3월 ~ 11월 11월 30일까지

지원사항

개발환경

- 실습장비 (100만원)
- 오프라인 미팅 회의실
- 오프라인미팅 교통비 (항공/KTX/고속버스)
- 개발 서버 (클라우드)
- 기술정보수집비 (도서/전자DB)

성과인정

- 특허출원수수료
- 논문발표
- 업등록
- 프로그램등록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수행확인서 발급

문의하기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학협력팀 02-2132-0712~19, hanium@fkii.org

라이나생명보험 이지현 전무(CIO)

일 자체를 좋아하라 자신의 career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져라 자기계발을 놓지 마라

■ 라이나생명보험사는 최근 미래 30주년을 위한 '변화'의 방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보험사들이 생존을 위해 재무지표와 영업실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하게 다른 방식의 경영, 영업방식으로의 변화를 택한 것이다. 그 변화를 이끌 첫 번째 과제는 업무환경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의 변화다. 이에 라이나생명은 먼저 사옥의 리모델링을 통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공간의 변화를 추진해 스마트 오피스, 옥상정원, 다목적 홀을 새로 조성해 11월 1일에 준공식을 마친 상태다. 이지현 전무는 이날의 인터뷰를 위해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와서 리모델링이 완공된 현장 곳곳을 직접 소개했다. "스마트 오피스는 다양한 협업과 자유로운 소통,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일반사무 공간과 집중업무 공간, 협업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석을 지정하지 않아 누구나 어디서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으며 타 부서와의 협업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휴게공간에는 '다트', '보드게임'이 설치된 '북카페'를 만들어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요. 옥상 공간은 힐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동안 막혀 있던 옥상을 정원으로 조성해 산책로, 그늘벤치 등 멋진 휴식공간을 구성한 것입니다. 옥상 공간은 업무 외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편에 다이닝룸을 꾸몄습니다. 이곳에서 회의, 워크숍은 물론 케이터링을 이용한 비어 파티가 가능하도록 생맥주 기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계단식 다목적 홀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을 위한 강연, 교육, 소극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75명까지를 수용하는 이 공



라이나생명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그나 그룹의 경영 이념인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3C라고 불리는 고객(Customer), 연결(Connection), 문화(Culture)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 낼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워크숍, 근무환경 변화도 이 3C를 강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직원들의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라이나생명은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그 시작으로 지난 9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한 시간 단축한 9시 출근 5시 퇴근제도를 시행, 자기계발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RPA) 시스템 'LINA BOT(라이나 봇)'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매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했다. 총 32개의 주요업무 프로세스에 적용된 LINA BOT은 하루 약 23시간 소요되는 업무를 1.87시간으로 크게 단축시켰고, 앞으로 더 확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임직원 마인드 셋을 위한 1박2일간의 직급별 '트랜스포메이션 워크숍'을 통해 임원부터 사원까지 각각 변화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실제 조직운영과 경영에 적용되며 직원으로부터의 의식변화를 유도한다.

“라이나생명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그나 그룹의 경영 이념인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3C라고 불리는 고객(Customer), 연결(Connection), 문화(Culture)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 낼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워크숍, 근무환경 변화도 이 3C를 강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현 전무는 최근 이루어진 라이나생명의 변화의 진정성을 “미래 30년은 비단 수익과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고객의 곁을 오래 지키며 고객이

먼저 찾는 보험사가 되는 것이 라이나생명이 진정으로 그리는 앞으로의 30년”이라는 흥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의 말을 빌려 설명했다. 종로 라이나생명 본사 17층 스마트오피스 내 휴게공간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와 인터뷰 질의서에 보내진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Q : 이지현 전무님은 라이나생명 '정보기술본부'와 '디지털본부'를 총괄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관장하시지요?

A : 라이나생명에서 필요한 정보기술 및 보안전반에 대한 기획부터 실행, 모니터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중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라이나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디지털개발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9월경에 디지털본부와 정보개발본부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디지털이라는 것이 BAU(Business as Usual, 일상적으로 꼭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진행해야 하는 역량이라는 관점과 좀 더 속도를 내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Q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문인증 서비스' 도입에 이어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용한 '라이나 봇' 도입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A : 라이나생명보험이 올해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 'LINA BOT'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매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한 것도 단순업무 등을 줄여서 직원들이 좀 더 고객관점에서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10월부터 적용하여서 결과는 총 32개의 주요 업



라이나 임직원이 응원하는 정소년 꿈꾸는 미래

작가 : 김다빈
제작 : Twin

무 프로세스에 적용된 LINA BOT은 하루 약 23시간 소요되는 업무를 약 1.87시간으로 줄이는 정도입니다만, 앞으로도 단순 반복한 업무를 줄여서 직원들의 몰입을 높이는 것을 위해 확대할 예정입니다.

Q : 신기술이 적용되는 또 다른 것은?

A : '챗봇'입니다. 챗봇을 작년 보험업계 최초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채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

디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지만 고객정보를 클라우드로 가져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On-promise 챗봇을 먼저 도입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간단한 질의응답과 간편한 서비스 기능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설계사의 교육 및 간편 설계 지원 서비스를 챗봇을 이용하여 제공하여 설계사들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조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챗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등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 개선하고자 하며, 고객뿐만이 아니라 내부 임직원 및

텔레마케터들에게도 챗봇과 RPA, 전화, 모바일, 웹 시스템 등을 끊임없이(Seamless) 연결하여 혁신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Q : 여성 COO/CISO로서 느끼게 되는 자부심과 애로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A : 제가 일하면서 운이 좋게도 여성과 남성으로서 차별을 느끼지 못할 좋은 상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부심 보다는 책임감을 말하고 싶은데요. 먼저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사내외에서 멘토링을 해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Q : 어떤 계기로 이 분야를 좋아하게 되었고, 앞서가는 선형자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당부는?

A : '첫째, 일 자체를 즐겨라. 둘째, 자신의 career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져라. 셋째, 자기계발을 놓지 마라.'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워킹맘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시련의 시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결국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은 양육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이 일을 내가 즐기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즐기느냐 아니냐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위나 직책 등과 무관하게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자기계발을 하다보면 다시 기회는 오게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다양한 직업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결정이 only one option은 아니므로, 정말 이 일을 즐길 수 있다면 기회는 온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Q : 일 외에 어떤 일에 푹 빠지나요?

A : 일 이외에도 성취감을 가지고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을 한 해에 하나씩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수영을 못했는데, 올해 이것을 깨자고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eMBA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취미를 가질 시간은 부족해서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도 이기고 체력도 단련하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있는 것 중 하나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Q : 만약 1년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A : 1년간 전세계 박물관투어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박물관에는 역사와 삶 등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다른 시대의 다른 민족의 삶을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하나에 여러 세상이 있어서 즐겁고요.

Q : 만약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A :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을 정말 최대한 즐기고 싶습니다. 미팅도 많이 하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해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살아보고 싶어요.

Q : 20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변해있을지 예상해본다면?

A : 저도 워킹맘으로서 커리어 상에 시련도 있었고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하고자 어려움도 있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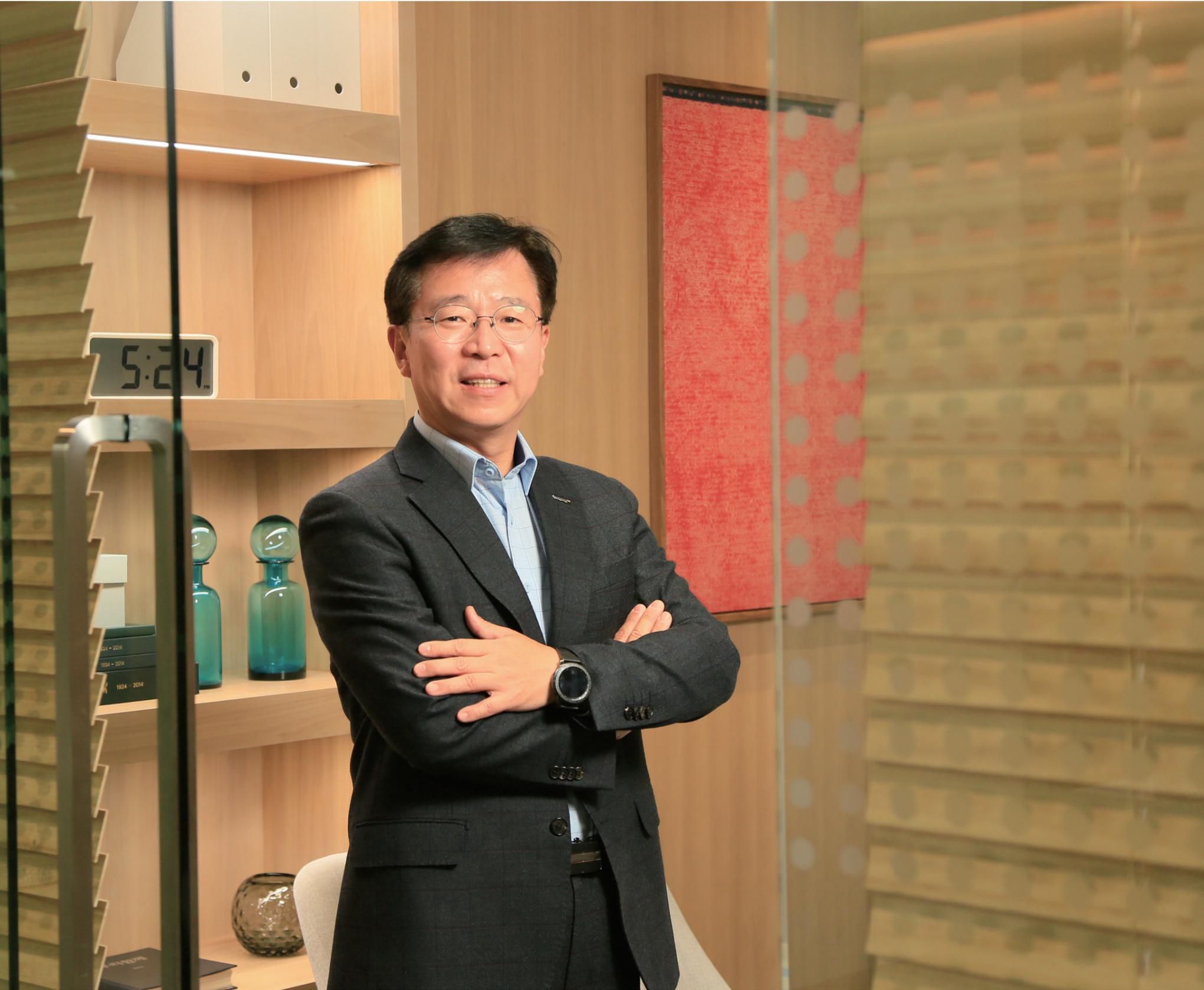
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제가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멘토로서의 봉사를 해보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젊은 창업자나 같은 업계의 팀장급 중간 관리자들에게 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 내에서 멘터를 두고 있는데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리/손정배 · 사진/이재훈



이지현 전무 Profile

1987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
2016년~ 서울대학교 eMBA
1992~2007년 푸르덴셜생명
2008~2010년 PCA생명
2012년~ 라이나생명
2013년 9월~ 라이나생명 CO



삼양데이터시스템(주) 박상훈 대표이사

“스스로의 성장을 인생 목표로 하면
그것은 동력이 된다!”

■ “삼양데이터시스템은 앞으로 산업별, 업종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선진 수준의 시스템화 능력과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초일류 토털 정보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가을이 한창 제 모습에 빠져 있다가 문득 허울을 벗어던지듯 낙엽을 흩뿌려놓는 11월 초 늦은 오후에 종로의 삼양사 본사를 찾았다. 1층 접견실에서 만난 박상훈 대표이사에 대한 첫 인상은 한마디로 ‘정갈함’이었다. 그리고 정돈이 잘 된 명쾌함이었다. 질문마다에 신중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검토와 실행 반복을 통해 습득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답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유리벽을 간막이로 하여 내부가 훤히 잘 보이도록 장치한 접견실에서 무척이나 경쾌한 인터뷰를 1시간 30분가량 진행하고 사진 촬영을 했다. 즐거운 마음을 오래 간직 할 수 있었다.

Q : 삼양데이터시스템은 어떤 회사이고 주력사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A : 삼양사의 전산실에서 출발한 자회사로 1995년도에 설립되었으니 올해로 23년 된 회사입니다. 직원들은 170여 명 정도이고 2017년

에 450억 원 매출을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양그룹 내부 및 대외 시스템 관리(SM)사업, 시스템 통합(SI)사업이 주력사업으로 내·외부 매출의 비율은 대외 부문이 3분의 2, 대내 부문이 3분의 1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IT환경 변화 추세에 따른 사업구조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기반 구축에 주력 중입니다.

Q : 1995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삼양데이터시스템의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은?

A : IT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하여 그룹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지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 대외사업 분야에 신성장 사업으로의 전환은 당위라고 해야겠지요. 2020년까지 연평균 매출 30% 성장이 목표입니다만, 단순하게 매출액 신장에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아웃소싱 분야, 즉 기반 사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분야는 이제 시작이지만 곧 핵심 사업이 될 것이며 회사의 의미 있는 성장의 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영역의 베이스가 클라우드이니 사업적 측면에서 '변화의 길목 지키기'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지요.

삼양은 최근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정보화전략수립(ISP)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제조현장에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외부 신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이 삼양데이터시스템이 크게 그리는 로드맵이라 하겠습니다.

Q : 현재의 IT업계는 변혁의 물결이 장강처럼 흘러 뒤의 물이 앞의 물을 연신 밀어내는 초경쟁의 시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극변의 시기에 삼양데이터시스템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표전략을 꼽아 보면?

A : 삼양그룹은 식품·화학·패키징·의약 등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20개 공장에서 29개의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개발연도도 다르고 인터페

이스도 제각각이어서 현업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생산현장을 디지털화하는 소위 '스마트 팩토리'를 검토하는데 현 구조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스(Cloud PaaS)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 설계와 구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느낀 점 또한 많았습니다. 활용 수준도 떨어지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인공지능(AI) 적용과 인프라 및 플랫폼의 클라우드화 필요성까지도요. 그래서 향후 2~3년간 큰 규모의 PI(Process Innovation)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 : 박상훈 대표이사가 선별한 최적의 디지털 트랜스포이션 사례는?

삼양은 최근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정보화전략수립(ISP)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제조현장에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외부 신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이 삼양데이터시스템이 크게 그리는 로드맵이라 하겠습니다.

A : 이 질문에 내·외적으로 나누어 답을 하면 그룹에 제조 MES 시스템을 구축, 공장 가동 현황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추적하여 에너지효율화, 설비 예지보전 등 생산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통한 제조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활용, 향후의 어떠한 변화에도 즉각 수용 가능한 시스템을 정식 도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외적으로는 핀테크의 중금리 대출과 유사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동산담보관리시스템을 본격 사업화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중장비, 기계 등의 유형자산



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담보물의 분실 우려, 훼손 가능성 등으로 인해 동산자산을 담보물건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착안한 사업으로 위치기반서비스(GPS) 센서를 비롯 다양한 센서를 부착하여 기계설비의 가동상황, 이동, 도난 등의 징후를 항상 모니터링하여 부정적 요인에 사전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에 구축 후 불법적인 매각 전에 자금을 회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Q : 삼양데이터시스템은 2014년 유니닥스와 2017년 NHN과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 '토스트 클라우드'의 영업망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혀 결이 다른 두 회사와의 협약, 어떤 내용인지요?

A : 유니닥스는 전자문서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삼양데이터시스템의 현장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경험과 전자서명 솔루션 노하우가 합쳐져 사업영역 확대와 솔루션 사업기회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가졌습니다.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 솔루션 및 전자서명 솔루션을 제공하여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클라우드 사업의 목표는 전문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인티그레이터(CSI)'로서 오픈소스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및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해 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SI시장은 레드오션으로 시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IT의 무게중심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및 이들 기술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추세이므로 비즈니스의 파트너인 SK주식회사 C&C, IBM과 함께 새로운 시장 및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 중견 IT기업의 수장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겠습니까?

A : 우리가 '해보자' 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역량이 '되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사람의 강한 특성 중 하나로 과거습관에 의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성을 깨고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계속적



인 자극과 꾸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에는 제약이 없어야 하고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문화는 아직 관료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대기업일수록 보수적이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명 하복적인 관리 패턴에서 벗어나 빠르게 현장의 소리가 조직 내에 전달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도 적시에 필드에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IT기업 CEO분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Q : 삼양데이터시스템을 지원할 요량이거나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A : 요즘 신입사원 면접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역량있는 우수한 인재들인데 이들에게 제공할 자리가 많지 않아 입사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에 열정과 재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특히 IT분야는 전문영역이어서 자기가 성장하면 성공은 따라오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에 열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과정에도 만족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 스스로의 성장을 인생의 목표로 하면 그것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의 욕구 그리고 꾸준함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Q : 박상훈 대표이사가 추구하는 기업정신은?

A :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조직의 힘을 그룹을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간에 소통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스스로의 자존감에 더 의미를 두고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과 본 영화, 그리고 롤 모델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고 직원들에게 책 한권을 추천한다면 무슨 책을 권하겠습니까?”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고 있어 소장했던 책들 중 많은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책장 맨 왼쪽에는 끝내 정리를 하지 못하는 책이 꼽혀있습니다. 제가 영향을 받은 책들로 지금도 찾아서 읽습니다. 그중에 특히 버트란트 러셀의 <행복론>, E. 프롬의 <사랑의 기술>과 <소유냐 존재냐>, 4무론의 중국의 철학자 왕명이 69세에 썼다는 <나는 학생이다>는 계속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끔 다시 꺼내서 읽게 됩니다. 제가 IT 전공자가 아니지만 그 분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일이 재미있어 개념의 속성, 미치는 의미 이런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자책에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손에 잡히고 종이를 넘기는 나름의 맛은 어쩔 수 없어요. 책도 책이지만 저는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듣는 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조 산업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신기술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냐고 물으면 대답은 'NO'다. 운영을 잘하고 있는냐고 물어 'NO'다.

- 박상훈 대표이사의 'IBM 커넥트' 기조연설 중에서.

박상훈 대표는 최근 'IBM 커넥트' 행사 기조연설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질문하고 단호하게 엄격한 답을 내렸다. 항상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자리를 점검하면서도 대의와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을 머뭇거리지 않는 그의 진면목을 대변하는 답이라 하겠다. 그런 그가 최근에 본 영화중에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적인가를 물었다. <라라랜드>였다.



의외였다. “큰 아이가 추천해서 본 <라라랜드>는 멋진 색채, 절제된 영상미와 음악이 좋았다.”는 평가에서 그의 문화적 심미안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다.

“만약 1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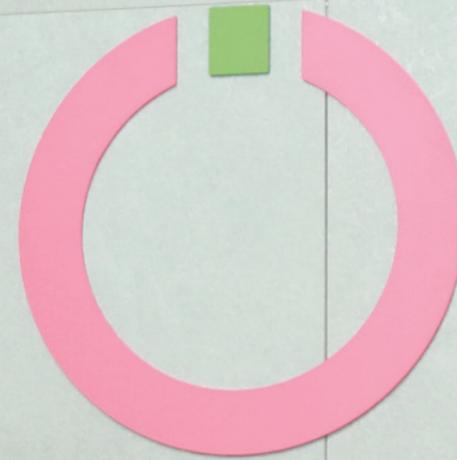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원숙해져 가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공 또한 깊어져 가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에 좋은 점이 안 좋은 점보다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에 대한 몰입을 습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박상훈 대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가량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을 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건강을 챙긴다고 한다. 때로는 아내와 공원 산책 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라고도 한다. 변화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양손에 든 박상훈 대표이사의 삼양데이터시스템의 미래는 계속 꽃길일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진 인터뷰였다.

정리/전규주 · 사진/이재훈



박상훈 대표 Profile
 1986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7년 삼양사 입사
 삼양사 일반상품팀장, 인력개발팀장, 삼양홀딩스 P팀장
 2013년 ~ 삼양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TOMATO SYSTEM

토마토시스템 이상돈 대표이사

Better Software!

■ 2000년 설립 이후 대학 SI시장에서 대학 정보화 소프트웨어전문기업으로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고 또 다른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토마토시스템의 이상돈 대표이사를 토마토시스템 본사에서 만났다. 그를 처음 만난 첫 인상은 ‘심지가 굳게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중함이 배어있었고 질문마다 성실하게 답을 해 신뢰감이 배가되었다. 그리고 실제 나이보다 10년쯤은 젊어 보이는

데서 나뉘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돌아나는 것은 덤 같았다.

“회사 이름에 ‘토마토’를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직원들 간의 회사명 작명 회의를 통해 토마토시스템으로 지었습니다. 고객이 쉽게 기억하고 쉽게 잊지 않는 이름을 찾다가 애플의 사과처럼 단순한 이름을 짓

자고 해서 '토마토'가 선택된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토마토는 겉과 속이 동일한 색을 가진 유일한 과일이라는 점도 주목했지요. 제가 스티브 잡스를 롤 모델로 삼을 만큼 좋아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토마토가 세계 10대 식품에 속할 만큼 훌륭한 식품이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보았어요. 여러모로 좋은 제품인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싸게 판다는 회사의 경영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상돈 대표는 LG CNS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7명과 함께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 현재도 그 중 6명이 함께 일하고 있을 만큼 내부 갈등이 도드라지지 않는 모범적인 회사를 유지하고 있다. 토마토시스템의 주력 제품은 대학의 학사관리, 행정관리, 연구관리 시스템 통합 및 솔루션으로 그 중에 '엑스 캠퍼스(eXCampus)' 솔루션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전환하고 각기 다른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다.

“저가 발주사업으로 분류되는 '대학 SI(시스템통합) 시장'을 고수하며 대학정보화 소프트웨어개발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아 '수호자'로 평가받기까지 어려움과 보람이 공존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직접 수주가 어려워 대기업 하청으로 회사를 운영하기가 대부분이어서 10개 넘는 관련 회사들이 다 도태되고 저희만 유일하게 생존을 했던 적도 있었으니까 분위기가 형편을 웅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작은 대학 중심으로 영업을 직접 수주해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안주하지 말고,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각오로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이 입소문이 나서 궤도에 올랐지만 한 프로젝트에서 1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7명이 자본금을 각출하여 세운 회사로 주주 대부분이 직원들입니다. 200명 직원 중에 50여 명이 주주니까 직원 회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서 좋게 말해줄 때와 일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동사업 제의를 받아 진

출을 시작했을 때를 꼽을 수 있겠네요.”

원래 대학 SI시장은 저가 시장으로 분류 평가되어 많은 IT서비스기업들이 발을 빼고 외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기존의 대학 SI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쟁 기업들도 수익 확보가 되지 않는 사업에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중소기업인 토마토시스템만이 그 시장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오면서 대학의 변화를 유도해 온 것이다. 그 노력의 성과는 이제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당도 높은 열매를 수확하기에 이르렀다. 토마토시스템은 최근 베트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키포프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를 통해 토마토시스템은 베트남 흥옌대학교, 하노이국립대학교, 베트남 IT기업인 MMG사와 'SaaS기반 학사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했다.

토마토시스템의 주력 제품은 대학의 학사관리, 행정관리, 연구관리 시스템 통합 및 솔루션으로 그 중에 '엑스 캠퍼스(eXCampus)' 솔루션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전환하고 각기 다른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다.

“이번 기회로 학사 패키지 소프트웨어 '엑스캠퍼스(eXCampus)'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전환하고 각기 다른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현지 대학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IT전문기업과 협력하고요. 이번 SaaS 기반 학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토마토시스템의 기술과 노하우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2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차 년도에 데이터베이스·업무 프로세스·UI·권한관리 체계 등 주요 핵심사항을 고도화 한다. 2차 년도에는 고가용성구조·배치 매니저 개발 등 안정적 SaaS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토마토시스템은 베트남 정부기관과 베트남 IT기업인 MMG



사와 공동으로 베트남 지역 대학협의회를 신설하고 베트남 국·공립 대학 시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전 일본, 에티오피아에서의 성공은 이제 베트남에서 본격화되어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일대에서 꽃을 피워 올릴 기세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먼저 아쉬운 점이 큼니다. 초기에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부, 노동부,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부처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설명을 하는 사업인 만큼 기대도 컸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시킨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을 말한다. 이에 특성화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NCS기반의 교육시스템 및 기존 시스템의 개편이 동반되기에 토마토시스템에서는 대학정보화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NCS수행을 위해서는 학사시스템 변경은 필수입니다. NCS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예로 들어 주니어, 시니어 등 역량에 따른 평가를 하고 기업은 학벌에 상관없이 채용하는 것입니다. 즉, 학벌이 아닌 능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대학의 모든 교과과정을 직무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과 과정 이수에 따라 본인이 주니어급인지 시니어 급인지 평가가 가능하고 보다 높은 등급의 역량을 이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할 과목명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업명과 성적 등만 출력되는 기존의 방식은 이제 교과과정을 직무체계로 전환하고 역량 평가를 맵핑하고 강의계획서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함은 필수가 된 것입니다. 또 산업체 입사 후 재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인재를 육성하고자 마련된 NCS 기반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의 시설과 장비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토마토시스템의 ‘대학 맞춤형 학사 패키지’는 대학의 특성과 변화에 쉽게 적용 가능한 확장형 구조로 기존 교육과정과 맵핑하여 NCS기반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는 이상돈 대표는 “기존 학사관리 시스템은 현재 기준으로 관리만 가능하지만 토마토시스템은 사전 관리로 접근, 연도별 관리는 물론 모든 과목의 히스토리를 맵핑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돈 대표의 경영철학을 대변할 수 있는 사훈은?”

“Better software.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더 편리한 삶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이나 공부를 삶의 수단으로 삼으면 어려워지고 목적으로 삼으면 보람이 더 커진다는 것이 제 신조라 하겠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그 일터는 곧 낙원이 되고 일이고 되다고 여기면 지옥이 되니 일 그 자체를 목적 혹은 꿈으로 하면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이상돈 대표는 <차세대 웹 표준 HTML5> 같은 전문 내용도 왕성하게 기고 및 발표하고 있다. 그런 그의 활동은 이번 정보인의 날에 공로상 수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도 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스티브 잡스를 롤 모델로 하여 그의 전기나 경영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요즘은 구글의 마크 저커버그나 경영 리스크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는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주위에 권하는 책은 기술 전문서가 아닌 생각의 폭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회사 중



간 간부들에게 켈리 맥고니걸의 <스트레스의 힘> 같은 책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스트레스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꼭 몸에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 10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유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유학입니다. 우리 회사의

개발 수준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보통 6~7명의 사원이 외국의 경우 보통 200명 이상의 인원이 매달려 3년 정도를 개발해야 될 사안을 그들보다 더 짧은 기간에 어렵지 않게 처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한 인재가 아주 적습니다. 외국에서는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부가가치가 높으나 국내서는 아주 낮습니다. 직업으로서의 대우도 외국과 극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습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소프트웨어는 기계를 필요로 하고 기계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세상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생물과도 같아 항상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용역으로 개발하려는 관행이 너무 심합니다. 또한 국내 제품은 그 가치를 외국 제품에 비해 덜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만 전담하는 정부 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곧 소프트웨어기 때문입니다.”

“토종기업인 토마토시스템의 글로벌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2007년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시장의 진출이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제품을 인정한 일본 회사가 스스로 발 벗고 나서 일본 내 여러 고객을 소개시켜 주어서 일본 비즈니스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대학 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을 명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하고 수출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토마토시스템은 어떤 회사가 되어있을 것이라 확신합니까?”

“우선 2018년에는 UI분야 신규 버전의 영업을 시작해서 시장에서 안착을 이룰 전망이고 해외 사업도 성과를 올려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미 2015년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 과제 참여자로 선정되어 ‘제조업 제품군의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제품 생명 주기 관리와 아키텍처 디자인 세

계표준 연구개발’을 3년째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화 대상 기술인 ‘SSPL(Software & Systems Product Line)으로 궁극의 목표는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제품에 SSPL을 시험 적용해서 개발시간을 8배 이상 단축한 효과를 거둔 바 있는데 이 과제의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10년 뒤에 토마토시스템은 1,000억 원 매출을 이루는 회사로 성장해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의 마인드로 외길을 소프트웨어 선진의 길을 개척해오고 있는 이상돈 대표는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는 독심으로 건강을 챙긴다. 골프를 칠 때도 카트는 거절하고 걷는다. 등산을 좋아하지만 바쁜 일정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을 찾으며 직원들과의 산행도 마련하려 노력한다. 약속 장소로의 이동도 시간이 날만큼 걸어서 한다. 물론 귀가도 가능하면 걸어서 한다.

“직원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자주 가지려 노력합니다. 영화도 보고 등산도 하고요. 최근에는 <보안관>, <원더우먼>, <킹스맨2> 같은 영화를 관람했어요. 술자리는 피할 수 없으니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 회사 200여 명의 직원 중 95%가 개발인력입니다. 회사에 있는 인력보다 외부에 나가 상주하는 직원들이 많아 전 직원이 함께하기가 어렵지만 모두가 보람을 갖고 Better Software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전구주 · 사진/모달리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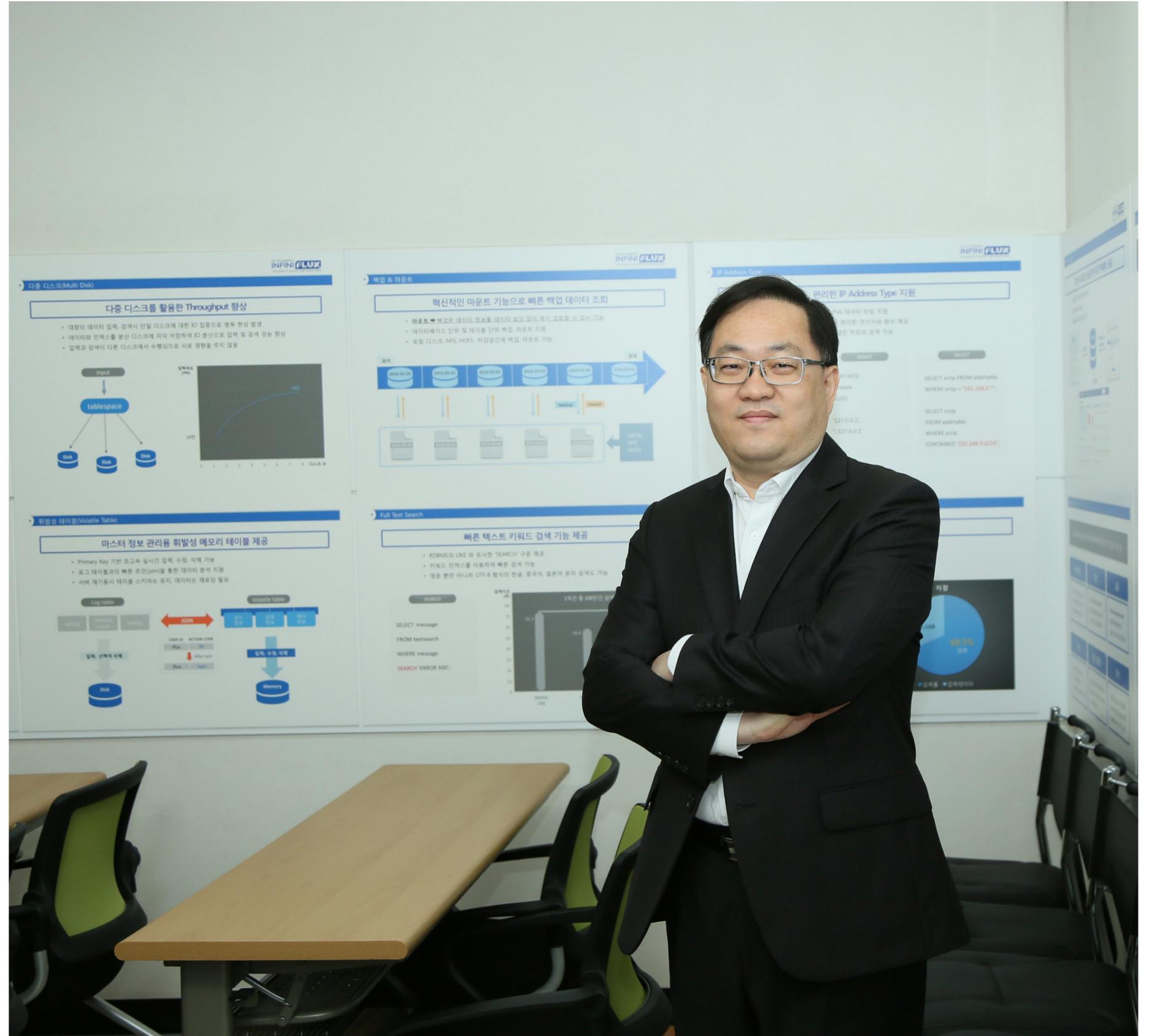


이상돈 대표이사 Profile
 1963년생
 1981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8년 ~ 2000년 LG CNS 근무
 2000년 ~ 토마토시스템 창업 및 대표이사
 2007년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정보통신부장관 우수상
 2008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대상 개발/운영 SW 최우수상
 2009년 중소기업 기술인재대전 노동부 장관상 표창
 2011년 IT Innovation대상 특별상 수상
 2017년 정보인의 날 공로상 수상

마크베이스 김성진 대표이사

스마트 팩토리 맞춤 기술의 세계적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7·8월 수상 제품인 '마크베이스 V3.0'의 김성진 마크베이스 대표이사를 만났다. 켄 걸음으로 약속 장소로 들어선 그의 모습은 친근함 그 자체였다. 낯선 이와와 만남에서 오는 긴장된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졌고 솔직한 답변과 통찰력으로 때로는 웃음과 때로는 단호함으로 같이 자리한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밝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기업의 대표라는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한 짐 내려놓고 사소한 일상 이야기까지도 두런두런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은 편안함이 느껴진다. 마크베이스에서는 조직을 수평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위를 부르는 대신에 이름 뒤에 '님'이라는 존칭을 붙여 부른다. 이런 처우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보여준 진솔함과 유쾌함 때문이기도 했다. 모난 구석이라고는 없을 것 같이 부드러운 김성진 대표이지만 강단 있는 말투와 신념을 담고 있는 대화 속에서 한 기업을 이끄는 그의 사명감과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마크베이스는 머신 데이터, 좁게는 센서 데이터 즉 로그 데이터들을 가장 빨리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엔진)를 만드는 회사다. 조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22명의 직원 대부분이 연구개발 인력이고 미국에도 현지 직원 2명이나 두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는 한국 시장이 좀 작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글로벌화가 나뉠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미국에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저희 기술 장벽이 좀 높아서 좋은 개발자 뽑기가 쉽지 않아 노력 중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만큼 마크베이스가 찾는 인재는 개발자가 갖춰야 할 커리어 패스 수준이 좀 높다고 한다. 개발 언어가 C인테다가 정교함이 요구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문제는 국내 환경에서는 그런 인재가 드물다는 건데 일단 가능성 있는 인재를 찾아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했다.

‘마크베이스 v3.0’은 사물인터넷 센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 분석하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MBS)이다.

“머신 데이터는 빅데이터입니다. 1초에 수백 만 건 수천 만 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해보면 1년에 수십 조 건 수백 테라까지 나오니까. 현재 상용되고 있는 솔루션은 오픈소스 하둡(Hadoop)이나 오라클(Oracle)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인데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애초부터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많은 솔루션 기업들이 마크베이스의 경쟁업체다.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미국의 OSI소프트를 꼽는데 얼마 전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은 기업으로 궁극적인 경쟁상대다. 하지만 김성진 대표는 마크베이스의 기술력이 매우 독특하다면서 자신감을 내보였다.

“오라클은 라이선스 비용이, 하둡은 하드웨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솔루션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이게 스타트업이 봐야할 지점이기도 해요. 그 공간을 보는 거죠. 이런 틈새 없이는 저희들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지점입니다.”

김성진 대표는 기존에 한국 인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알티베이스에 몸담고 있었다. 창업멤버로 CTO와 CEO를 역임하기도 했는데 인

메모리도 오라클처럼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라서 아무리 잘 처리해도 초당 1만 건이 안 된다. 당연히 머신형 빅데이터 처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를 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제품 마크베이스의 상용화는 2년 반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오라클은 40년 된 회사고 알티베이스는 15년 된 회사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한 5~10년을 서비스해야 사업적으로 작동하는 분야라는 설명이다. 2, 3년 만에 잘 되기는 어렵고 자금도 많이 드는 일이라서 그도 아직 제품을 알리는 데에 집중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고객이 실제 필드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갖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데이터의 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만큼 마크베이스가 찾는 인재는 개발자가 갖춰야 할 커리어 패스 수준이 좀 높다고 한다. 개발 언어가 C인테다가 정교함이 요구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환경에서는 이런 인재가 드물다는 건데 일단 가능성 있는 인재를 찾아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했다.

생량이 엄청 많아서 기존 데이터베이스로는 저장 자체가 힘들어요. 두 번째 니즈는 저장 데이터를 바로 내가 보거나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을 양립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저희들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풀어낸 제품이라는 거죠. 1초에 수백만, 수십만 건을 저장을 하면서도 쿼리를 보내 분석 가능하도록 해결했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건데(웃음), 저희 것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마크베이스의 고객사는 마크로젠, 우정사업본부, 코레일, 삼성씨큐아이, 경기도 평생교육원, 전자통신연구원 등이다. 지금도 고성능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영역에서 고객을 하나씩 하나씩 창출하고 있는데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고객은 더 많다고 한다.

머신데이터는 온도, 압력, 위치, 진동 등 공장 설



비 센서들의 데이터로 마크베이스가 공략하는 시장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다.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두드리게 된 건 올해 6월쯤부터였습니다. 어느 공장으로부터 공장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를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 문의를 받았는데 그걸 계기로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 쪽을 제대로 좀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이고 얼마나 나오고 또 어떤 고객들이 있고 등등... 그 다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해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보안 분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았던 거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가 이제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메이저가 될 것으로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 어마어마한 시장

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우리도 앞으로 먹고 살 것은 이 영역이구나’ 싶었다. 올해 6월쯤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대규모 펀딩 소식을 접하고는 ‘아 여기로 가야지 살 수 있구나(웃음)’ 확신했다고 한다. 마크베이스 기술은 현재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에 적용되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삼성의 경우는 삼성 SDS가 주축이 돼서 전 세계에서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스마트 팩토리 용으로 선정했는데 외산 데이터베이스 두 개와 나머지 하나가 마크베이스였다.

“저희가 올해 9월부터 테스트하고 있는 고객사들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싱글 노드에서 노드를 여러 개 붙여서 규모를 확장 할

수 있는 부분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허둡처럼 클라우드에서 확장을 하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지난 2년 동안 개발을 한 거죠. 그 제품을 지금 대기업에서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컨대 초기 버전이라 문제가 많겠죠(웃음). 그러나 안정화시켜서 나아가야 되겠죠.”

마크베이스는 내년 중 미국으로 본사 이전 계획이 있다. 국내는 연구개발센터로 그대로 두고 미국에서 세일즈 마케팅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적 성과를 떠나서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선 과제다. 대기업 레퍼런스가 있으면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 법인으로 현지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이 레퍼런스와 그 배경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성진 대표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가 아닌, 전 세계에서 성공하는 '최초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되는 것이다. 비록 스타트업이지만 발 빠르게 세계 시장에 포지셔닝하고 글로벌 기업과 처음부터 경쟁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Q : 벤처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라고 합니다. 사업하시면서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A : 먼저 좋은 직원 채용이 힘들어요.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회현상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부족해서 엔지니어들이 벤처기업에 접근하기가 무지 힘든 거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국내에서 재무적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윤을 내려면 용역을 해야 해요. 즉, 소프트웨어를 10원에 팔고 사람을 90원에 파는 행위인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회사가 성장하기 힘들습니다. 기술 축적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정부, 기업, 사회가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



의 가치를 적정하게 인정해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IT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 사업 환경은 어렵지만 그래도 보람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A : 같이 하는 직원이 생겼다는 게 보람입니다. '국가 취업 정책과 발전에 일조했다'는 자부심도 있고(웃음). 또 하나는 어디 외국에 나가도 기술력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할만한 미션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 :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기업 경영 원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저는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은 기술이며 그것이 사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첨단의 기술 장벽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엔지니어를 영입하고 기술에 투자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영원칙은 '자율과 책임을 잘 지키는 조직'입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죠.

Q : 벤처,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조언하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 학업, 사회 경험과 회사 경영 학습을 충분히 하고 창업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사업을 굴러가게 하려면 비즈니스 씨앗인 핵심역량 기술은 20, 나머지가 80입니다. 이 나머지에 재무, 법, 회계, 특허, 인사, 총무, 과제, 투자유치, 영업, 마케팅 등 무지하게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씨앗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쌓은 후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MBA도 좋고 창업 멤버로 같이해보는 것도 좋고. 저도 나름 창업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거든요. 완전초보도 이런 초보가 없었어요, 하하하하.

Q : 그렇다면 초보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마크베이스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또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A : 벤처라는 게 10일 중에 9일은 괴로워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하루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연속이거든요. 따라서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처음 창업할 때 기술을 잘 만들면 판매할 수 있는 잠재시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나름 고객을 만들어서 더 좋은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 거 같고요. 더 잘 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CEO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역시 열심히 배워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마크베이스 김성진 대표는 오라클사의 래리 앨리슨을 롤 모델로 삼는다. 역경을 딛고 성공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사람, '그 정도의 멘탈은 있어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 그는 운동은 재능이 없어서 잘 못한다며 겸손해 했지만 영화는 좋아해서 주말이면 영화관을 간다는 마니아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슈밤의 4차 산업혁명>을 읽고 데이터베이스 전공자로서 초미의 관심사인 '블록체인'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는 중이면서 여전한 개발자로서의 호기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파괴적 기술에 속하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서 "기술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접목을 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김성진 대표가 마크베이스를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날 그 날이 벌써 기대되는 만남이었다.

글/이애자 · 사진 모델리아니



김성진 대표이사 Profile
 1997년 경북대 유전공학과 학사
 1999년 경북대 컴퓨터공학과 석사
 2011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1999~2011년 알티베이스 기술개발 및 CTO
 2011~2013년 알티베이스 대표이사
 2013~현재 마크베이스 대표이사



ICT기업이 전망하는 2018년 경제 및 ICT시장

2018년 ICT산업 턴 어라운드 기대감 높아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매년 12월 초에 국내 ICT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ICT기업이 전망하는 2018년 경제 및 ICT시장』 제하의 설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ICT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 특수성이 반영된 2018년 경제 및 산업 경기 체감도를 알아보고 2018년 ICT시장을 전망해보는 자료로 활용된다.

■ 조사개요

- 설문조사 기간 : 2017년 11월 9일(목)~30일(목), 16일(휴일 제외)
- 응답자 : 국내 ICT기업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300명

■ 조사개요

- 2018년 국내 경제 전망 : 체감도, 주요 요인
- 2018년 ICT산업 전망 : 체감도, 주요 요인
- 2018년 ICT기업 경영 환경 전망 : 체감도(전반 및 부문별), 주요 요인
- ICT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기대하는 역할
- 2018년 ICT분야 핵심 키워드 TOP 10

조사 결과(요약)

2018년 국내 ICT산업 전망과 국내 경제 전망에서 2017년과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으로 선택한 응답이(국내 ICT산업 전망 89%, 국내 경제 전망 85%)이 다수로 내년도 회복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내 ICT산업 경기를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최우선 요인으로 'ICT-타 산업의 지능·융합화 서비스 확산'이 전체의 41%였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4차산업혁명 지원(규제 재정비·연구개발·창업/벤처·인력)'이 27%였다.

ICT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화 촉진'을 답한 응답자가 27%였으며 이어 '혁신 친화적 규제 개선' 25%, '제조-ICT-서비스 융합의 미래 신산업 육성'이 2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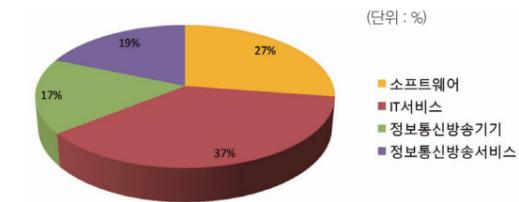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응답으로 '미래 국가전략,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플랫폼 역할'이 34%로 나타나 국가 최우선과제인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사회전방위로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ICT분야 핵심 키워드로는 전년도 순위와 동일하게 인공지능(AI)이 부동의 1위, 사물인터넷(IoT)이 2위로 조사되어 4차산업혁명의 주축이자 미래가치 기술로서의 기대를 나타냈다. 이 외에 블록체인(7위), 스마트홈/스마트시티(8위), 클라우드(10위)가 새롭게 10위 이내의 순위에 들어갔으며 빅데이터, 스마트카/자율주행자동차, 5세대(5G) 이동통신, 가상현실/증강현실, 핀테크는 전년에 이어 계속 관심을 갖는 기술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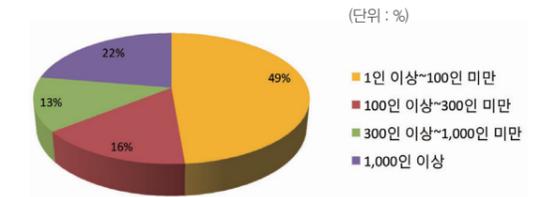
■ 업종별로 구분하면 'IT서비스'의 응답자가 37%(111명)로 가장 많았으며 '소프트웨어' 27%(82명), '정보통신방송기기' 17%(51명), '정보통신방송서비스'가 19%(56명) 순임

[그림 1] 응답자 업종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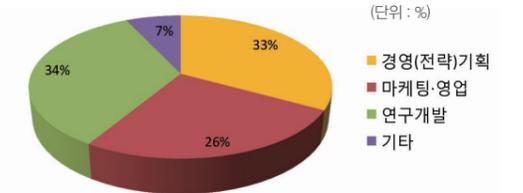
■ 종업원 수로 구분하면 '1인 이상~99인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가 49%(146명)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이상~299인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16%(47명), '300인 이상~1,000인 미만'이 13%(40명), '1,000인' 이상이 22%(67명) 임

[그림 2] 회사 종업원 규모별 구분



■ 직군별로 구분하면 '연구개발'에 속하는 응답자가 34%(103명)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전략)기획'이 33%(99명), '마케팅·영업' 26%(77명), '기타' 7%(21명)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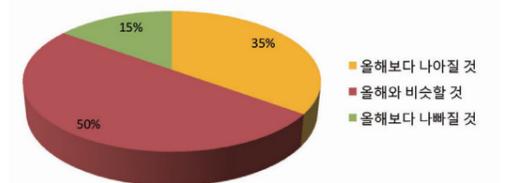
[그림 3] 직군 구분



2018년 국내 경제 전망 - 체감도

■ 국내 ICT기업 임직원들은 2018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전체의 50%(150명)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했고 35%(105명)는 '나아질 것'으로 응답했으며 15%(45명)는 '나빠질 것'으로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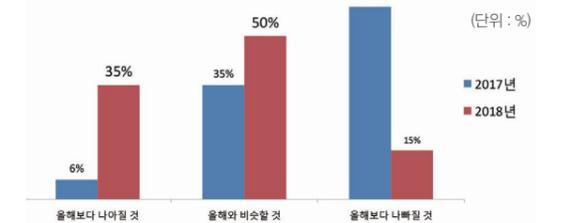
[그림 4] 2018년 국내 경제 전망



■ 2017년도 조사 결과(나아질 것 6%, 비슷할 것 35%, 나빠질 것 59%)와 비교할 때 '올해보다 나아질 것'(6%→35%), '비슷할 것'(35%→50%)이라는 비율이 높아졌고 '나빠질 것'(59%→15%)이라는 비율이 낮아짐

※ 2018년 조사 대상자와 2017년 조사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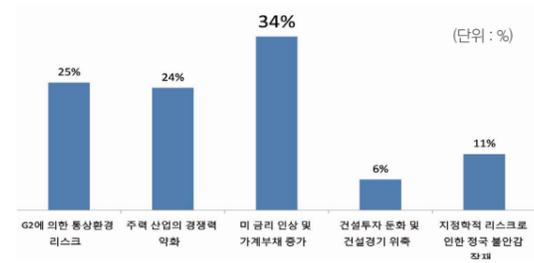
[그림 5] 2018년 국내 경제 전망(전년 대비)



2018년 국내 경제 전망 - 주요 요인

- 2018년도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전체의 34%(102명)가 '미 금리 인상 및 가계부채 증가'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뒤를 이어 25%(76명)가 'G2에 의한 통상환경 리스크'로 답해 의존도 높은 한국경제 체질과 가계부채라는 노란을 재확인함
- 이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24%(71명)로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자동차·전자·철강 분야의 산업 활력도 저하, 중국 부상으로 인한 성장세 및 경쟁력 약화를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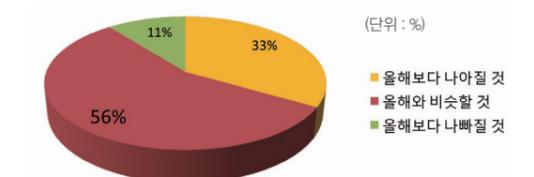
[그림 6] 2018년 국내 경제 전망 주요 요인



2018년 국내 ICT산업 전망 -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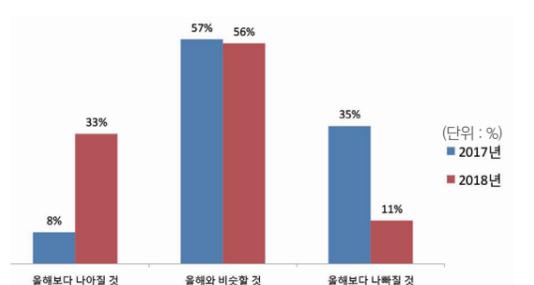
- 국내 ICT기업 임직원들은 2018년도 ICT산업 전망에 대해 전체의 56%(168명)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 예상했고 33%(104명)는 '나아질 것'으로 응답, 11%(32명)는 '나빠질 것'으로 답함

[그림 7] 2018년 국내 ICT산업 전망



전년도 조사 결과(나아질 것 8%, 비슷할 것 57%, 나빠질 것 35%) 대비 '올해보다 나아질(8%→33%) 것'의 비율은 매우 높아진 반면 '나빠질(35%→11%) 것'이라는 비율은 낮아졌고 '비슷할(57%→56%) 것'이라는 비율은 큰 차이 없음* 2018년 조사 대상자와 2017년 조사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 요망

[그림 8] 2018년 국내 ICT산업 전망(전년 대비)



- 2018년도 국내 ICT산업 전망과 국내 경제 전망에서 '2017년과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을 선택한 응답이(국내 ICT산업 전망 89%, 국내 경제 전망 85%)이 대다수로 2017년 대비 회복세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공통적으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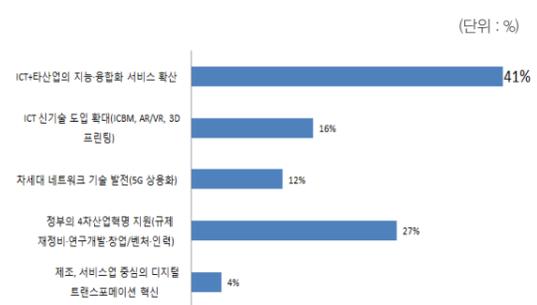
- 국내 ICT산업과 국내 경제 전망에서 '2017년보다 나아질 것'을 선택한 응답이(국내 ICT산업 전망 33%, 국내 경제 전망 35%) 전체의 1/3 수준으로, 전년도에 '나아질 것'으로 답한 비율 대비(국내 ICT산업 전망 8%, 국내 경제 전망 6%) 뚜렷한 회복선상에 있는 것으로 예상됨

- 그 반대로 전년도에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대비(국내 ICT산업 전망 35%, 국내 경제 전망 59%) 올해 경기 부진으로 응답한 비율은(국내 ICT산업 전망 11%, 국내 경제 전망 15%) 현격히 낮아짐

2018년 국내 ICT산업 전망 - 주요 요인

- 2018년도 국내 ICT산업 경기를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답한 응답자(100명) 중 41%(41명)가 'ICT+타 산업의 지능·융합화 서비스 확산'을 최우선으로 꼽아 ICT 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혁신·고도화,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시장 검증 및 투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2018년 국내 ICT산업 경기 호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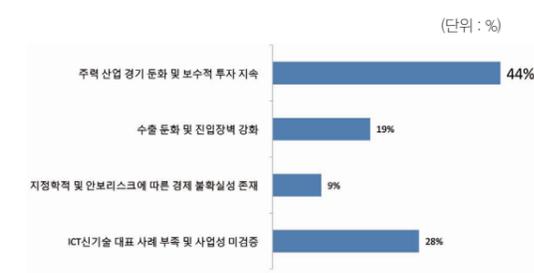
- 다음으로 '정부의 4차산업혁명 지원(규제재정비·연구개발·창업/벤처·인력)'이 27%(27명)로 나타나 범국가적 4차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도 국내 ICT산업 경기를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답한 응답자(32명)의 44%(14명)가 경기 부진 요인으로 '주력 산업 경기 둔화 및 보수적 투자 지속'을 최우선으로 꼽아 중국과의 주력산업 품질·경쟁력의 격차 축소로 인한 산업 활력도 저하와 국내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반영함

- 다음으로 'ICT신기술 대표 사례 부족 및 사업성 미검증'이 28%, '수출 둔화 및 진입장벽 강화'가 19% '지정학적 및 안보리스크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존재'가 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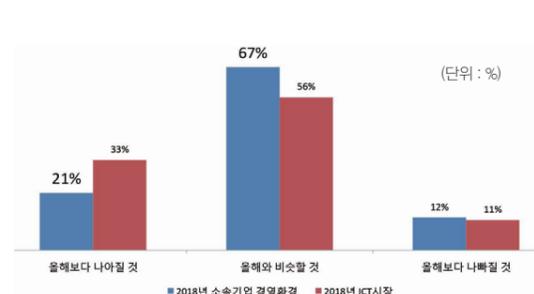
[그림 10] 2018년 국내 ICT산업 경기 부진 요인



2018년 국내 ICT기업 경영 환경 전망 -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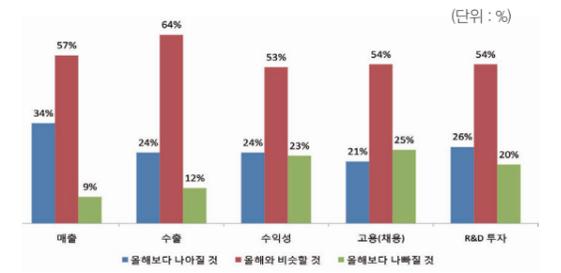
- 국내 ICT기업 임직원들은 2018년도 소속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 응답자의 67%(201명)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21%(62명)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 12%(37명)는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응답하여 내년도 ICT산업 전망 대비 소속기업의 경영 환경을 보수적으로 전망함

[그림 11] 2018년 소속 기업 경영 환경(전반) 전망



- 전반적인 경영 환경에 대한 전망 대비 영역별(매출, 수출, 수익성, 고용(채용), R&D 투자) 전망은 '올해보다 비슷할 것'으로 답한 비율이 3~14% 감소한 반면 '나아질 것', '나빠질 것'으로의 비율로 높아져 보다 명확한 분포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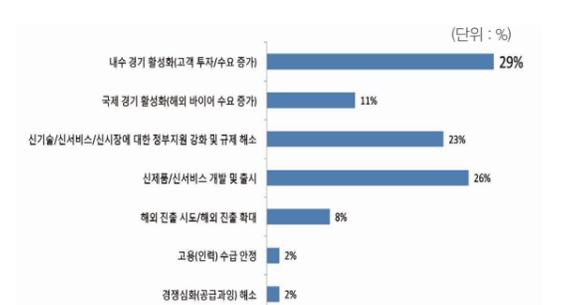
[그림 12] 2018년 소속 기업 경영 환경(영역별) 전망



2018년 국내 ICT기업 경영 환경 전망 - 주요 요인

- 2018년도 소속 기업 경영 환경을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답한 응답자(62명)의 29%(18명)가 호전 요인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고객 투자/수요 증가)'를 최우선으로 꼽아 투자환경 개선으로 ICT 수요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소속 기업 경영 환경 호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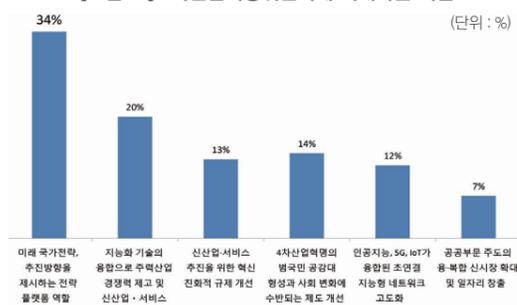


- 2018년도 소속 기업 경영 환경을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답한 응답자(37명)의 41%(15명)가 부진 요인으로 동일하게 '내수 경기 침체(고객 투자/수요 하락)'를 최우선으로 꼽아 내수 경기 회복이 응답자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결됨을 재확인함

[그림 14] 소속 기업 경영 환경 부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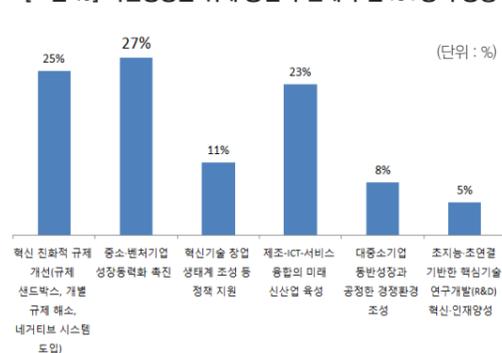
[그림 16]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기대하는 역할



ICT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 국내 ICT기업 임직원들은 ICT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화 촉진'을 담은 응답자가 27%(82명)로 가장 많았음
- 바로 이어 '혁신 친화적 규제 개선(규제 샌드박스, 개별 규제 해소,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25%(74명), '제조-ICT-서비스 융합의 미래 신산업 육성' 23%(70명)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이후로는 '혁신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정책 지원' 11%(33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8%(25명), '초지능·초연결 기반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혁신·인재양성' 5%(16명)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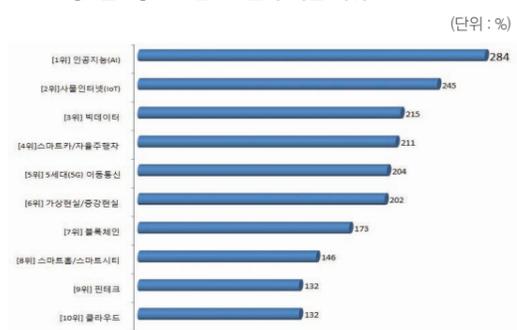
[그림 15] 혁신성장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ICT정책 방향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기대하는 역할

- 국내 ICT기업 임직원들은 지난 10월 11일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기대하는 역할로 '미래 국가전략,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플랫폼 역할'을 담은 응답자가 34%(101명)로 가장 많았음
- 국가 최우선과제인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사회 전방위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지능화 기술의 융합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 창출' 20%(59명), '4차산업혁명의 범국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 변화에 수반되는 제도 개선' 14%(43명), '신산업·서비스 추진을 위한 혁신 친화적 규제 개선' 13%(38명) 등의 순임

[그림 17] 2018년 ICT분야 핵심 키워드 TO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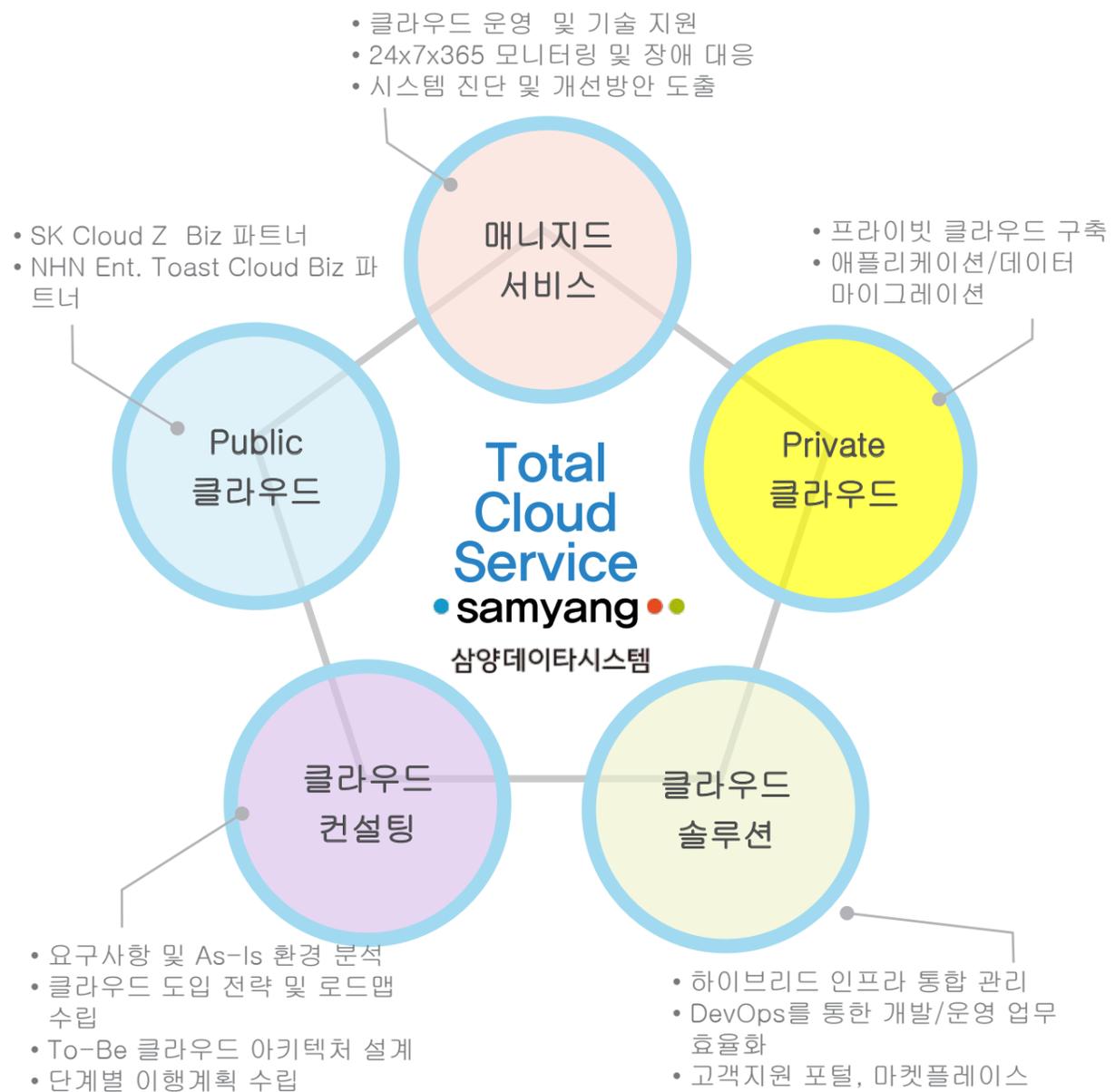


- 2018년 ICT분야의 핵심 키워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인공지능(AI)은 기존 전통산업의 혁신, 증강현실/가상현실, 로봇/로보틱스 등 미래유망기술을 앞당기는 기반기술로 자리잡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됨
- ICT기업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발전중인 인공지능의 핵심 역할을 확보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요 기업들의 가시적인 움직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림 18] 2018년(2017년 대비) ICT분야 핵심 키워드 TOP 10



“삼양과 함께하는 클라우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백년을 향한 시진핑 리더십

일을 할 때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사람을 대할 때는 후도관용(厚道寬容)

- 현대 중국을 만든 모택동 (1893~1976) • 불멸의 이노베이터(혁신자) 등소평
- 시진핑 리더십의 탄생

* 중국에는 두 개의 백년이 있다. 첫 번째는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일류 선진국가가 되어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 시진핑은 2017년 10월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에 재 선출되었다. 바야흐로 시진핑 집권 2기 5년이 열린 것이다. 이를 두고 서양 언론들은 첫머리 기사로 그 소식을 알렸다.

“시진핑 주석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세계 리더십 공백을 시진핑이 파고들 것이다” <CNN>.

또 다른 언론에서는 시진핑 2기는 전제군주형 지배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시진핑 1기에서 중국은 강력하고, 진취적이며, 외골수적인 면이 있었다. 이런 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이런 평가는 일면 맞는 말이다.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인도의 민주주의 방식을 놓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사는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중국은 알다시피 공산당 1당 지배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당이 국가 위에 위치한다. 헌법조차 공산당 당규보다 하위법이다. 한편 다른 시각으로 현재의 중국은 무늬만 사회주의지 실상은 시장경제 지배를 받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중국은 엄연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굳게 지키고 있다. 위에서 말한 두 번째 백년인 2049년, 중국이 일류 선진국가(1등 국가)가 되는 '대동사회(大同社會)'는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해가 된다.

중국 공산주의 지도자의 리더십

시진핑의 리더십은 어느 날 하늘에서 푹 떨어진 리더십이 아니다. 방법은 다를지언정 이전 중국공산주의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연관되어 있다. 즉 리더십 계승이란 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진핑 이전 중국공산주의 지도자 중에 두 명의 세계적 리더십이 있었다. '모택동'과 '등소평'이 그들이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그 몸을 굻추리게 하고, 그 신세를 궁핍하게 하고, 그 하는 일을 힘들고 어지럽게 하니, 이는 마음을 움직여 참을성을 기르게 하여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맹자의 '고자장(告子章)')

중국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해방되고서는 모택동을 잊지 않고, 잘 살게 되어서는 등소평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맹자의 말씀과 같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중국을 있게 해준 모택동과 등소평을 영원한 국가지도자로서 함께 존경하고 우러러본다.

1. 현대 중국을 만든 모택동 (1893~1976)

모택동은 혁명적 리더십과 창업자형 지도자였다. 현대 중국

이 서양과 일본의 침탈로 파괴되어 갈 때 인민이 바라는 위대한 중국을 만들었다. 위대한 중국이란 과거 중화중심의 세계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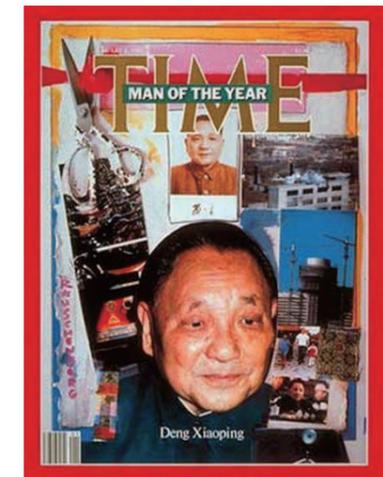
먼저 모택동의 장점을 살펴보자. 일생을 통해 겸손함과 청렴함을 유지하였다. 권력을 자식에게 세습시키지 않았으며 축재를 저지르지 않았다. 매일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현실에 맞서 살아남은 생존능력과 전략이 뚜렷했다. 엄청난 독서량과 박식함, 목표달성을 위한 집요함이 있었다. 모택동이 장개석과 국민당군에 쫓겨 다녀야 했던 기간은 1927년부터 1949년까지 무려 22년. 특히 살아남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km를 행군하여 18개의 산맥과 22개의 강을 건너 1만 2500km에 이르는 대장정(1934-36)을 감행했다. 처음 대장정 때 10만 명중 8천명만 살아서 섬서성 연안에 도착했다. 그 결과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공산당에 참여하게 하는 대역전극의 신화를 창조했다.

단점 또한 많았다. 자기중심적인 절대권력 추구, 노욕으로 가득 찼던 권력욕, 인민복을 입은 결과 달랐던 방향한 사생활, 공자와 유학을 비롯한 중국의 전통과 문화부정, 동지에 대한 의심과 숙청, 정책의 잇따른 실패에도 계속된 아집과 관철, 중국만의 세상을 지향하는 맹목적 애국주의와 패권적 사고와 형태 등이 그것이다. 특히 문화대혁명(1966-76)은 모택동이 영구집권과 개인의 이상화를 벌인 치명적 잘못이요, 현대 중국의 상처로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4천만 명이 죽었고, 무려 5천억 위안에 달하는 손실을 가져왔다. 81년 6월 중국공산당 전원회의에서 문혁은 건국 이래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끼친 준 모택동의 극적적 오류이며 그의 책임이라고 규정하였다.

그가 죽기 전 말년에 가장 탁월했던 선택이 하나 있다. 그의 최대 정적인 등소평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다.

2. 불멸의 이노베이터(혁신자) 등소평

150cm의 거인,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접목



시킨 미술사. 3번의 실각과 복권을 통해 일명 부도옹(不倒翁, 오투기)이라 불렸던 남자. 등소평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서술이다. 등소평은 '진리는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실천은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증명된다'고 말했던 실용주의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평소 중국 산시성 속담을 잘 인용한다. 이른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으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1978년 중국은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 특유의 독자적인 체제가 시작된다. '실리를 위해 정쟁과 사상 논쟁을 멈추자'고 했던 등소평이 의지가 실천된 것이다. 중국에서 개혁, 개방이란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크게 파괴해야 한다는 등소평의 평소 지론인 '대파대립론'이 토대가 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 통치체제 개혁을 위한 창조적 파괴였다.

등소평의 6개 리더십

- ① 코칭리더십 - 미래의 리더를 키워라.
- ②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 - 칭찬하고 독려하는 리더. 과오보다는 앞으로의 성과에 주목.
- ③ 균형의 리더십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리더. 좌파와 우파를 화합시켜 시너지를 발휘한다.
- ④ 집념의 리더십 - 굳건한 신념과 거침없는 실행력.
- ⑤ 프로페셔널 리더십 - 결정적 순간에 빛나는 프로정신
- ⑥ 창조적 실용주의 리더십 - 진리는 실천을 통해 검증된다.

등소평은 과감성과 결단성 외에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특유의 설득력을 지닌 리더였다. 모택동이 선동의 귀재라면, 등소평은 설득의 명수였다. 모택동은 대중을 감정적으로 선동하고 여론몰이를 한 반면, 등소평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선전하여 대중의 이성애 호소했다. 등소평은 죽기 전 "앞으로 100년 이상 개혁, 개방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라"는 유언을 통해 중국을 '부강한 사회주의 강대대국'으로 만드는 것을 주문했다.

시진핑 리더십의 탄생

<파이낸셜 타임스> 워싱턴 지국장 리처드 맥그리거는 "중국 지도자들은 최소 인구 천만의 도시를 통치한 경험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활동한 경우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탐지도자에 오르는 때는 이미 상당히 훈련받은 사람으로 중국지도자 중에는 바보가 없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탄생하는 과정은 지난하다. 700만 당 간부 가운데 중앙 간부가 될 확률은 1만4000분의 1이며 기간은 최소 23년이 걸린다. 2012년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 역시 40여 년간 1억5000만 명의 인구를 거느린 끝에 중앙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시진핑의 시작도 맹자의 '고자장(告子章)'에 나오는 말처럼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

시진핑은 1953년 6월 15일 중국 산시성 푸딩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덩샤오핑보다 더 확고한 개혁개방주의자이자 전쟁 영웅인 시중신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이른바 태자당(혁명 원로 출신의 자제) 출신이다. 하지만 아버지 시중신이 문화대혁명 중 모택동에 의해 반당분자로 베이징에서 추방되면서 시련이 시작된다. 시진핑은 문혁 기간 실시한 농촌 하방 정책에 따라 16살의 나이로 가족과 떨어져 시골 지역인 산시성으로 가야 했다. 하방 당시 그는 1969년부터 10번의 시도 끝에 1973년 가까스로 공산당에 입당했고, 베이징의 명문 칭화대학 화학공학과에 진학한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하고 등소평이 집권하자, 아버지 시중신은 광둥성 제2서기에 임명돼 개혁개방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때부터 시진핑의 정치관료 생활이 본격화된다. 시진핑은 1983년 행정부의 가장 낮은 단계인 촌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아버지 시중신의 '폭넓은 경험을 쌓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위로 올라가라'는 조언을 따랐을 것이다. 이후 개혁개방의 최전선이었던 푸젠성의 샤먼, 같은 성의 빈곤 지역인 닝더 등 다양한 지역으로 보내져 능력을 검증받았다. 2007년 후진타오가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했을 때, 시진핑은 후임자 물망에 오른 세 사람 중 한 명이 된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시진핑은 '펑리위안의 남편'으로 더 유명했다.

펑리위안은 매년 시청률 100%인 연말 가요 프로그램의 MC를 보는 중국 최고의 인기 인민가수다. 2007년 제17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6개월 전 후진타오의 후계자로는 라오닝성 당위원회 서기 리커창이었다. 시진핑은 그저 '대항마'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그런데 실제 당대회에서 예상을 깨고 9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서열 6위로 부상했다. 7위가 리커창, 5위까지가 당 원로들이어서 6위는 곧 후진타오에 이어 중국의 실제적인 실세 서열 2위가 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정치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시진핑은 부패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시진핑 또한 평소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은 정계에 입문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자주 피력하였다. 같은 태자당 출신인 보시라이 같은 실력자들이 가족과 함께 부패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결국 낙마할 때, 시진핑은 가족들이 자신의 권역에서 이익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였다. 중국에서 공산당 주석 자리는 '정신적 지주' 자리이기도 하다. 당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어야 한다. 부패 문제가 없던 시진핑이 자신의 이익보다 13억 인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에 주석의 낙점을 받은 이유이다.

두 개의 백년, 시진핑 리더십

2002년 죽기 전 시중신은 아들 시진핑에게 이갈이 말했다. "일을 할 때는 실사구시, 사람을 대할 때는 후도관용을 지켜라.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사구시란 실용적인 자세로 일을 하라는 뜻. 후도관용이란



후덕한 자세로 관용을 베푸라는 뜻이다. 후도관용의 자세는 시진핑이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말이고, 그의 인생철학이다. 시진핑은 '최고 지도자는 인민과 군중과 직접 통해야 한다'며 최고위층에게도 언제나 인민과 군중을 마음과 머릿속에 담으라고 강조한다.

2012년 11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진핑 1기 정부는 '중국의 꿈'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한다. 중국의 꿈이란 무엇일까. 먼저 등소평 시대에는 우선 문화대혁명 때의 악몽을 극복하고 먹고사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목표였다. 그래서 채택한 방법론이 개혁개방이다. 장쩌민 시대에는 '아시아 강대국', 후진타오 시대에는 '세계 강대국'이 꿈이었다. 중국의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이 말한 '중국의 꿈'은 총서기 취임(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 후 보름 만에 '부흥의 길' 제1차 전시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타난다.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국가부강·민족부흥·인민행복에 주안을 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가장 위대한 중국의 꿈"임을 천명했다.

시진핑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한 '복합형 지도자'이다. 첫째, '독실한 사회주의자'이다. 아버지 시중신이 보여준 혁명적이고 충직한 삶, 자녀들에 대한 엄격한 혁명교육의 영향이 크다. 시진핑은 공산당이 조국을 구원했고, 공산당만이 중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40년 동안의 놀라운 경제 성장도 공산당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반대로 서양의 정치사상과 정치제도에 강한 거부감이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자다. 역시 개혁 개방 선두에 섰던 아버지 시중신의 영향이 크다. 말단에서 시작해 20여 년을 관료로서 근무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실천을 통해 더욱 믿음이 굳어졌다. 특히 푸젠성 성장과 저장성 당서기로 근무할 때 외자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산업구조 조정, 기업 혁신을 위한 개혁정치를 추진하며 1년에 38%라는 최대 성장 실적을 만들어냈다.

셋째, 외교·안보 면에서는 '실용적인 민족주의자'다. 먼저 시

진핑은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다. 그는 주권과 영토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섬)에 대해 추호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국익을 위해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실리 외교를 추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사드 문제로 인해 경색된 관계를 부드럽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최고의 권력자 시진핑

결론적으로 그의 리더십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시진핑 이전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오랜 기간 준비되어 온 인내의 총화로 다듬어진 것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데 여기에는 9명의 위원이 있다. 서열 1위인 당 서기의 힘이 제일 세지만 다른 8명의 상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실상 집단지도체제요 시스템 정치다.

시진핑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한 마디 하면 옛날 황제의 명령처럼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내부에서 집단토론이 거쳐 나오는데 이 토론에는 학자, 관련 부처 공무원, 온갖 연구소 연구원 등이 다 동원된다. 내부 토론 때는 서방 학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토론한다. 제한이 거의 없다. 이런 토론결과가 수렴되어 최고 지도부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나온다. 단, 내부 토론 결과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단속한다. 이런 '집단지도체제'라는 시스템 정치와 부패 없는 '도덕적 책임감'. 두 개의 백년을 내다보면서 '중국의 꿈'을 실천하려는 시진핑 리더십을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한편 18기 마지막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이름이 명기된 당의 헌법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모택동, 등소평과 같은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글/강병현(극작가·연출가)

AWS(Amazon Web Services) 코리아 **염동훈** 대표이사

IT Democratize! Long Term Orientation!

■ 역삼동 GS타워 12층에 자리한 아마존 웹서비스 (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코리아에 들어가자 할로윈 데이에 어울리는 각종 캐릭터 주인공들이 먼저 반겼다. 해골과 마녀와 악마와 그리고 의과대학 해부실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뼈다귀 강시들이 어두운 색을 입힌 풍선들과 조화를 이루고 의자에, 천장에 그리고 벽마다 매달려 있었다. “아하, 여기가 ‘아마존’이었지.” 이것만으로도 회사 분위기를 한눈에 유추하며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염동훈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시작했다. “염 대표님, 인터뷰 약속을 왜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인 오후 1시로 잡았습니까?” “저는 아직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하느라 점심시간을 지나쳤고, 인터뷰 약속 때문에 식사도 걸렸지만 밝은 얼굴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그는 미리 보내진 질문 그 이상을 말했다. 이것저것 고려해달라는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더 깊은 속내도 보여주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자식들을 위해 ‘1세대 기러기’ 생활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헌신한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세계 최고 명문대학을 나와 최상의 코스를 밟으며 이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를 이루고 있는 정신의 근저에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고유한 가치가 켜켜이 쌓여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존이 추구하는 사업정신이 더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도 했고,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도 맡아 성공도 이루었고, 현재도 의욕적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합니까?”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

는 방법’을 묻거나 상의를 해오면 저는 세 글자 ‘정(情)·한(恨)·흥(興)’을 이해하는데 노력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정(情)에 주목하는데 이를 이해하는 반응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더 배워야 하지만 말입니다.” 염동훈 대표가 주목하는 ‘정’과 ‘한’ 그리고 ‘흥’ 세 글자는 한국인을 가장 잘 대표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글자에 함의된 의미의 크기는 기늠하기가 어려웠지만 아무튼 그는 정곡을 찔러 맥을 잡고 맥박의 뫼수를 체크하고 또 체크하면서 자신의 이해도 또한 성장시켜 성공의 밑돌로 삼은 셈이다. 염동훈 대표와의 1시간 20분 간 인터뷰 한 내용과 사전에 제시한 내용에 보내진 답을 모아 정리했다.

Q : AWS(Amazon Web Services)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한 설명과 약사 부탁드립니다.

A :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로서 2017년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45억 달러로, 연간 18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AWS는 가장 빠르게 100억 달러 연간 실행률(Run-rate)에 도달한 IT기업입니다. AWS는 지난 2006년 클라우드 컴퓨팅을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 1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채택된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가트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WS는 14개 경쟁사의 컴퓨팅 용량을 다 합친 것보다 몇 배 더 큰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WS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리더십을 기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과 혁신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Q : 아마존 웹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 기업 가치는 무엇이고, 염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면?

A : AWS의 모든 직원들은 14개의 리더십 원칙 (Leadership Principles)을 지킵니다. 이 리더십 원칙이 회사의 중심이 되어서 채용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평가 받을 때, 회사의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반으로 작용하고 그 원칙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많지요. AWS는 어느 회사보다도 원칙 기반의 경영을 중요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Builder, 즉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는 발명 (Invention)을 잘하고 개척자, 창업자, 혁명가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일을 잘 하게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바로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이라고 봅니다.

Q : 지금까지는 회사 원칙적인 얘기였습니다. 염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을 없으면?

A : 저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WS 코리아는 글로벌 기업 내의 하나의 브랜치, 즉 지사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지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컬 사무실의 문화를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가 잘 합쳐져야 하는데, 회사 전체의 Company Culture와 한국에서 추구하는 Country Culture,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그 기업이 그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Country Cultur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존중입니다. 즉, 서로 존칭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간의 위계질서나 체계 같은 것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내기업들도 몇 년 전부터 이런 트렌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문화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선후배 관계, 나이 같은 것이 중요하다 보니 첫 만남에서 몇 년생인지 몇 학번인지 등을 따지니

다. 그걸 통해서 서열이 생기는데 그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족보와 무관하게 서로 다 존댓말을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가 우리 회사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한국에서 창업 등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인가요?

우리 회사는 항상 'Long Term Orientation, 즉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자'라고 합니다. 임기 3년 동안 뭘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 :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다가 한국 사회에서도 일해 보았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국내의 대기업 임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했고, 구글 같은 회사에서도 새로운 걸 보고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씩 내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Q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점은 어떠하며 관련 이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A : 창업자점 CEO인 제프 베조스가 최근에 주주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면, 항상 'Day 1'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시작점에 있어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적 발표된 걸 보면 AWS는 200조 규모의 회사인데 그는 "방금 창업한 회사처럼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창업자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4가지 요소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기업들은 외부 트렌드를 잘 수용해야 한다.' 즉,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잘 관찰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시장의 메가트렌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잘 수용해야 합니다. 항상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마인드 셋이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변화를 위한 '마인드 셋'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면서 나는 여기까지 하고 나가면 되지 무엇 하러 힘들게 변화를 하나" 하는 마인드 셋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Long Term Orientation, 즉 장

기적인 관점을 가지자'라고 합니다. 임기 3년 동안 뭘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인드 셋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한국 기업에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가 조직과 문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업들이 잘 이해하고 준비했다면 좋겠습니다.

Q : 4차 산업혁명이 큰 화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있어서 클라우드 또는 AWS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요?

A : 요즘 클라우드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고객들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요. 특히 AWS는 4차 산업혁명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데, 즉 지역적이든 세계적이든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의 핵심 중에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고객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등은 기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AWS 고객의 대부분은 고객과 더 가까워지고 고객의 요구를 더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여정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Q :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환경 변화의 체감 정도는 어떤가요?

A :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기업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자연스럽게 클라우드에 배치하고 있어요. 또한 기존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한 빨리 클라우드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처럼 클라우드는 이제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더 이상 '만약'에 국한되

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얼마나 빨리 옮길 수 있는가?’ ‘무엇을 먼저 옮길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기업 및 공공 부문 채택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Q :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나요?

A : 보안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AWS 클라우드를 들여다보면 보안 방화벽이 전통적인 데이터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리적인 데이터센터 보안, 네트워크의 분리, 서버 하드웨어의 방화벽, 스토리지의 방화벽이 포함됩니다. AWS는 고객과 책임 공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AWS는 호스트 운영시스템과 가상화 레이어부터 서비스가 운영되는 시설의 물리적 보안까지 해당하는 요소들을 관리 및 제어하고, AWS 고객들은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책임집니다. 우리는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 문서, 암호화 툴, 그리고 고객이 애플리케이션 차원의 보안조치를 실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AWS 파트너들은 네트워크 보안, 배열 관리, 접근 통제, 데이터 암호화 등 고객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수백 가지의 툴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Q : 한국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위한 제언은?

A : 우리가 중점을 두는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하여 개발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의 민주화(Democratizing Technology)’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여러 세대 동안 존재하였지만 필요한 기술 지원이 부족해 구현하기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으로 인공지능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성능이 현재 AWS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중요한 기술을 대중에게 소개하여 모든 사람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말로 정교한 기술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 가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공지능 민주화를 통해 AWS의 도구는 수많은 개발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고객은 사용할 때에만 비용을 지불해 개발자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 및 테스트할 수 있으며 효과가 있는 경우 그러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

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AWS는 실패한 실험의 비용을 0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실패한 실험의 비용을 0에 더 가깝게 만들수록, 더 많은 경험이 가능해지고 보다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AWS 플랫폼의 핵심 가치 제안 중 하나인 것입니다.

IT를 Democratize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는 클라우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기업이든, 1인 개발자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IT를 Democratize한다는 게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혁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1인 기업도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Q : 10년 뒤를 전망한다면?

A : 사람들이 제프 베조스에게 “10년 후에는 뭐가 바뀔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프가 항상 “뭐가 바뀔 것이냐 보다 뭐가 안 바뀔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반론하곤 합니다. 안 바뀌는 중요한 세 가지는 ‘Convenience, Choice, Price’입니다. 고객들은 계속 더 편리한 것을 찾을 것이고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객들은 항상 저렴한 것을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난 사업을 할 때 이것들을 위해 뭘 투자하고 혁신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사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 더 잘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효율성으로 이익이 남으면 거기로부터 이익을 챙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이익을 고객들에게 가격 인하를 통해 돌려주고 있습니다. AWS는 지난 10년 동안 62번 인 하했습니다. AWS는 고객들에게 가격을 낮춰주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객 집착(Customer Obsession)’이라고 하는데 10년 후가 어떨지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존과 AWS의 고객 집착 철학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늘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프, 우리의 ‘둘째 날(Day 2)’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아마존의 전사미팅에서 최근 제가 받았던 질문입니다. 20년 전 첫 번째 공개서한을 통해 ‘아마존은 이제 그 첫 날(Day 1)’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존 본사엔 ‘Day 1’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을 오가며 전 그 ‘첫 날’이라는 이름을 되새기곤 하죠. 그런데 둘째 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날(Day 2)은 균형적이고 정점이지만, 고통스럽고 뼈아픈 하락세로 이어지며 결국 죽음에 이른다. 우리가 항상 ‘첫 날’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이죠. 물론, 정점에서의 이런 하락은 아주 천천히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궤도에 오른 회사는 ‘둘째 날’을 수십 년간 보내며 재무적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17년 4월 12일에 발송한 ‘제프 베조스 주주서한 2016’중에서

정리/전주주 · 사진/모델리야니 · 감수 한유정(AWS코리아 이사)



염동훈 대표 Profile

- 1996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전자공학 및 컴퓨터공학과 졸업
- 1996~1999년 A.T. 커니 경영컨설턴트
- 1999~2000년 BNP파리바 어소시에이트
- 2000~2007년 엑스퍼티네스코리아 CEO
- 2007~2011년 구글코리아 사업개발 총괄
- 2011~2013년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 2014년~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태명 교수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

■ 그가 자리에 앉자 호랑이 같은 기상으로 상대방을 압도했다. 그러나 이내 온화한 인상으로 변하여 주어진 질문마다 알기 쉽게 풀어서 친절하게 이야기 했다. ‘작은 짐승 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사냥하는 호랑이’를 닮은 그 모습은 마치 정년을 앞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장난꾸러기 소년을 앞에 두고 차근차근 문제풀이를 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시선에서의 해석과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 해법은 ‘점수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인성에 바탕을 둔 사람교육’이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난 뒤 막힌 체증이 풀리는 듯 시원함과 안도가 다가왔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태명 교수다.

11월의 끝자락이라지만 유럽의 어느 대학 캠퍼스를 연상시키는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교정에는 이미 겨울이 짙었다. 1시간 30분 동안의 인터뷰를 마치고 치러진 사진촬영은 ‘담’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 교수는 성대의 자랑인 ‘디지털관’까지 이동하여 조금 더 의미 있는 장면을 담아주기를 기꺼이 기대하였고, 평소 마음에 들어 자주 찾는 장소에서의 이동을 망설이지 않았다.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더 일찍 공부를 마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달리지 못한 것이 후회될 정도니까 역시 ‘교수’일 겁니다. 벤처나 창업, 돈을 많이 주는 직업 그런 것보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일 아니까요.”

“어머니는 교사셨는데, ‘말썽’ 부리는 아들을 오래 기다려주고 믿어주신 덕분에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는 그는 질의 내용마다에 답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친절하게 정리해 놓고 또 다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좋은 교수법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잡은 직장은 사표를 던지기가 어려울 만큼 조건이 훌륭한 곳이었다. 유학을 마치고는 아예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갈을 받고 귀국하여 곁에 머물다가 성균관대학교에 자리가 생긴 것을 기회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고국에서 그가 좋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정’이 풍부한 나라인 것만 갖고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요즈음 교회에 가서 드리는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일 정도로 다방면의 여러 가지 일을 실행하는 정태명 교수로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재양성, 보안 그리고 우리의 미래 소프트웨어 교육까지를 들었다.

Q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선정된 이후 확대된 인재양성 전략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A : 성균관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이전인 2005년부터 소프트웨어사관학교를 준비해 왔어요. 소프트웨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국제 인턴십, 중국 대학과의 워크숍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글로벌 소프트웨어인재양성에 힘써왔어요. 이런 노력에 힘입어 본교 학생의 구글 입사 인턴 채용 등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준비들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추진 방향과 통했고, 학부생 전체의 소프트웨어소양 함양을 위해서 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훌륭한 기회가 되었지요. 인재양성 전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첫째, 1등이 아니라 글로벌 소프트웨어 리더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에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부터 산학협력, 인턴십을 의무화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IT분야나 4차 산업혁명이든 현존하는 세계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국, 미국의 대학과 기업에서의 체험을 통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서 산업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셋째, 인성교육입니다. 우수한 인력보다는 훌륭한 인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규 커리큘럼과 과외 커리큘럼, 스터디그룹 등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의 멘토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Q : 글로벌 인재양성 현재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글로벌 사고방식은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이해'에서 생기기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화의 시작은 중요한 소양입니다. 성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접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들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온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동반자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로 워크숍을 가고, 그들이 방한을 하여 관심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15년 뒤에 양국의 학생들은 IT리더가 되어있을 것이니 협력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2학년 때 방문하여 기록할 만한 대기업 7곳을 방문하여 세미나, 토론 등을 가지며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동남아 개도국 학생들을 초청해서 그들과의 협력관계도 형성하고 있고요.

Q : 우리나라의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급선무는 무엇이

라 생각하는지요?

A : 첫째, 강의 중심 교육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현장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업과 직접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학년들이니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산업과 기업의 생태를 경험할 기회를 갖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마련한 연구실에 입실하여 논문 준비도 하고 인턴으로 실제 기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인턴제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분야는 여러 명의 평준화된 기술자보다 1명이라도 확실히 뛰어난 스타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평준화된 인재가 아니라 뛰어난 엘리트 인재 말이죠.

우리에게 그야말로 세계적이라 내세울 만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영웅'이라 할 만한 기업, 아직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층 중에는 그런 재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그동안 20년 투자해서 열매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와 민간투자도 부족한데 우리는 자립방안을 산학연대를 통해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를 받아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고요. 저희 반도체관은 300평이 넘는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학생들이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응용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강의와 과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 현장과의 연결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민간투자, 지속적인 정부투자 등을 통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학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 정교수님은 '4차혁명위원회' 출범에 맞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열린 미래 구현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 두 가지를 꼽는다는?

A : 먼저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작용,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법적인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절에 강도가 들었다고 무조건 폐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도를 잡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절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가 달라진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 여가문화가 더 중요하게 되므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로봇, 인공지능,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어 지배하는 도구들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문화적 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이버 폭력, 자살사이트 및 무기 사이트 운영, 무차별적인 음란물 유포 같은 반작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규정된 법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듯이 문화적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저 일자

리 창출이나 기술개발보다는 미래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Q : 우리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 중에 '영웅'과 '스타'의 부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꼽는 롤 모델은?

A : 우리에게 그야말로 세계적이라 내세울 만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영웅'이라 할 만한 기업, 아직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층 중에는 그런 재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계 경시대회 같은 곳에서 1등을 하는 젊은이들이 곧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클 조단이 팀에서 혼자만 탁월하게 잘 할 때는 우승을 못했지만 팀플레이가 완성되고 나서는 우승을 했습니다. 곧 영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란 거지요. 진짜 스타, 히어로의 출현이 절실합니다.

제 롤 모델은 단연코 어머니입니다. 교사이셨던 어머니는 제가 방황하거나 말썽을 피울 때도 인내하시면서 교육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가르쳐주셨거든요.

Q :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한 '코드게이트 조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보안 사고만 나면 언론에서는 교수님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나라 '보안' 분야 현실을 짚어본다면?

A : 상당히 뒤쳐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글로벌 수준으로는 갈 길은 여전히 멎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 보안시장만 보지 말고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기술력, 자금력 모두 필요한데 대기업들은 보안 회사를 자회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혼자 안 되면 컨소시엄으로 세계시장으로 가야만 답이 있습니다. 보안시장은 마치 우주의 팽창과도 같아서 앞으로 수배로 확대될 것입니다. 외국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안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것에 재미를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보안 분야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Q : 건강한 사이버 시민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A : '약속, 배려,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약속'은 무엇이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 꼭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수강신청은 공부를 하겠다는 약속이고, 부모님과 약속, 혹은 자신과의 약속 또한 꼭 지켜야한다는 것이지요. '배려'는 한 조직 내에서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이 많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라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예전과 달리 세계무대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아프리카의 오지 국가인 르완다의 ICT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까지 된 것은 모두 배려 덕분인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기' 같은 숙제를 냅니다. 이는 서로의 배려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구체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세 번째 강조사항인데 우리는 감정 표현에 약하다는 것을 주목한 것으로 '고맙다, 좋다, 사랑한다'와 같은 표현을 적극적으로 자주 하는 것입니다.



Q : Re-tired Silvers, Be Ambitious! '실버넷 운동'을 시작하신 당사자로서 앞으로 15년, 20년 뒤의 나를 예상해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A : Re-tired는 '타이어를 갈아 끼다'는 말로 새로운 인생타이어로 갈아 끼운 노인에게 꿈을 품으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관습이라 해도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기에 노년의 세월은 너무 깁니다. 평균 30년 이상을 활동할 노인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 1000달러 미만 시절에, 나라와 가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되어야 했던 선배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리타이어드(Retied)는 그런 의미입니다. 15년, 20년 후의 나는 이 실버들의 대통령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태양 아래 새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화한다는 말입니다. 기술, 문화, 사회, 경제를 막론하고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와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도 이전의 산업혁명이 있어 가능했고, 인공지능도 전문가 시스템, 뉴럴 네트워크 등 진화를 거쳐 현재 딥 러닝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경험과 지혜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절대 필요합니다. 경륜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신체나 정신 결함으로 자립할 수 없는 국민은 모두 부양 대상입니다. 일할 수 있는 노인은 단순한 금전 지원보다 활동 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2000년에 실버넷 운동을 시작한 이유와 힘이 들어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Q : 다시 20대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A : 교수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34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더 전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적을 두게 된 이유는 1995년에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3개월을 못 넘긴다는 소식을 받고 귀국하면서였어요. 어머니는 그 후로 1년 3개월을 더 사셨고,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대학에 놀러왔고,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내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참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얼마를 버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주저않았으니 말입니다. 한국은 국민성이 다혈질이나 추진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정'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질문의 순서를 재구성하여 답을 준 정태명 교수는 소프트웨어가 주를 이루는 질문이더라도 꼭 무엇인가 하나를 더했다. '인성, 정, 협업' 같이 인간적인 향이 강한 것이었다. 그런 그가 가깝게 두고 읽는 책은 <성경>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지

만 <성경> 속에는 "교리 외에도 생활의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있기 때문"이란다. 최근에 본 영화중에 인상적인 것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킹스맨 골든서클>이었다.

"다 망가져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의 영국 정보국을 미국 정보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부활시키고 임무를 완성하는 그 것이 좋았습니다."

영화에서의 IT기술 발현이나 첨단 기법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한 성공이 좋았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산점을 주어서 부처 간의 도움과 협업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정부 기관 혹은 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협력과 공유가 잘 되질 않아 그것이 국가발전의 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한 것이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건강한 몸을 타고나서 조상님께 감사하다는 그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잠을 자면 충분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건강관리를 다한다고 한다. 테니스와 농구를 좋아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골프로 바꿔 요즘도 열심히 치고 있다고 했다. 한때 100kg 가까이 나간 몸무게도 80kg으로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운동에 열심이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더한 결론은 아직도 꺾가를 땀만큼 인상적이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몫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 실망을 키우지 맙시다."

정리/전주주 · 사진/이재훈(모달리나이)



정태명 교수 Profile
 연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일리노이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
 퍼듀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 박사

1986년~현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교수
2003년	대통령저문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위원
2004년	정보통신미래모임 회장
2005년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처 처장
2007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2007년	한국CPO포럼 의장
2008년	OECD 정보보호특별반 부의장
2011년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2017년	대한민국 전자정부 명예의 전당 헌정



TCS코리아 서경화 부사장

“고객과의 상호 신뢰 그리고 투명성으로 비즈니스할 때 더 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 겨울, 쌀쌀하지만 햇살만큼은 눈부셔도 심빌딩 거울에 부딪힌다. 빛 그림자는 도로와 거리 곳곳을 비추고 활기찬 도시의 아침을 응원한다. 상쾌한 기분으로 도착한 을지로의 한 고층빌딩. 회전문을 통과하고 보안 게이트를 지나 오늘의 주인공인 TCS(TATA Consultancy Service)코리아의 서경화 부사장을 만났다. 그녀는 1991년 영국통신(British Telecom)을 시작으로

로 지금까지 외국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국내외 비즈니스에 몸담아왔다. 당시에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드물던 시대라서 외국기업에 다닌다는 것은 흔치 않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았고 그 미래는 오늘날 현재가 되어 한 조직의 리더로서 성장하였다. 서경화 부사장이 이끌고 있는 TCS코리아는 비즈니스컨설팅, 솔루션, 인터스트리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전 영역에 걸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TCS는 여느 IT회사와 다르게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인더스트리4.0, 스마트팩토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이미 20년 전부터 엔지니어링 솔루션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 인도 TATA라는 재벌기업에 속한 계열사로 삼성SDS, SK C&C, LG CNS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특이점이 있다면 TCS는 TATA 그룹 내 매출은 5% 미만이라고 한다. 95% 이상이 대외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내 재벌 IT 계열사와는 매출 구조 면에서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다. 글로벌에서는 은행 및 금융이 4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그 외 나머지 전 산업권에서 활발하게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 TCS는 전세계 IT 컨설팅업체 중 세계 3위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CS코리아의 국내 위상과 현황은 어떻습니까?

A :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순이익이나 직원 규모는 'IBM'이나 '액센추어' 다음으로 2, 3위를 오가는 데 글로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에 비해 국내 활동영역은 크지 않습니다. 한국시장은 재벌 IT 계열사들에 시장이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힘들고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2003년도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당시 2~3년 동안 국내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과 겹치는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건 승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연구소나 생산시설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에 주력해왔죠. 국내 SI회사들이 이런 영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객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경우는 저희가 10년 가까이 비행기설계연구소에서 설계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R&D 쪽에서도 저희가 아웃소싱으로 업무를 했고 공장 MES라든가 관련 솔루션에도 주력을 해왔어요. TCS는 여느 IT회사와 다르게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기 때

문에 최근 인더스트리4.0, 스마트팩토리가 많이 부각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이미 20년 전부터 엔지니어링 솔루션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비즈니스를 위해서 1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글로벌에 비하면 무척 작은 수준입니다. 매출의 80%가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아시아퍼시픽시장은 10% 정도 차지하고 한국은 더 작은 규모죠.

Q :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업무원칙이 있다면?

A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고객과의 상호 신뢰입니다. 어차피 비즈니스를 위해서 고객을 만나지만 그 거래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업무원칙은 투명성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25년동안 IT업계에서 일한 게 20년 가까이 됩니다. 한국IT시장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글로벌시각에서 봤을 때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투명하게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일하고 고객들과 있는 그대로 소통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Q : 어떻게 TCS와 인연을 맺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A : TCS는 제가 작년 3월부터 영업총괄부사장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2년이 채 안됐고요, 제 사회초년생으로의 출발은 영국회사 BT(British Telecom)입니다. 그 시절에는 여성인력이 마케팅이나 인사부 관리 쪽에 일을 선호하던 시대였어요. 제 경우엔 외국계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쪽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여러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인도 IT회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2002년도, 지금은 마힌드라 그룹으로 인수된 새티암(Satyam)이라는 인도 IT회사였습니다. 2009년도까지 다양한 솔루션 영업을 하면서 일을 했고 2009년도에 새티암이 인수되면서 테크 마힌드라 한국지사장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Q : IT 업계에서 여성리더로서의 성공과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여성으로서 부사장이라는 자리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리천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든 점은 뭔지 잠깐 언급해주세요.

A : 제가 도전의식을 펼칠 수 있었던 건 아마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해외로 나가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에서는 주말에도 일을 얹해도 되고 해외출장 기회도 있고 영어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다가 승진도 남녀차별이 없어서 외국계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해 보니 업무환경도 좋고 보고라인이나 간섭이 최소화되어 있고 성과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국내회사보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좋았습니

다. 또 성차별적인 문제도 없었고요. 물론, IT 쪽에서 일을 하면서는 힘든 일이 많았죠. 주로 남성들이 지배하는 시장이 IT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저만의 스타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웃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 일을 하면서 이견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 제점이나 그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A : 70, 80년대 압축성장시대에는 인력을 빨리 키워서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글로벌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저성장시대입니다. 제가 볼 땐 어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산업적으로 성장동력에 맞는 변화가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기업이나 정부에서 청년일자 리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성 인력에 대한 비례할당제도를 도입한다든 가 고용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빨리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CS는 글로벌적으로 이미 38%가 여성인 력이에요. TCS코리아는 남여를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력을 채용하는데 워낙 IT쪽으로 여성인력이 없다 보니까 글로벌 만큼 여성 비율이 크진 않죠. 가정이나 교 육계에서 여학생들에게도 IT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Q : 여성 IT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였으며,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 저는 공대 출신이 아닙니다. IT 개발자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IT 시장에서 일을 해올 때 느낀 자부심은 하나죠. 사업 적 거래가 성공적으로 성사가 됐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일이 성사됐을 때 느끼는



자부심과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성사시킨 계약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데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IT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애로점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여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고객들도 사실은 거의 보지 못했구요. 오히려 남성이 지배 하는 이 시장에서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 을 해왔습니다.

Q : 여성 IT 인재들에게 선배로서의 조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A : 첫 번 째로 비즈니스에서 감정적으로 제어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감정과잉으로 눈물을 보인다거나 하면 주변에서 쉽게 프레임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제껏 힘들게 이뤘던 과정과 결과가 퇴색되고 과소평가 되기 쉽죠. 그리고 남성의 언어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입니다. 선부른 예단으로 포기하지 말고 한발자국 씩 나아가겠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성성이나 조직의 뒤에 숨지 말고 과감하게 용기 내어 행동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색깔과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될 때 참기보다는 부드럽게 화를 낼 줄 알고 이슈를 제기해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 아끼는 명언과 주위에 권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A : 저는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를 좋아합니다. “용기를 내라, 도전을 감수하라.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멈출 때 끝이 난다.”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제 경험하고 다 연관된 명언들입니다.

책은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웃음) 힘든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책을 많이 읽어요. 이 나이가 돼도 그렇더라고요(웃음). 최근에 존 그랜릭의 <365일



뎡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재미와 감동이 있어요.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TCS코리아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 : TCS코리아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면서 기업의 철학을 길게 고수해오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무조건 늘리는 데에 큰 평가를 두지 않고요, 한 번 연결된 고객과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둡니다.

“TCS가 관계를 맺지 않은 고객들은 많지만 한 번 관계를 맺으면 기본 10년은 간다.” 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가트너 리포트에 매년 TCS의 재계약률이 등재되는데 98%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저희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사인하고 나서 긴장을 놓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신경을 더 씁니다. 한국에서도 저희 고객사가 많지는 않지만 한 번 관계를 맺은 고객은 지금까지 계속 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제가 이곳에 있던 떠나든 앞으로 계속될 회사의 가치입니다.

정리/이매자 · 사진/이재훈



서경화부사장Profile
 1991년 ~ 2001년 영국통신(BT) 한국지사, Budweiser Korea, KLA-Tendro APAC Region 근무
 2002년 ~ 2015년 Salyam 한국지사, Tech Mahindra 한국 지사장, Gartner Korea 근무
 2016년 ~ TCA 코리아 부사장

WORLD TRAVEL

소피아, 공존의 미학

한 건물을 로마시대에는 교회로, 터키 지배 때엔 이슬람 사원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알렉산더 네프스키 성당



성 게오르기 성당과 세르디카 유적지

■ 불가리아는 세계의 장수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그 비결이 야쿠르트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리스'로 제품화 되었다. 그러나 발칸산맥의 40%가 불가리아에 걸쳐 있어 동유럽의 알프스라 불리는 것처럼 천혜의 지리 또한 장수의 조건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적당히 노동을 하며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는 일, 건강의 제일 조건임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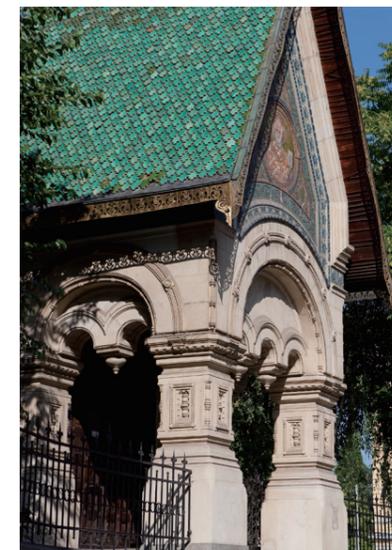
이러한 목가적 분위기와는 달리 발칸의 국가들이 그렇듯 강대국에 의해 지배당하고, 이에 저항하는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으로 지배를 받다가 1878년 러시아·투르크 전쟁으로 독립하였으나 소련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유입되었다.

정교 사원과 이슬람 모스크의 공존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는 비토사 산 계곡에 위치하여 도심에서도 푸른 숲을 만날 수 있다. 이른바 '녹색의 도시'이다. 본래 로마제국에게 점령되어 군사와 교통의 요지로 발전했다. 그후 고트족(族)과 훈족에게 파괴되었으나, 6세기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슬라브족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성채로 역할을 했다. 삭막한 전략요충지가 푸른 숲과 잘 어우러진 도시가 되었다.

기독교 문화를 대표하는 성 네델리아 성당(Sveta Nedelya Cathedral)은 19세기 중반의 네오비잔틴 건축 양식으로 거대한 돔을 가지고 있으며 화려한 벽화로 꾸며져 있다. 또한 러시아·투르크 전쟁에서 불가리아 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은 20만 명의 러시아 군인을 기리기 위해 1912년에 완공된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성당(Alexander Nevsky Cathedral)도 불가리아 정교를 대표하는 네오비잔틴 양식이다.

불가리아는 터키의 동유럽 진출 통로에 위치하여 14세기부터 500년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다. 오늘날 불가리아의 무슬림은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소피아 도처에서 아직도 이슬람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576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당시 건축된 바나바시 모스크(Banya Bashi Mosque)가 가장 유명하다. 거대한 돔과 하늘까지 치솟은 첨탑으로 유명하다. 주변에는 이슬람의 영향



불가리아 정교 사원



소피아 도심 속의 온천 약수터



오스만 투르크로부터의 독립 기념물

을 받은 노천온천과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소피아에는 로마시대 유적들, 불가리아 정교 사원과 이슬람 사원이 이웃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의 공존

소피아의 지상에는 투심 백화점과 웨라톤 호텔 같은 현대 건축물이, 지하에는 고대 유적지가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공존한다. 그 시간의 출발지에 세르디카(Serdica) 유적이 존재한다. 비잔틴 시대의 소피아는 세르디카였다. 14세기 이후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 도심

불가리아의 균형 잡힌 문화재 보존 정신은 기존 문화에 새로움을 덧입혀 제3의 문화로 정착시킨 소피아의 유적에 잘 드러나 있다. 한 건물을 로마시대에는 교회로, 터키 지배 때엔 이슬람 사원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한다.

소피아로 불리게 되었다. 3세기경 로마인들에 의해 성벽들이 건립되었으며, 현재는 세르디카의 동문에 해당하는 성벽과 2개의 탑이 보존돼 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는 이곳 소피아에 매료되어 로마제국의 수도로 지정하려고 했다. 물론 수도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장대한 의식을 치렀으며, 이를 위해 많은 건축물을 남겼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성 게오르기 교회(St. George Rotunda)다. 소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의 하나로 웨라톤 호텔의 정원에 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지 않는 문화의 공존 논리는 오스만 투르크 지배 당시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건축한 페트카 지하교회(St. Petka Samardžijska Church)에도 적용된다. 외부는 타일에 덮여 있어 볼품이 없으나 내부는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조화가 바실리카 양식인 반원통형의 돔을 지닌 중세 건축으로 꽃피웠다.

불가리아의 균형 잡힌 문화재 보존 정신은 기존 문화에 새로움을 덧입혀 제3의 문화로 정착시킨 소피아의 유적에 잘 드러나 있다. 한 건물을 로마시대에는 교회로, 터키 지배 때엔 이슬람 사원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한다. 파괴를 통한 개발만이 문화 발전으로 착각하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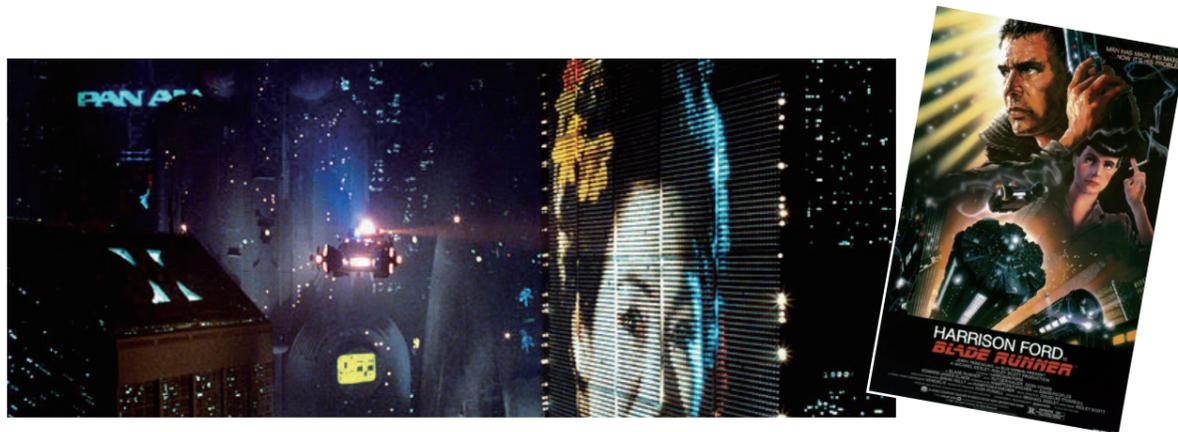
글 사진 / 장기주(시인·사진가)



오스만 투르크로부터의 독립 기념물



성 게오르기 성당, 웨라톤 호텔 내부에 있어 중세와 현대의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디지털 미래세계,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해답 〈서기 2019 블레이드러너〉 〈블레이드러너 2049〉

〈서기 2019 블레이드러너〉

감독 : 리들리 스콧

출연 : 해리슨 포드, 룯거 하우어, 손 영, 조 터켈, 윌리엄 샌더슨

〈서기 2019 블레이드러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82년 작품으로 1980년대 할리우드 SF영화를 대표하는 영화 중 한 편이다. 영화는 2019년 미래를 배경으로 복제인간을 폐기하는 블레이드 러너 리크 데커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작자들의 압력으로 가위질당한 작품이 1982년 개봉하지만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모두 외면당한다. 이후 이 영화에 열광한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1992년 감독의 생각대로 재편집한 감독판이 재개봉하면서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재평가 되었다.

스토리

작품의 배경은 2019년 11월. 장소는 미국의 LA, 도시는 현실과 다르게 인도형 스모그로 가득찬 어둡고 암담한 도시가 되어있다. 첫 장면은 부자들이 이러한 지구를 피해 우주로 이민을 가고 있으며, 끝없이 높아 보이는 마천루 밑에는 동양인과 히스패닉이 넘쳐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런 21세기 초에 타이렐사가 '리플리컨트'라고 불리는 복제인간을 만든다. 지구가 피폐해져가고 인구가 증가하자 인간들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복제인간들은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중 전투용 복제인간인 로이 배티와 리온, 암살용인 조라와 군대 위안부용인 프리스가 행성에서 탈출해 지구로 온다. 그들의 목적은 4년인 자신들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복제인간인지 아닌지 판명하는 방법은 질문에 따른 그들의 반응을 동공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블레이드러너는 이렇게 복제인간인지 아닌지 판명하고 복제인간을 잡아서 폐기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런데 복제인간 리온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들롱 나자 조사하던 블레이드러너를 죽이고 도주한다. 이에 경찰은 은퇴한 노련한 블레이드러너, 리크 데커드를 호출한다. 타이렐사를 방문한 리크는 복제인간을 만든 타이렐 박사를 만나고, 그가 자신의 조카를 이식해 만든 복제인간 레이첼을 만난다. 로이는 과학자인 세바스찬을 이용해 타이렐을 만나고 수명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타이렐과 세바스찬을 죽인다.

제작 배경

헨던 팬서가 쓴 시나리오 초고가 리들리 스콧 감독에게 건네질 당시에 영화 제목은 '위험한 날들'이었다. 뒤에 제작자 마이클 달리가 윌리엄 S. 버로스의 단편소설에서 따온 '블레이드러너'를 제안하면서 영화 제목이 〈블레이드러너〉로 확정된다. 당시 〈에이리언〉 후반 작업을 하던 리들리 스콧은 이 영화의 감독직을 거절했다. 그는 프랭크 허버트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듀〉에 더 끌렸고, 제작자는 〈듀〉의 감독으로 그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스콧의 형이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스콧은 충격을 받는다. 형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상실감은 스콧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스콧은 점점 〈블레이드러너〉의 어두운 미래상과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 스콧은 이 영화의 감독직을 수락했고, 대신 〈듀〉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에게 넘어갔다.

〈블레이드러너〉의 초기 제작비는 7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영화사는 모자라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TV나 비디오 판권을 비롯한 영화에 대한 권리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면서 2200만 달러가 넘는 제작비를 만든다. 그리고 배급은 워

너브러더스가 맡게 된다. 원작인 필립 K. 딕의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의 배경인 샌프란시스코는 2019년의 LA로 바뀐다. 원작에서 감정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지만, 영화에서는 감정과 기억을 가진 복제인간이 등장하며 인간과 복제인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처럼 〈블레이드러너〉는 원작을 넘어 리들리 스콧의 화두와 성찰까지 담고 있다. 〈블레이드러너〉의 촬영 분을 보고 환호하던 필립 K. 딕은 영화가 개봉한 1982년 뇌졸중으로 급사했다.

감독판 등 영화의 버전들

처음 만들어진 영화는 4시간 정도 분량이었다. 내부 시사 이후 이미지에 대해서는 찬탄하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와 난해한 내용에 제작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가위질을 했다. 먼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리크의 내레이션을 넣고 영화의 결말도 리크와 레이첼이 같이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해피엔딩으로 바꿨다. 숲속 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찍은 엔딩 장면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1980)의 촬영분에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영화는 1시간 57분18초로 최종 편집돼 1982년 6월 개봉했다. 흥행 결과는 참패로 나왔다. 당시 〈E.T.〉 〈스타트렉2 : 칸의 분노〉 〈매드 맥스2〉 〈록키3〉 등 경쟁한 영화들과 맞붙은 데다,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1980년 대 초반 미국 사회에서 어둡고 암울한 〈블레이드러너〉는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다.

잊혀져가던 영화를 되살린 건 팬들의 사랑이었다. 〈블레이드러너〉에 열광한 마니아층이 형성됐고 급기야 1992년 감독판이 재개봉하게 된다. 스콧은 창고에 묻혀 있던 촬영 분을 자신의 느낌대로 재편집했다. 재편집된 영화에서는 내레이

션이 다 빠졌고 결말 또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바뀐 것 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리크 유니콘 꿈을 꾸는 장면이 추가된 것이다.

감독판 개봉 이후 영화는 재평가 받으면서 비평가 흥행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스콧은 영화의 오류와 실수들을 다시 다듬고 싶어 했고 2007년 파이널 컷이 나온다. 파이널 컷 버전은 오래되어 손상된 필름을 디지털화해 화질을 훨씬 더 향상시켰다. 그밖에 미래형 자동차 스피너에 매달렸던 와이어를 지우는 등 주로 기술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고쳐 깔끔하게 완성했다.

영화의 주제

영화는 미래 LA의 모습과 눈에 비친 그 야경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이렇게 영화에서 먼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본다는 것, 시각에 대한 문제다. 인간과 복제인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눈을 관찰하는 것이고, 로이가 타이렐을 죽일 때도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눌러 죽인다. 즉 '본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영화 개봉 이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리크 복제인간이나 아니냐는 것'이었다. 리들리 스콧은 영화에서 리크 데커드가 복제인간이라는 장치를 알 듯 모를 듯 깔아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확실히 대답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영화가 말하려는 것과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리크는 복제인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만, 정작 자신이 복제인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영화는 시각 중심의 문화를 비판하며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등을 버려야 한다고 있는 것이다.



〈블레이드러너 2049〉

감독 : 드니 빌뇌브

출연 : 라이언 고슬링, 해리슨 포드, 아나 드 아르마스, 실비아 후스, 자레드 레토

〈블레이드러너 2049〉는 올 해 10월 개봉한 미국의 느와르 SF 영화이다. 영화 〈서기 2019 블레이드러너〉의 35년 만의 속편으로 리들리 스콧 제작을 맡고, 드니 빌뇌브가 감독을 맡았다. 해리슨 포드는 주인공 릭 데커드 역으로 다시 출연한다. 영화에서의 복제인간인 '리플리컨트'와 이를 잡는 '블레이드러너'의 대결 구도는 그저 '컵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전체적인 '블레이드러너 2049'의 톤은 느리다. 그러나 드니 빌뇌브 감독은 163분이라는 긴 상영시간을 통해서, 한 번에 작품의 주제를 설명하지 않는다. '인간다운 존재가 인간인가?'라는 명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억이 진실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 펼쳐 보인다.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블레이드러너 2049'는 볼 때마다 여러 각도로 관망하면 곱씹을 이유가 많은 것이다.

스토리

인간과 리플리컨트가 혼재된 서기 2049년, 캘리포니아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 차량(스피너) 안에서 주인공 K가 눈을 뜨며 영화는 시작된다. 전작처럼 시대 배경을 서술하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져 식물 한 점 없고, 거대한 태양열 발전소들과 합성 농업 시설들만이 대지를 가득 뒤덮고 있다. LAPD의 블레이드러너인 케이는 한적한 외곽의 애벌레 농장에 도착한다. 거기서 일하는 새퍼는 과거에 타이렐사가 만든 '순종적이지 않은' 레플리칸트 넥서스8 모델로 원래는 의무병으로 우주 식민지 칼란사에서 복무했지만 지구로 도망쳐 폐기를 피해 몸

을 숨기고 있었으며 레플리칸트 해방 운동에 관여되어 오래 전부터 추적되고 있었다. 천재 과학자 니앤더 월레스가 도산한 타이렐 사의 유산을 손에 넣어 더욱 '순종적인' 새로운 레플리칸트 '넥서스9'를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그 이전 세대의 레플리칸트를 '폐기'시키는 사람들을 여전히 블레이드러너라고 부른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리플리컨트를 쫓는 블레이드러너 'K'는 리플리컨트와 자신을 둘러싼 비밀이 존재함을 깨닫고 오래 전 블레이드러너로 활약했던 '릭 데커드'를 찾아 나선다. K는 과거 블레이드 러너였던 '릭 데커드'와 조우하며, 자신이 쫓는 진실에 한 발자국씩 다가선다.

비하인드 스토리

〈블레이드러너 2049〉를 보다 보면 여러 영화나 이야기가 떠오른다. 모든 여성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구의 종말을 앞둔 가운데 등장한 생명을 언급한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이 있다. '라헬'(레이첼, Rachel)은 아들 '요셉'(Joseph)을 잉태하는 대목이 〈성경〉 속 '창세기'에 있는데, 예지몽을 자주 꾸는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가게 됐지만, 후에 이집트의 대신이 된다. '조이'는 'K'에게 '조라' 부르는데, 이는 '요셉'의 닉네임 중 하나다. 인간과 운영체제의 사랑을 보여준 영화 〈하〉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대목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K'와 '데커드'가 '시티스피크'(블레이드러너 세계관의 언어) 중 하나인 한글 '행운'으로 적힌 카지노에서 첫 대결을 벌일 때, 홀로그램에서 나오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는 'Suspicious Minds(의심스러운 마음)'로 작품의 상황을 대변한다. 작품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나무는 1편 영화의 제작사인 '레드 컴퍼니' 로고와 유사하게 생겼다. 'K'의 최후 장면은 1편 속 '로이 베티'의 최후 장면과 유사하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그저 '블레이드러너 2049'에 관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은 이 작품을 더 놀라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전작들인 〈프리즈너스〉, 최근 2017년도 최고의 영화로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 〈컨택트〉 등을 통해서 인간 심리에 대한 탁월한 묘사를 선보인바 있다. 〈블레이드러너 2049〉 역시 각 인물에 대한 탁월한 심리 묘사를 화면에 수놓았다. 그중 'K'를 맡은 라이언 고슬링은 2년 연속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심리 묘사 연기를 선보인다.

영화의 주제

K는 창조주의 그림자의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른 채 스스로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K의 정체성감을 느끼게 했다면, 사랑받다는 그 불확실한 착각도 무명의 존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영화는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능성만으로 복제인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자존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블레이드러너 2049〉는 인간과 존엄의 마음의 실체를 돌이켜 보게 하는 영화라 하겠다.



TIP

'SF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원작 〈2019 블레이드러너〉부터 신작 〈블레이드러너 2049〉에 이르기까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들. 알아두면 쓸데 많은, 감상의 재미를 배가할 수 있는 핵심 용어.

오프월드 : 외계 식민지, 식민 행성이라는 뜻의 오프월드(Off-World). 미래의 지구는 여러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들로 인해 인류가 살기 어려워지면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개척해야 했다. 이에 따라 다른 행성의 식민지화를 위해 리플리컨트가 노예로 사용됐으며, 개척된 오프월드에는 갈 여유가 되지 않은 인간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주해있는 상태다. 원작 '블레이드 러너'는 2019년 LA를 배경으로 오프월드에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폭동을 일으키고 지구로 잠입한 리플리컨트들을 잡기 위해 릭 데커드가 이들을 수사하고 추적하는 내용이 펼쳐졌다.

리플리컨트 : '리플리컨트'는 복제품을 의미하는 단어 '레플리카(replica)'에 어원을 둔다. 21세기 초 타이렐사에 의해 만들어진 복제인간이자 인간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지적 능력과 사고방식, 신체적 조건을 갖춘 대체품으로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설계됐다. 원작 속 리플리컨트는 수명이 4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번 작품에서는 니앤더 월레스가 개발한 인간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자유 수명의 리플리컨트 신모델이 등장한다. 원작에서 수명이 한정된 리플리컨트와 인간 사이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작품은 리플리컨트의 임신과 출산 문제를 다루며 더욱 확장된 인간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블레이드러너 : 지구 출입이 금지된 리플리컨트들이 허가 없이 들어올 경우 이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특수 경찰

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바로 L.A.P.D(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소속의 '블레이드러너'다. '블레이드러너 2049'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K라는 인물이 새로운 블레이드러너로 등장. 자취를 감춘 채 도망 다니는 구모델의 리플리컨트들을 추적한다.

넥서스8 : 원작의 리플리컨트 모델은 '넥서스6'이며, 이후 업그레이드된 '넥서스8' 시리즈가 제조된다. 하지만 이 '넥서스8' 리플리컨트들은 만들어졌을 당시 인간 우월주의로 인해 전쟁에 사용되거나 인간에게 제거되는 등 많은 고통을 겪는다. '블레이드러너 2049'에서 K가 제거하는 리플리컨트들은 '넥서스8' 시리즈에 해당하며, K가 비밀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2022년 대정전 사건'에 연관된 리플리컨트들이다. 이번 작품에서 단백질 농장을 운영하며 숨어사는 리플리컨트 사파 모튼이 이 모델에 해당한다.

보이드 캠프 테스트 : 원작에서 등장한 인간과 구별이 어려운 리플리컨트들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테스트. 일종의 리플리컨트 버전 거짓말 탐지기라고 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홍채의 변화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플리컨트들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들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테스트에서 던지는 질문에 인간처럼 똑바로 대답할 수가 없어 이 테스트를 통해 인간과 리플리컨트를 구별했다. 2049년 리플리컨트들은 눈 밑에 기입돼 있는 시리얼 넘버로 구별할 수 있지만, 순종 기능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기준선 테스트도 수시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폐기 : 원작에서는 리플리컨트를 잡을 때 '처형'이라는 단어가 아닌 '폐기' '제거'라는 말을 사용해 리플리컨트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Smart Factory Solution MACHBASE

- 초당 1천만 Tag 실시간 수집, 저장
- 데이터 폭증에 대응 가능한 클러스터 구성
- 쉽고 간단한 자동화 대시보드 작성
- 낮은 TCO 및 쉬운 유지 보수성



초고속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마크베이스

MACHBASE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에이스타워2차 904호 Tel : 02-2038-4606 Website : www.machbase.com

codigm

code on cloud, shift the paradigm

코다임 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채용을 위한 서비스 **구름** 을 만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제공 기술



User-dedicated Contai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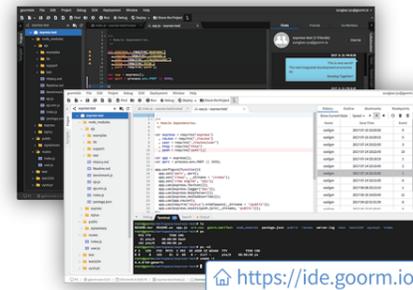
Web-based SaaS



Various Languages / Platforms

제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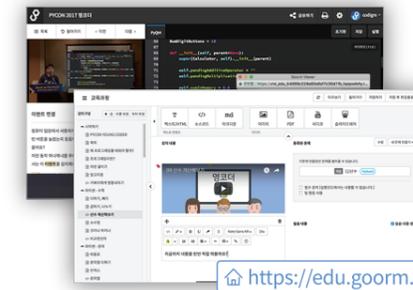
클라우드 통합개발환경 서비스
goormide



<https://ide.goorm.io>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통해 사내 SW개발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여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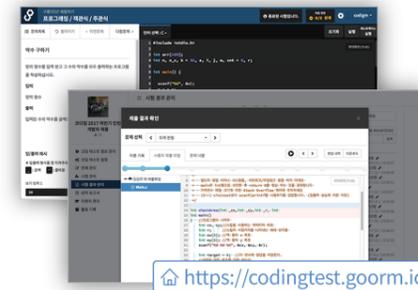
클라우드 SW교육환경 서비스
goormedu



<https://edu.goorm.io>

초중고부터 대학, 기업에서 활용 중인 현존하는 모든 SW교육 방법을 지원하는 LMS를 만나보세요.

클라우드 코딩테스트 서비스
goormtest



<https://codingtest.goorm.io>

다양한 각도에서 SW개발 역량을 평가해주는 코딩 테스트를 채용 프로세스와 직무 능력 평가에 적용해보세요.

기업 LG Electronics N-N ENTERTAINMENT LINE LIG Nex1 Smigate 루미한라세울 KB QUALCOMM infobank I-ON

LOAD COMPLETE Bugs! TECHORUS kt

기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IA ETRI IITP FKII SW_Maestro_ CONNECT edwith

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SKKU) KYUNG HEE UNIVERSITY DANKOOK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KOOKMIN UNIVERSITY HANKY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HILAHUMEN'S UNIVERSITY SUN MOON UNIVERSITY KAIST

(주)코다임

codigm.com

031-8038-3228

contact@goorm.io

snaps

스냅스 김성경 대표이사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 저희
비즈니스의 강점입니다



HTML5 기반 사진 편집 프로그램 개발에는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동종 업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가 없어요. 특정 외주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나눠 쓰는 형태죠. 사실, 저희도 국내 영업만 생각한다면 자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게 불가능해요.

피노키오의 제페토 할아버지 같은 노인이 작은 로봇의 가슴을 열고 작업을 하고 있다. 노인이 말한다, “너에게 ‘마음’을 줄 수 있으면 전부를 주는 건데” 로봇은 할아버지의 말 때문이었는지 마음을 찾아 떠나고... 최근 일련의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는 광고의 한 장면이다. 뭐, 여기서 그 광고를 한 번 더 홍보할 마음은 없다. 올드 스쿨 비주얼과 내러티브, 1990년대나 어울렸을법한 이 광고는 디지털 시대에 로봇을 매개로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시대는 바야흐로 디지털시대, 우리의 마음은 그 안 어디쯤에서 0과 1의 모습에 적응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가끔 인간적인 소외를 넘어 배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면 '엄마 밤'이 먹고 싶어지는 기분을 이 꼬마 로봇은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이 아날로그에서 오는 감성적 부분을 디지털에 용화시켜 디지털 사진 인화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스냅스다. 스냅스는 온라인 사진인화와 포토북 대표 업체로 30~40종의 소비자 DIY(Do it Yourself) 포토 상품을 서비스하는 회사다. '스냅스 뉴 편집기(HTML5 포토 에디터)'로 올해 7·8월 신소프트웨어상품 대상을 수상한 스냅스 김성경 대표이사를 만났다.

Q : HTML5기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2017년 7/8월)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저희 스냅스는 디지털 사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를 저희가 포토북으로 만드는

데 있어 사용자가 DIY 방식으로 책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 사용 방식이 액티브 엑스 방식이었는데 이걸 HTML 방식으로 바꾸니까 별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과정이 사라지는 거죠. 물 흘러가듯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한 로그인만으로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월등하고 보안 이슈도 모두 해결했고 브라우저 특성에 관계없이 구동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다 사용 가능하게 된 거죠.

HTML5기반 사진 편집 프로그램 개발에는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동종 업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가 없어요. 특정 외주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나눠 쓰는 형태죠. 사실, 저희도 국내 영업만 생각한다면 자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게 불가능해요. 아마 저희도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여 이 사업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했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선 이 기술이 꼭 필요했어요. 해외 고객들은 대부분 자기 PC에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고 해외로 진출한다면 바로 실패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HTML5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준비한 겁니다.

Q : 최근 모바일 스냅스 실적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숫자적 성과는 어떠한지요?

A : 모바일 앱 런칭 후 모바일 대 PC 매출 비중이 6대 4 정도 됩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에서 찍고 직접 주문하는 수요가 많아진 거죠. 국내 최초로 시행한 건데 런칭 이후 주문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게 됐다고 할까요. 실적은 작년 성적표가 200억 조금 넘



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15~20%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적보다 신사업 준비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기업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사업인 오프린트미(OH PRINT,ME) 두 가지 인데요,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그 때 상장하려고 합니다(웃음).

Q : 두 개의 신사업의 결과에 따라 상장 시기가 정해진다니 그 두 가지 사업이 궁금해집니다.

A : 신사업 '오프린트미'는 기존 사업과 비교하면 연구개발과 생산이라는 교집합은 있지만 시장영역

이 달라요. 시장은 다른데 저희의 리소스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마케팅 인쇄물들을 포토북 주문하듯이 DIY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명함, 브로셔, 포스터, 싸인, 스티커 등을 사용자가 디자인하고 입력합니다. 패키지 내에서도 다르게 주문할 수 있죠.

(그럼 가격 경쟁력 약해질 수 있지 않나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인쇄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게 생산 쪽의 교집합인데 원가는 저희가 가장 저렴할 겁니다.

(그럼 타깃 대상은?) 포토북은 20~40대 여성이 주 고객이라면 '오프린트미' 쪽은 비즈니스 소상공



인이 주 대상이며 프리랜서, 독립출판인 등 개인도 포함됩니다. 이 분들은 본인 자체가 비즈니스라서 개성적이고 독특한(Unique)걸 추구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죠. 주요 고객 대상은 종업원 10명 미만의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정도 규모의 기업이 전체 마켓에서 과반이죠. 저는 지금 기존의 스냅스 비즈니스에서 한 발 물러나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신 스냅스 운영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서비스 시장에서는 파트너십을 제안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저희 회사가 꽤 소문이 나 있거든요. 저희는 연구개발과 장비 쪽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신홍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글로벌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새로 합류한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체 진출보다 해외 파트너와 조인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기술을 제공하고 해외 파트너는 마케팅을 제공

하는 식으로 협업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Q :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A : 미국 시장 규모는 엄청납니다. 미국의 온라인 사진인화 전문기업인 셔터플라이(shutterfly)는 자국 내 연 매출이 1조 원이에요. 미국 내 20~50대 여성 30%가 셔터플라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유럽에도 8천~9천 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 뿐 아니라 시장 자체가 이제 도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 :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하시는데 그럼 셔터플라이를 경쟁자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A :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술이 셔터플라이보다 더 뛰어납니다. 셔터플라이에는 엔지니어가 350명 정도 되는데, 순수 엔지니어만 30명 정도인 저희 회사가 런칭한 HTML5 포토 편집 프로그램이 훨씬 나아요. 자부합니다. 프라이드도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30명이면 많은 편 아닙니까?)

저희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인원으로 꽤 좋은 솔루션이 나온 거죠. 전체 종업원 수는 100명 정도 되고 이 중 생산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03년 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 150등(저희 회사 앞에 150개의 동종 경쟁 기업이 있었습니다.)에서 현재 1등이 된 주요 요인은 바로 연구개발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온라인 인화 서비스가 매우 독특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레드오션이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고객으로부터 템플릿을 이용한 사진인화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고객이 아이 사진을 자신이 직접 편집해서 보내셨는데, 그걸 계기로 우리가 템플릿을 제공해 주고 사진 주문을 받았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걸 다시 포토북으로 발전시키면서 엔지니어도 고용하고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게 된 거죠. 다른 회사들이 저희 회사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연구개발 역량입니다.

Q :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네요.

A : 고객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접점에서 스스로 포토북을 만들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과 책으로 보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업로드, 다운로드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책으로 만들고 책을 통해 보니까 예전에 앨범으로 보는 정서를 느끼는 거죠. 비즈니스는 감동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잖아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 저희 비즈니스가 가진 장점입니다.

Q : 스타트업에 뜻이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A : 사실 제 꿈이 좋은 벤처캐피털을 만드는 겁니다.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좋은 스타트업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싶어서죠.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제 꿈입니다.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털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존경받는 일이죠. 이제 우리도 좋은 스타트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업구조 자



체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의 꿈은 그저 대기업에 가는 것이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 곱씹어보면 그들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자명해지더라고요. 비전도 없고 리스크도 크고 실패하면 재기도 못하는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구조를 변화시켜서 그 친구들에게 꿈을 돌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막연한 격려와 희망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들의 서포터가 되어 스타트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돈만 주고 푸시만 할 게 아니라 인큐베이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을 시도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게 리스크이니까 겁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 스냅스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A : 지금 잘해야죠. 매일 매일이 저희 미래입니다.

정리 / 이애자 · 사진 / 이재훈



김성경 대표이사 Profile
2003년 ~ 현재 ㈜스냅스 대표이사
2017년 ~ 현재 연세대 경영대학원 재학
2014년 한양사이버대학교 국제경영 졸업

코다임 류성태
대표이사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가시적인 성공보다도 그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자아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첫 자리에서 180cm의 키에 80kg의 몸무게로 적당히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던 류 대표에게 직설적으로 던진 질문 “왜 이 일을 하는가?”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자아실현’이었다. 류 대표는 중·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컴퓨터 동아리에서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일을 진행했다고 한다.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관련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긴 했지만 학비에 보탬 정도는 아니었고 대학교 입학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을 통해 학비를 해결했다. 초·중·고 시절부터 컴퓨터를 좋아한 류 대표가 컴퓨터를 통해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신 아버지는 류 대표가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자 “이제는 네가 벌어서 대학을 다녀라”라는 선언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류 대표는 대학에 다니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시키기도 했다. 현재 ‘대단한 사업’으로 확장이 되어 주목 받고 있는 주문 플랫폼 사업도 그가 ‘얌냘(yamNyam)’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시도한 것이었다. 류 대표는 이것으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생이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학 주변의 제한된 업체를 섭외 운영하다가 접은 사업이었지만, 현재 배달업계 춘추전국시대의 탄생과 황금기의 구가에 기여한 것이다.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셈이지만 저는 투자를 받은 2015년을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해라 생각합니다.” 류 대표는 대한민국 매쉬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UIzard라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대학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진행했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키다가 법인 설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최초 법인 명은 구름이었는데, 서비스 명은 그대로 두고 회사 명은 글로벌하게 바꾸자고 하던 찰나에 시리즈A 투자를 받고 양재 뱅뱅 사거리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마침 구름이라는 법인이 서울시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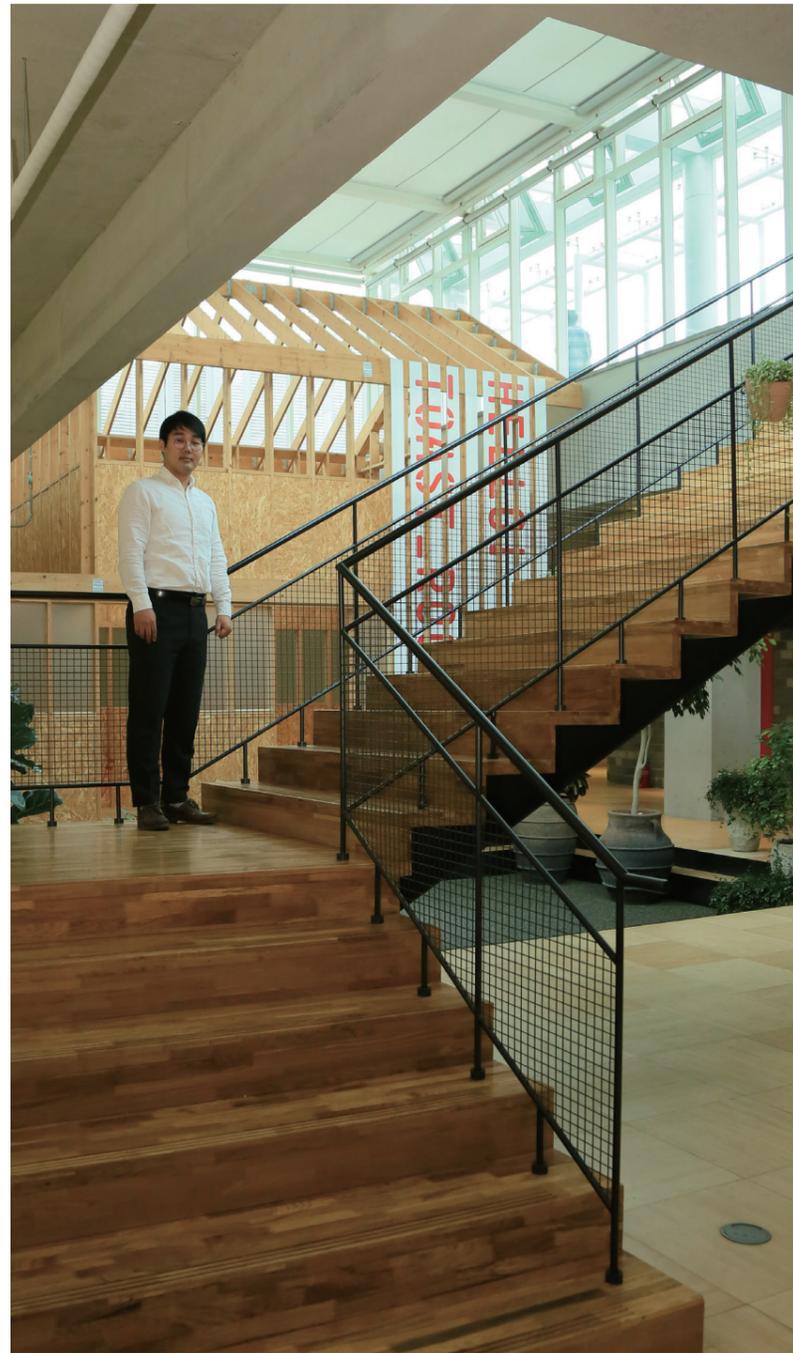
미 등록되어 있어, 이 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드(Code)+패러다임(Paradigm)’을 합친 코다임(Codigm)을 회사명으로 정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 것이다.

코다임은 현재 언제 어디서나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코딩 서비스 브랜드인 구름(goorm)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2016년 매출액을 4억 2천만 원 기록했고, 2017년에는 10억원 내외의 성과로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도 목표는 3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다.

코다임이 서비스하는 구름IDE는 전통적인 통합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안으로 옮긴 소프트웨어다. 서비스형태의 소프트웨어(SaaS)로 제공되어 클릭 한번이면 웹에서 개발 환경이 만들어진다. 코다임은 바로 이 클라우드 통합 환경 ‘구름 IDE’를 만드는 스타트업으로 베타 서비스를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개발 실습 환경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학교 컴퓨터 환경은 인프라가 열악했다. 성능은 천차만별인데다, 종이와 연필과 컴퓨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 실습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했다. 문제를 제출하고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코다임의 클라우드 코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환경은 이런 단점들을 해결해줄 수 있었다.

코다임의 두번째 서비스인 구름EDU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 서비스이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실습환경을 통해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집에 돌아가 그대로 이어서 공부할 수 있다. 2016년, 전국의 160여 개 초·중·고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클라우드 실증사업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95개교에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는 구름EDU를 이용하여 한 학기 학생 2,100명을 대상으로 비 전공 소프트웨어 교



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공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학원에서의 사용도 늘어나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가상공간에서 공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코다임이 가진 기술적 장점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해진 시점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구름EDU 상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

육 실습을 할 수 있고, 교육자는 교안과 문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관리, 시험관리 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구름EDU는 학교별로 만들어지는 전용 채널인 ‘우리 학교 채널’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 서비스인 ‘코딩클래스’ 두 부류로 웹에서 운영하고 있다. 코다임에서는 구름EDU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늘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코다임은 구름IDE와 구름EDU에서 탄생한 ‘구름TEST’를 연이어 선보였다. 클라우드 기반 코딩테스트 서비스로 문제 제작, 응시자 관리, 결과 관리 등이 용이하여 기업에서 인재채용을 위해 코딩테스트 및 필기시험을 볼 때 매우 적합한 서비스인데, 복잡한 시험 환경 구성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

코다임은 구름TEST를 최초로 상용화 하면서 대규모 시스템 구축에 앞서 시험 운영을 실시했다. 구름TEST에 가상 사용자 2,500명이 접속한 것처럼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상머신 350대를 순식간에 임대받는 환경을 만들어 본 것이다

지 않으며 채용 담당자가 문제를 만들어 응시자를 초대하기만 하면 응시자는 자신만의 환경에서 코딩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자동으로 채점되어 시험 결과를 시험 종료 직후에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소스 코드 답안만 제출하던 것과는 달리 코드 작성 이력도 기록이 되어 코딩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채용 프로세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채용 시간을 단축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더 뛰어난 인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채용 프로세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용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할 수 있고요.”

코다임은 구름TEST를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대규모 시스템 구축에 앞서 시험 운영을 실시했다. 구름TEST에 가상 사용자 2,500명이 접속한 것처럼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상머신 350대를 순식간에 임대받는 환경을 만들어 본 것이다. 이때 최대 7,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인했다. 이에 많은 대기업이 관심을 보여 LG전자, NHN엔터테인먼트, 라인, LIG넥스원, 쉐컴코리아, 인포뱅크 등에서 채용 과정에 사용했다. NHN엔터테인먼트에서는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1단계에 두 차례 사용해서 당시 최대 2300명이 동시 접속해 시험을 진행했다.

“클라우드IDE의 가능성은 해외 클라우드 IDE 투자 및 인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Cloud9은 아마존웹서비스에 인수되었고, Codenvy도 레드햇에 인수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IDE를 시도했지만 시장 개척에는 뒤쳐진 코다임의 다음 목표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다.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구름 브랜드를 내보내는 계획을 수행 중이다. 북미를 시작으로 알선해서 일본, 중국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마케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구름 브랜드가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성장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는 류성태 대표의 코다임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디지털스쿨 백팩’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에 제공되는 코다임의 ‘구름EDU’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학교나 집에서 동일한 환경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학생마다 독립적인 가상 머신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정규과목 교과서에 수록되는 스크래치, 엔트리, 파이선, C 뿐만 아니라 총 30여 종의 현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기인 류성태 대표는 멘토와 멘티 상호간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존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역설을 펼친다. 그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달력을 원한다면?

2018 스냅스 포토달력

~45%
할인

애사심 UP! 동료애 UP!
추억이 담긴 특별한 회사달력으로 2018년을 준비하세요!

는 스타트업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세가지 조언을 했다.

“첫째, 포기하지 마라. 둘째, 사람을 조심하라. 셋째, 함께 할 동료를 구하라 라는 당부를 해주고 싶습니다.”

류 대표는 “최소 일 년은 버틴다.”는 각오와 “확실한 비즈니스없이 제품이나 회사를 어떻게 하면 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유의”하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니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동료를 구하는 것은 필수”라며 성공의 최소한의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만약 10대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더 놀고 싶어요. 좋아하는 운동도 실컷 하고요.”

“10년 뒤의 류성태 대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호주의 아틀라스처럼 미국이 아닌 곳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는 서비스를 통해 성공한 세계적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터뷰 후에는 다시 외국 출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류성태 대표는 영화와 축구경기 관람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짬이 없어 즐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아쉬워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경기 관람을 위해 현지로 날아가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것이지만 11월 초, 북미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지금의 자신에게 만족하기에 그런 아쉬움은 바로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외형적 성공보다도 자아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하는 실천가이니 말이다.

글/전구주 · 사진/모델리아니



류성태 대표이사 Profile

-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전공 조기 졸업
- 2010년 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과정 1기 1단계 수료
- 2011년 성균관대학교-삼성전자 IT융합학과 박사과정
- 2013년 코다이 설립
- 2016년 ~ 현재 코다이 대표이사

- East Asia OSS Forum 특별기술상(2012)
-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베스트 업그레이드상 2회
- 지식경제부장관상(최우수상), 우수상 수상(2009~2012)
- 대한민국 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특허청장상 (2009)
- 한국 매쉬업 대회 은상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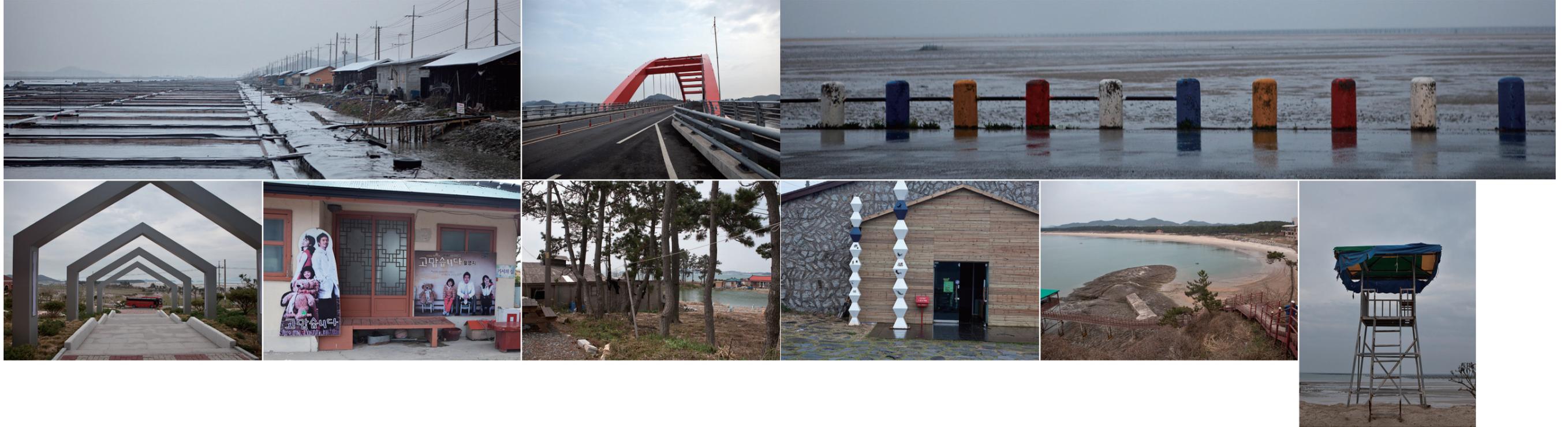
그 '섬'에 가고 싶다

국내 최초 슬로시티의 전형, 최적의 겨울여행지

증도

수정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의 섬터





1004개의 섬이 산재한 곳이라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의 증도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휴양지다. 여름여행지로서 뿐만 아니라 겨울여행지로도 꼽히는 증도는 전남의 또 다른 슬로시티 청산도와 더불어 태생부터 느린 곳이라 할 수 있다. 증도는 원래 신안군의 다른 섬들처럼 ‘섬 중의 섬’이었다. 하지만 그 섬은 몇 년 전에 그 지위를 잃었다. 증도대교가 놓이면서부터다. 신안군의 두 개의 읍이 있는 섬 중의 하나인 지도에서 사육도를 잇는 다리를 지나 증도까지 대교가 놓인 것이다. 섬이 육지로 탈바꿈 하면서 배를 이용하지 않고 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용객도 많아졌다. 시간도 빨라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증도는 더 느리게 변했다. 증도는 원래 두 개의 섬이었다. ‘전증도, 하증도’ 그렇게 두 개의 섬이었다. 증도가 하나로 변하게 된 데에는 그 유명한 태평염전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태평염전은 전증도와 하증도 두 개의 섬을 가로막고 있던 갯벌을 메워 하나의 섬 증도를 만

들면서 태어났다. 증도면의 면적은 40.03 제곱미터. 본섬 격인 증도 외에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그리고 진섬을 포함하여 7개의 유인도와 92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섬의 원래 이름은 시루섬. 물이 귀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이름은 1953년 태평염전이 생겨나면서 증도로 못질되었다.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증도의 중심에 자리한 태평염전은 140만 평 규모를 자랑한다. 차량으로 염전을 돌아도 거기가 거기 같은 규모다. 일년에 생산하는 천일염은 1만6천 톤. 이 염전과 소금창고, 그리고 소금박물관은 문화재청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겨울잠에서 깨어 봄에 태양빛이 살아나고, 한여름에 만개하면 염전은 살아난다. 그 염전은 새카맣게 탄 염부들의 수만 번의 고무래질 속에서 뜨겁게 살아난다. 하지만 철 지난, 혹은 철 이른 소금창고는 애잔하다. 노란 얘기봄꽃이 햇볕 머물러 따뜻한 자리에서 바람을 타면서 흔들려도 소금창고 앞이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다.

겨울은 물론 3월 날 좋은 때에도 태평염전을 찾으면 줄 맞춰 길게 늘어선 60여 동의 소금창고는 아직도 굳게 문을 닫고 오관을 열지 않는다. 새하얀 지붕은 눈이 쌓인 것처럼 봄이 다가와도 백두의 모습으로 한겨울 그대로다. 겨울의 염전, 언제나 쓸쓸한 풍경이지만 그 쓸쓸함이 싫지만은 않아 그 많은 이들이 증도를 다시 찾게 되는지도 모를 일이다.

염전이 있던 곳
나는 마흔살
옛날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오는 것이었다.

이문재 시인의 말처럼 소금창고에는 수는 같은 햇살과 함께 자꾸 찾아드는 추억의 세레가 있다. 추억할 수 있는 옛날이 자꾸 시리게 들춰지는 것이다. 증도가 슬로시티로 자리한 데에는 무엇보다 신안군의 대표 농산물인 소금의 역할이 컸다. 오랜 시간 바다와 태양과 그리고 바람이 만들어내는 천일

염은 대표적인 슬로푸드 아니었는가. 천일염은 하늘이 짙은 태양빛을 선물할 때까지 그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얻고, 천천히 간수를 빼 소금창고에서 제 몸을 말리며 1년을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시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바다생물과 미세알 성분이 풍부한 우리나라 서해의 청정 갯벌에서 얻어지기에 그 품질이 세계 최고 명품이라는 프랑스의 그 소금과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애잔하다. 천사의 섬 신안군에는 걸으면서 힐링하는 둘레길, 해변길이 곳곳에 있다. 그중에 증도에는 다섯 코스의 걷는 길, ‘증도 모실 길’이 있다. 노을이 아름다운 사색의 길, 보물선 순교자 발자취길, 천년의 숲길, 갯벌공원길, 천일염길 그 이름마저도 매력적이다. 이 길 중에서도 갯벌공원 코스에 있는 화도의 노두 길은 감성을 폭발시키는 환상의 길이다. 증도 대초리와 화도를 잇는 이 길은 지리산 둘레길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도 꼽힌 바 있다. 하루에 두 번, 만조 때가 되면 길이 바닷물에 잠기기 때문에 미리 물때를 알고 건너야





되어서 더 귀한 느낌이다. 대부도 바닷길을 자동차로 경험한 이라면 저절로 반가운 마음이 일 것이다.

이 길의 끝은 화도다. 화도 안에는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 장소가 있다. 장나라, 장혁을 스타로 만들어준 감동드라마다. 이 작은 섬에는 촬영지뿐만 아니라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법 큰 수로와 갈대숲, 그리고 송림 우거진 해변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조망할 수 있는 쉼터도 있어 침묵과 고요, 지나온 세월을 반추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기대하는 누군가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모실길 3코스는 '천년의 숲길'이다. 순비기전시관에서 짱뚱어다리를 건너 바닷가 소나무숲에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을 걸어서 신안갯벌센터에 도착하는 약 4.6km 코스로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순비기전시관은 이 지역 특산물인 소금과 먹을거리, 천연염색 제품 등을 파는 곳이다. '순비기'는 염생식물 중 하나인데, 천연염색에 쓰인다.

짱뚱어다리는 바다를 건너는 650m 길이의 나무다리다. 도착지점인 신안갯벌센터에서 신안지역의 갯벌생태에 대해 알아본다. 짱뚱어다리 아래 갯벌

에서 노는 작은 게들, 보석처럼 반짝이는 우전해변 바다와 길게 늘어선 백사장을 보다보면 천년의 숲길에서는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진다.

증도의 또 다른 이름은 '보물섬'이다. 증도의 만들 앞바다에는 멀리 일본과 고려시대부터 관요가 유명한 강진에서 개성, 중국을 잇는 바닷길이 있다. 이 바닷길은 섬과 지척이어도 험난하기로 유명했다. 1000년도 더 전에 중국 송나라, 원나라 고려의 보물을 산처럼 실은 배들은 험한 바닷길에 얹어지고 또 무너졌다. 그때 배와 함께 수장되어 갯벌 속에 침향처럼 묻혀있던 보물들은 오늘에 되살아나 신안군민들에게 선물이 되어 섬은 또 하나의 별칭을 갖게 된 것이다.

증도에는 또 다른 볼거리와 전해지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드넓은 갯벌의 정취와 일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나무다리를 1km 넘게 놓은 '짱뚱어다리', 해수욕장으로는 그만한 곳도 드문 '우전해수욕장', 4km에 달하는 '솔밭해변', '증도갯벌전시관과 슬로시티 전시관', 옛날식 고기잡이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만들 독살', 송·원대유물매장해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국내 아

름다운 리조트로 손가락에 안에 드는 엘도라도 리조트 등등.

증도에 딸린 섬 중에 병풍도는 주목할 만하다. 수련 온 학생들의 익사 사고가 있기도 했지만 섬 이름 그대로를 대변하는 병풍바위 풍경과 노두 길은 국내 최장으로 18km에 달한다. 병풍도와 소기점

도, 소악도를 잇는 병풍도 노두 길은 증도의 '버지선착장'에서 물때에 맞춰 뱃길이 열리므로 기다림을 경험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일부러 찾아가볼 만한 곳이다.

문의 : 신안군 문화관광과 (061)240-8357
글/전구주 · 사진/장기주(시인 · 사진가), 엘도라도

튤립축제가 열리는 민어와 새우젓의 특산지 **임자도**

증도에서 철부선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섬 임자도에서는 매해 봄이 오면 튤립축제가 열린다. 민어와 새우젓의 특산지로 유명한 임자도이긴 하지만 오지 중의 오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튤립축제라니, 신기할 뿐이다. 하지만 막상 4월 축제 기간에는 이 주위가 사람들로 들쭉날쭉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축제 중의 축제가 된 것이다.

'명사삼십리', 국내 최대 해수욕장인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축제는 이 대광해수욕장 앞 넓은 들녘에서 개최된다. 해변의 길이가 12km가 넘는 광활한 백사장, 일몰이 아름다운 수평선, 물이 빠지면 끝 모르게 나타나는 갯벌, 섬이 갖춰야 할 덕목은 모두 갖춘 임



자도로 가려면 증도대교 머리가 있는 지도 정암선착장을 이용해야 한다. 축제 기간에는 20분마다, 야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증도나 임자도 뿐만 아니라 신안군의 섬마다에는 독특함이 채색되어 있는 것에 놀란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을 것 같은 섬의 끝, 혹은 낚시꾼이나 찾을 것 같이

후미진 곳, 기대하지 못했던 의외의 장소마다에 섬 주민과 여행객을 배려한 특유의 시설물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안군수를 2회 역임한 박우량 전 군수가 심혈을 기울인 '섬마다의 맞춤형'의 산물이라 설명해주는 주민들을 여행길에 여럿 만나게 되는 데서 그 진실성 여부를 가능해 볼 수 있다.



말 로봇이 등장하는 창작 뮤지컬,
벤허
또 하나의 명작 탄생을 기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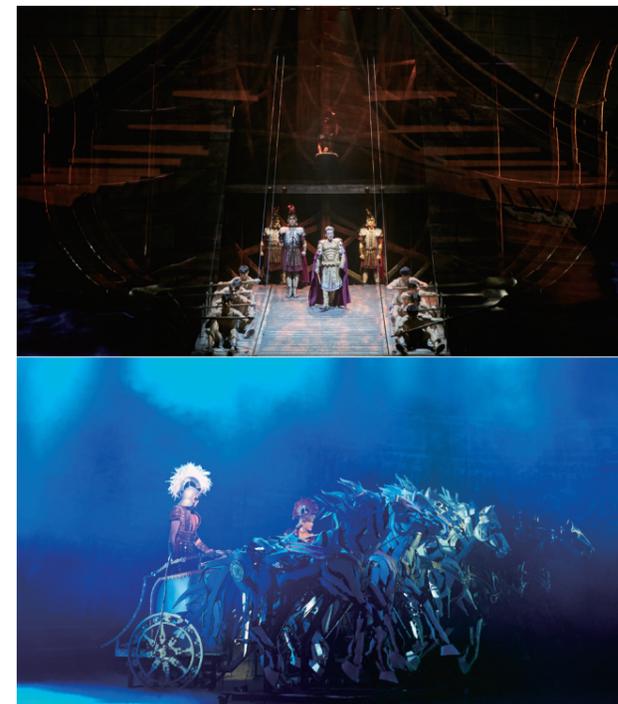
《벤허》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킨 연출자 왕용범과 음악감독 이성준이 다시 뭉쳐 만든 작품이다. 전작이 국내 뮤지컬 사상 초유의 흥행 기록을 썼었고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기에 관계자들의 기대치는 꽤나 높아져 있었다. 지난달 24일 베일을 벗은 뮤지컬 《벤허》는 현재까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관객 평점도 높고 언론도 호의적이어서 《프랑켄슈타인》을 잇는 웰 메이드 뮤지컬로 탄생할 조짐이 보인다.

《벤허》가 창작 뮤지컬로 국내 무대에 오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새로움은 덜 하지만 장대한 스케일과 서사, 믿고 보는 캐스팅 라인업, 남배우들의 앙상블, 웅장한 무대와 스펙터클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가다. 유준상, 아이비, 남경읍 등 tv를 통해 익히 알

려진 배우들을 비롯해 이제는 뮤지컬 배우로 더 익숙해진 가수 카이와 뮤지컬 배우 박은태, 박민성, 최우혁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국적인 느낌을 배가시키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운드도 놓칠 수 없는 매력 요소다.

때는 서기 26년. 제정 로마의 박해로 신음하는 예루살렘. 명망 높은 유대의 귀족 벤허는 로마의 장교가 되어 돌아온 친구 메셀라와 오랜만에 재회하지만 그의 배신으로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로마 군함의 노 젓는 노예가 된다. 3년 후 해적과의 전투 중에 난파되고 사령관 퀸터스의 목숨을 구한 댓가로 자유의 신분을 얻은 벤허. 로마의 귀족이 되어 메셀라에 대한복수를 결심한다.

《벤허》는 1880년 루 월러스(Lew Wallace)의 소설로 출간 당



시에도 200만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였다. 우리에게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전차 경주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꼽힌다.

뮤지컬 《벤허》는 이 장면을 기계와 IT기술력으로 무대에 올렸다. 관객들은 벌써부터 전차경주 장면을 관람 포인트로 꼽고 있다. 특히 공을 들인 실물 크기의 로봇 말은 관절을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관객들을 놀라시키고 있다. 말 네 필이 끄는 전차 두 대의 제작비용은 6억 원. 실제 말을 출연시키지 않은 건 무엇보다 무대미술로서 작동하길 바란 제작진의 의도였다고.

이 밖에도 후면 스크린과 홀로그램 기술은 전차 경주 장면에서 원형경기장을 재현해 박진감을 더한다. 홀로그램 기술은 오프닝에서부터 3차원적 효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해상전투 장면에서는 로마 군함 외부를 표현하여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벤허가 바다에 빠진 퀸터스를 구하는 장면에서는 특수 영상 시스템으로 관객들마저 바다에 빠진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생하다. 관객으로부터 ‘압도적’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뮤지컬 《벤허》,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다. www.caci.or.kr

글 · 이애자



2018년 ICT 트렌드 전망 세미나

- “주목해야 할 2018년 Top ICT이슈와 신사업 트렌드” 주제로 내년도 ICT시장 전망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2월 7일(목) 서울 역삼동 HJ컨벤션 센터에서 “주목해야 할 2018년 Top ICT이슈와 신사업 트렌드” 제하의 주제로 「2018 ICT 트렌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7년 한해 ICT시장을 이끌었던 테크 이슈와 비즈니스 트렌드를 총정리하고 2018년도 ICT시장의 이슈와 신사업 트렌드를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더욱 고도화된 기술 확장성과 폭넓은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이 2018년도 발전전망과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발표되었고 인더스트리 4.0 분야에서 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디지털 트윈을 통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소개되었다.

로아인벤션랩의 김진영 대표는 2018년 ICT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 및 이슈에 대해 발표하며 “기업 조직의 전략 변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로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홈 기술, 머신러닝의 자동화, 피지컬과 디지털의 통합 기술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해외송금, 주식

거래, 포인트 관리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높아지고, 가상화폐 지갑과 채굴기업 등 새로운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강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IT시장을 만들고 기존의 자동화 중심의 IT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이어, 독일식 창조 경제 해법 ‘인더스트리 4.0’ 표준 모델과 지멘스의 스마트 팩토리 ‘EWA(Electronics Works Amberg)’도 소개되었다. 지멘스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공장 자동화 플랫폼 ‘마인드스피어’에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접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가상공간에서 제품 개발 공정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테스트한다.

이밖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뒤를 잇는 융합현실(Mixed Reality, MR) 기술 활용과 내년도 MR분야를 둘러싼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도 소개되었다.

정리/윤미림





2017년 SW마에스트로 100+컨퍼런스 - '소프트웨어, 세상의 중심에 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진행한 '2017 SW마에스트로 100+ 컨퍼런스'가 28일 개최되었다.

SW마에스트로 과정은 SW분야의 창의적인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최고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SW산업을 선도할 최고급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제7기 인증·창업팀, 연수생 및 수료생, 외부 SW개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조연설에는 시컴퓨팅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이자 MIT가 선정한 2017 가장 스마트한 1위 기업 '엔비디아 코리아' 이용덕 지사장이 연사로 나서 SW산업의 전망 및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 7기 인증팀에게 인증서 및 창업팀 지원금을 수여하는 인증식이 진행됐으며, 최종 인증·창업팀의 프로젝트 작품 발표를 통해 성과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이어져 호응을 얻었다.

또한 SW마에스트로 수료생의 기술,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술세미나', SW마에스트로 과정 수료생·연수생·참관객이 함께하는 재능기부 'SoMa Coder', 특색 있는 개발자 집단(세대, 젠더, 글로벌)의 '커뮤니티' 등 SW지식을 공유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장도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특별 전시관을 운영, 7기 인증·창업팀의 프로젝트 작품 전시와 VC 등 투자연계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8기 프로젝트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타트업 기업 홍보 및 리크루팅, 신기술 VR 체험 부스 등이 함께 운영돼 참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정리 / 김보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포럼 9월 조찬회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 초청,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사례” 강연

한국CIO포럼은 지난 9월 27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사례”의 주제로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를 초청하여 9월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는 전 세계 기업들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을 업무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큰 흐름을 보면, 개별적인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글로벌 환경에서는 산업과 도메인에 따라서 다양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개발되었으며, 이들은 언어, 시각, 사고, 동작 기능 등의 영역에서 차별화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마인즈랩은 올해 공개한 마음에이아이(maum.ai)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이 시장

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마음에이아이 인공지능 플랫폼은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 AI 엔진, 기계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 엔진들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봇 플랫폼 및 다양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종합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마인즈랩은 통신사, 은행, 공공 등의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용 인공지능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마인즈랩은 국내 한 통신사와의 NLP 및 Question & Answering 엔진을 적용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국내 최초로 MRC(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기계 독해)라는 딥러닝 방식의 질의 응답 기술이 적용되었다. MRC란 말 그대로 학습을 통해 컴퓨터가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태스크(task)를 말한다.



온톨로지를 구축하거나 규칙 생성을 통해 지식을 추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질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어 처리 영역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므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마인즈랩이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마인즈랩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고도의 질의응답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인즈랩은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인즈랩은 현재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인 대구시 민원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기존 상담로봇 ‘뚜뚱’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해, 여권에 제한되어있던 서비스 분야를 차량등록, 시정안

내, 지역축제 안내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프로젝트에는 마인즈랩의 인공지능 플랫폼 마음에이아이를 기반으로 한 챗봇 구축 노후가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서비스와 지식 베이스가 타 지자체 및 중앙 행정부처에도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함께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메인 주제 강연 외에도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의 ‘중년의 변신은 무죄, 뉴노멀 중년’ 관련 특강과 회원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미팅의 자리로 ‘CIO 사랑방’이 운영되었다.

기고/마인즈랩 유태준 대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포럼 10월 조찬회 산업별 AI, 딥러닝 적용사례 및 전망

한국CIO포럼은 지난 10월 31일(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다이아몬드룸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별 AI, 딥러닝 적용사례 및 전망"의 주제로 NVIDIA Shanker Trivedi(산커 트리베디) 수석부사장을 초청하여 10월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Shanker Trivedi(산커 트리베디) 수석부사장은 GPU 컴퓨팅이 어떻게 인공지능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최신 딥러닝 기술 트렌드와 더불어 다양한 비즈니스에서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엔비디아가 어떻게 딥러닝 가속화를 선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산커트리베디 부사장은 "우리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플랫폼을 비롯해 센서, 사운드 등 모든 것을 갖춘 드라이브 패키지를 모든 파트너들에게 내년 1분기 말에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든 고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메인 주제 강연 외에도 연세대 김형철 교수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 당신의 인생, 철학

으로 디자인하라' 특강과 회원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미팅의 자리로 'CIO 사랑방'이 운영되었다. 조찬회 종료 후 회원들을 'NVIDIA DEEP LEARNING DAY 2017'에 연계 초청하여 회원들에게 좀 더 심도 깊은 최신 딥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였다.

정리/신효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포럼 11월 조찬회

Good Technologists Solve Problems. Great Innovators Create Opportunities

한국CIO포럼은 지난 11월 16일(목)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다이아몬드 룸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ood Technologists Solve Problems, Great Innovators Create Opportunities"의 주제로 던컨 휴렛(Duncan Hewett) VMware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을 초청하여 11월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11월 조찬행사에서는 던컨 휴렛(Duncan Hewett) VMware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이 '좋은 기술 전문가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혁신가는 기회를 창출한다'(Good Technologists Solve Problems, Great Innovators Create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 및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휴렛 사장은 미디어, 금융, 전자상거래, 헬스 케어, 통신 등 다

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IT의 역할을 소개하며, IT가 곧 비즈니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VMware의 'Any Cloud, Any Application, Any Device' 비전을 제시하며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클라우드와 엣지를 연결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VMware의 주요 솔루션들을 소개했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IT 환경에 따른 보안,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등과 관련한 CIO의 고민들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VMware Cloud를 제시했다. 멀티클라우드를 위한 VMware Cloud는 단일화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며, 모든 클라우드에서 통합된 운영방식을 지원하고, 리스



크와 복잡성을 줄여 IT 민첩성을 강화한다. 또한 VMware가 전세계적으로 운영하는 파트너 프로그램 "VMware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프로그램(이하VCP)"을 통해 고객에게 폭넓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장한다. 휴렛 사장은 앞으로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고객이 다양한 클라우드상에서 자유롭게 워크로드를 이동하고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주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특히 기업의 안전한 보안환경을 위한 '사이버 건강관리(Cyber Hygiene)'의 다섯 가지 요소로 권한 최소화,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암호화, 멀티팩터 인증, 패칭을 언급했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들을 함께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휴렛 사장은 IT가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요소로 자리한 만큼 CIO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전문가뿐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위대한 혁신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휴렛 사장의 메인 강연 이외에도 인텔 나승주 상무가 "IT Transformation"의 주제로, 박서기IT혁신연구소 박서기 소장이 "2018년 글로벌 ICT 이슈 및 CIO/CISO 어젠다"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정리 / VMware 이윤성 이사



2017 동남아 IT 수출컨소시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에서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및 유망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추진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구성된 "동남아 IT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및 기업 방문 상담 등 현지 파견활동을 추진하였다.

올해 5년째 추진하는 동남아 IT 수출컨소시엄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고 지원으로 추진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데이터뱅크시스템즈, 이글로벌시스템, 지니언스, 토마토시스템, 포시에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시스네트, 엔텔스, 엘에스웨어, 제니퍼소프트 등 국내 주요 SW기업 10개사가 참가하여 바이어 발굴 등 사전 준비부터 현지 파견 활동, 사후 마케팅 등까지 단계별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9월 21일, 싱가포르 푸라마 리버프론트 호텔에서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 9월 25일에는 풀만 쿠알라룸푸르 시티 센터 호텔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상담회 개최 뿐만 아니라 사전에 매칭된 현지 기업들과 방문미팅 추진,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짧은

파견기간 동안에 참가기업들이 최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왔었다.

그리고, 현지 파견활동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지난 11월 23일과 24일에 현지에서 만난 유망 파트너 기업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IT Business Meeting in Seoul" 프로그램을 양일에 걸쳐 추진하였다. 이번 초청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추진한 동남아 IT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최종 단계의 행사로 현지에서 만난 유망 파트너 기업들을 국내로 초청, 실질적인 계약체결 및 주요 고객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해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 많은 참여기업들이 파트너 계약 및 MOU 체결 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참가업체 중 지니언스는 싱가포르 Zermatt, JCS Consultancy와 파트너 계약 체결, 말레이시아의 Powerbloc Generation, Exce Resources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니퍼소프트의 경우 싱가포르 OGX와 파트너 계약을 엘에스웨어는 wGrow Technologies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최종 계약의 단계는 아니지만 계약을 준비 중인 업체

도 있다. 데이터뱅크시스템즈는 이번 유망바이어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 Genesis Networks와 말레이시아 OSLO Consulting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 토마토시스템은 싱가포르 Integratech와 말레이시아 Innovation & Development와 사업협력을 추진 중이고, 엔텔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말레이시아의 Televenture와 Umobile 사업협력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연중으로 추진되는 본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현지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컨설팅, 바이어 발굴 등의 사전마케팅 활동과 현지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해외 유망바이어 국내 초청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기획, 주관하여 수행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미얀마(양곤),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중국(북경, 상해) 등 여러 국가를 타깃으로 추진한 바 있고, 실제 참여기업들의 새로운 파트너 발굴 및 계약 등의 꾸준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은 쉽게 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존재하지만,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다양한 해외 마케팅 사업추진을 통해 보다 많은 우리 SW기업들의 제품들이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그 날을 꿈꾸어 본다.

정리 / 정종석

특별함을 즐기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KCC오토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KCC오토는 차량 구입부터 AS까지 One-Stop 서비스로 고품격 서비스를 고객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KCC오토 전시장에 방문하시어 최고의 혜택과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강서목동 전시장



강북 전시장



영등포 전시장



양재 StarClass



금천 서비스센터



부천 전시장



제주 전시장

KCC 오토
Mercedes-Benz



KCC 오토

전시장 강서목동 (02)6355-000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65 (염창동 260-4)
 강북 (02)6678-7500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233 (미아동 203-2)
 영등포 (02)6123-14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13 (신길동 4268)
 부천 (032)713-4500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43 (춘의동 77-1)
 제주 (064)800-9800 제주도 제주시 연상로 101(오라3동 2791)
 대표 문의 전화 (02)6355-0010 홈페이지 www.kccauto.co.kr

서비스센터 강서목동 (02)6355-010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3-23 (염창동 261-6)
 강북 (02)6678-7575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233 (미아동 203-2)
 금천 (02)807-240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69 (시흥동 987-6외 2필지)
 부천 (032)713-4533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43 (춘의동 77-1)
 제주 (064)800-9898 제주도 제주시 연상로 101(오라3동 2791)
 StarClass 양재 인증중고 (02)6090-73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서울오토갤러리 201호
 제주 인증중고 (064)805-8010 제주도 제주시 일주동로 407(삼양 2동 1550-3)



커피, 하루 몇 잔이 적당할까? 3잔!!

커피를 하루 3잔 마시면 사망위험 절반으로 감소
 커피전문점은 없는 곳이 없고 매해 커피믹스 제품은 최고 인기상품을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하루 허용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검진센터에서는 “우리나라는 성인 400mg, 임신부 300mg, 어린이 체중 1kg당 2.5mg을 카페인 하루 허용량으로 정하고 있다”며 “성인 카페인 허용량 400mg을 기준으로 할 때, 커피믹스 5~6잔, 원두커피 3~4잔 정도이다”고 밝혔다. 커피를 하루 3잔 가량 섭취하면 하루 1잔 미만 마시는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포럼(KOFRUM)은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팀이 경기도 안산·안성시에 사는 40~69세 남녀 8천75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로 커피섭취와 사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힌바 있다. 연구결과(커피섭취와 수면과 관련된 사망위험도 연구)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에 발표했다. 이 연구 도중 8천75명의 대상자 가운데 495명이 숨졌다.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암(222명, 49%)과 심혈관질환(98명, 20%)으로 나타났고, 연구 대상자 중 커피를 하루 0~1잔 미만 마시는 사람은 3천762명, 1~2잔 미만은 2천228명, 2~3잔 미만은 1천30명, 3잔 이상은 1천55명으로 나타났다. 커피를

하루 0~1잔 미만 마시는 사람의 사망위험을 1로 잡았을 때, 1~2잔 미만은 0.89, 2~3잔 미만은 0.88, 3잔 이상은 0.52였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포럼은 이것은 커피를 하루 3잔 가량 마시는 사람의 사망위험이 하루 1잔도 채 마시지 않는 사람의 52% 수준이란 의미라고 전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신철 교수는 “연령·성·비만도·교육정도·흡연·음주·고혈압·당뇨병 등 사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도 커피를 하루에 3잔 가량 마시는 사람의 사망위험이 1잔 미만 마시는 사람의 절반 정도란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커피를 하루 3잔 가량 마시는 사람은 고혈압(23.9%)과 당뇨병 유병비율(10.9%)이 커피를 하루 1잔 미만 마시는 사람(각각 34.9%, 15.4%)보다 낮았다. 반면 커피를 하루 3잔 가량 마시는 사람은 코골이(17.4%)와 수면무호흡(25%) 비율이 1잔 미만 마시는 사람(각각 13.5%, 18.5%)보다 높았다.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비율은 커피를 하루 3잔 가량 마시는 사람은 25%로 1잔 미만 마시는 사람(32%)보다 낮았다. 신철 교수는 “코골이·수면 무호흡·주간 졸림증 등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에겐 커피 섭취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면장애가 없는 경우 커피 섭취량이 하루 3잔 정도일 때 사망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

다”고 지적했다. 또 “수면무호흡 등 수면장애는 간헐적 산소공급 부족을 일으켜 산화 스트레스(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증가 시킨다”며 “호흡곤란·산소공급 부족으로 인해 잠에서 깨게 되거나 숙면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들이 누적돼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커피를 적게 혹은 지나치게 마셨을 때보다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사망위험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수차례 발표된 바 있다. 일본에서 성인 9만여 명을 대상으로 18.7년간 추적 조사한 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도 커피를 하루 3~4잔 섭취했을 때 사망위험 최저를 기록했다. 이 연구에서 하루 3잔 가량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카페인 섭취량은 1일 평균 147mg이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량인 400mg보다는 낮은 양이다.

허용량 넘게 되면?

한편 커피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클로로겐산 등 폴리페놀이 풍부하다. 심혈관질환·당뇨병·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의 예방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그래서다. 하지만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포럼은 커피엔 각종 물질인 카페인도 함유돼 있으므로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이나 청소년·노인·임산부 등은 과다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커피의 카페인이나 카페인 자체는 적정량 섭취 시 신체에 미치는 장점이 있고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커피를 과다하게 (커피믹스로 6잔 이상) 마시면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 박동 수, 혈액 흐름, 호흡속도, 체내대사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땀, 긴장감, 메스꺼움, 불안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임신기의 여성이 과다섭취 시에는 태아가 성장부진을 겪거나 저체중아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폐경기 여성 및 노년기 남성의 경우 골 손실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커피의 섭취를 줄이는 편이 좋다. 빈혈이 있는 경우엔 식사에서 섭취한 철분흡수를 위해 커피를 포함한 차 종류는 식후 1시간 이후에 마시도록 권한다.

건강하게 커피 즐기는 법

커피를 마신다면 칼로리와 카페인 함량을 고려해 하루 3잔을 넘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좋다. 서울대병원 강남검진센터 이은정 영양사는 “위산 과다분비를 예방하기 위해 아침 공복 시보다 식후 1시간 정도에 마시도록 해야 한다”며 “믹스커피를 마실 경우 당류 및 지방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설탕이나 크림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성과 홍보 쇼케이스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14일(목)~16일(토), 코엑스 전시장 B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성과 홍보 쇼케이스가 코엑스 전시장 B홀에서 3일 간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Soft Wave 2017에 동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지원 사업에 기 참여한 중소 SW 기업 8개사가 전시 및 시연을 위한 부스 운영과 비즈니스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CIO·CISO 특별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14일(목), 웨라톤 팰라호텔 1층 로얄볼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포럼은 “디지털 혁신 시대의 CIO·CISO Agenda”에 대한 주제로 지난 9월 CIO·CISO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항공대 박중서 교수, 볼레크리에 이티브 서동일 대표, VMware 코리아 전인호 지사장, 테크앤로벌 룰사무소 구태언 변호사 등 ICT 분야 전문가가 연사로 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 기술 및 활용사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19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대한민국 부문별 디지털 변혁 아젠다와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솔루션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기업을 넘어 공공, 지자체, 병원, 대학 등 부문별로 확산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관련 우수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발표에는 한국정보진흥원의 오강탁 센터장 외 부문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제1회 한중 IoT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26일(화), 부산 BEXCO 제2전시장 1층 세미나룸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지난 9월 26일, 부산 BEXCO에서 제1회 한중 IoT(Internet of Vehicle)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컨퍼런스는 스마트카 관련 한중 양국의 V2X, LTE, ADAS, 자율주행, 무선설비 기술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스마트 및 신에너지 자동차, △IoT(Internet of Vehicle), △IVS(In-Vehicle Information Service) 국제 협력을 위해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중국 텔레메틱스산업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CIO아카데미 33기 해외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19일(목)~21일(토), 베트남 하노이

CIO 및 CISO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인 CIO아카데미 제33기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박 3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총 18명이 참가한 이번 33기 워크숍에서는 베트남 현지 국내 기업인 한텍앤컨설트 이상모 회장 초청 간담회를 비롯해 문화탐방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 정례기술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18일(수), 엘타워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는 지난 10월 18일(수), 엘타워에서 ICT 관련 기업의 임직원, SW개발자,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등 ICT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례기술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단국대학교 ITRC 최용근 센터장의 IoT 및 웨어러블 트렌드와 사례 강연을 시작으로 웨어러블 로봇, 인공지능, 지능형 이동체, 스마트 팩토리 등의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K-ICT 신SW상품대상 2017년 10월상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23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층 간부회의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전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K-ICT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10월 시상식이 지난 10월 23일 정부과천청사서 개최되었다. 이번 10월 수상제품은 일반SW부문에 비아이메트릭스(대표 배영근)의 '아이스트림 2.0'과 임베디드SW부문에 앤앤에스피(대표 김일용)의 '앤넷다이오드 V2.0'이다. 수상은 개발기업 대표와 더불어 핵심 개발자 상으로 비아이메트릭스 한진수 소장과 앤앤에스피(대표 김일용) 김기현 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재도전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 네트워킹 8차 행사

■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25일(수), 누리꿈스퀘어 R&D타워 8층 회의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운영 중인 재도전 창업보육센터(BI)에서는 지난 10월 25일(수) 입주기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브랜딩 전략'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과 더불어 입주 기업간 정보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및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CRM·BI협의회 10월 정례세미나

■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23일(월), HJ컨벤션센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RM·BI협의회는 지난 10월 23일(월) "라이나생명의 디지털 기술 활용 전략 및 사례"에 대한 주제로 정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라이나생명 손익준 상무가 연사로 나와 국내외 보험사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과 이슈, 라이나생명의 시 기반 챗봇 활용 사례 및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국CIO포럼, 등산 모임 네트워킹

■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27일(금), 한양도성길 북악산 단풍코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CIO포럼은 회원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한양도성길 북악산 코스를 탐방하는 등산모임(모임장: 미래에셋대우 부사장, CIO포럼 부회장)을 진행 하였다. 본 포럼 등산모임은 단기적으로 한양도성길 4코스(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탐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인왕산 코스, 하반기 북악산 코스를 탐방하였으며 '18년에 남산과 낙산 코스를 트래킹 할 예정이다.



2017년 SW마에스트로 100+컨퍼런스

■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28일(토),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션센터 5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SW마에스트로 과정' 사업의 일환으로 SW개발자들의 기술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2017 SW마에스트로 100+ 컨퍼런스' 행사가 10월 28일(토)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SW산업의 전망 및 비전을 공유하는 기조연설, 7기 인증·창업팀 세리머니, SW마에스트로 수료생의 기술,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술세미나', SW마에스트로 과정 수료생·연수생·참관객이 함께하는 재능기부 'SoMa Coder', 특색 있는 개발자 집단(세대, 젠더, 글로벌)의 '커뮤니티', 프로젝트 작품 전시와 VC 등 투자연계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었다.



SW미래포럼 11월 조찬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2일(목), 호텔 삼성 2층 라벤더B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신SW상품대상 수상기업 CEO 커뮤니티인 'SW미래포럼(회장: 배영근 비아이매트릭스 대표)'은 지난 11월 2일(목) 삼성호텔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전문 법무법인인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 변호사가 연사로 나와 'AI, Cloud, Big Data 등 신기술 관련 규제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특별강연과 포럼 회원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회원 및 유관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4일(토), 이천마이다스CC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1월 4일(토) 본회 회원 및 산하기구 회원, 사업 참여기업 임원 등을 초청하여 골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상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는 회원사만을 위한 협회가 아니므로 산하기구와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간에도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기업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협력대학 업무 협약 체결

■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8일(수), 한라대학교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상반기 19개 대학과 협력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하반기 23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구축된 협력대학과 회원사간의 가교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협력대학 및 회원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할 계획이며 협력대학을 중심으로 인재매칭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협력대학의 취업을 제고와 회원사의 구인난 완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제15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 결선

■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16일(목)~18일(토) / 코엑스 D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5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의 결선이 11월 16일(목)~18일(토)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2년 만에 재개된 주니어 부문을 비롯하여 자유공모, 현대자동차(자율주행 모형자동차), 인텔코리아, 지능형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역량을 펼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한국CIO포럼, 영화 관람 네트워킹

■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8일(수), 용산 CGV골드클래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포럼은 지난 11월 8일(수), 회원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모임(모임장: 두산 이광성 사장, CIO포럼 수석부회장)을 개최하고 최근 개봉 화제적인 '토르 라그나로크'를 관람하였다.

이번 영화 관람은 포럼 회원만을 위한 전용관에서 식사를 비롯한 영화 관람과 정보 교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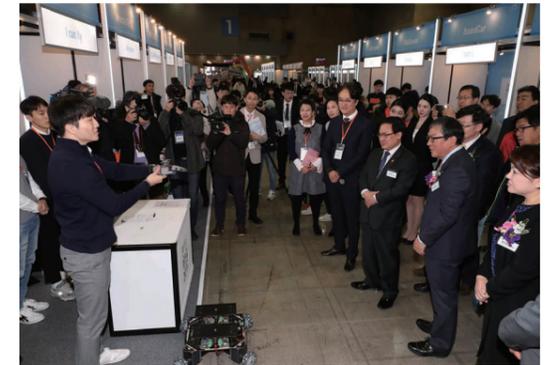


제33기 CIO아카데미 종료

■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21일(화), HJ컨벤션센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IO아카데미 제33기 과정이 2달 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21일(화) 수료식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총 19명이 수료한 이날 수료식 행사는 '개근상'을 비롯한 '주인공은 나야나 상', '글로벌 스타상', '공로상'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식과 축하객으로 참석한 CIO아카데미클럽(역대 수료생 커뮤니티) 임원진과의 뒤풀이 행사로 진행되었다. CIO아카데미 제34기 과정은 내년 3월 개강될 예정이다.



한이음 엑스포 2017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24일(금)~25일(토), 킨텍스 1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지난 11월 24일(금) ~ 25일(토), 양일간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 1홀에서 '한이음 엑스포 2017'을 개최하였다. '2017 SW 교육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ICT멘토링'을 통해 진행된 대학생들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우수 성과물을 전시하고 시상하였다.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대하며...

박우건(편집고문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 지난해부터 발행을 준비하여 올 봄에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고 이제 네 번째인 <Journal Of ICT Leaders> 겨울 호(號)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ICT업계 CEO, CTO, CIO를 위시하여 대학과 연구소에 종사하는 전문가 분들에서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매 호 열두 분 씩, 총 마흔여덟 분을 찾아가 ICT인으로서 걸어온 인생담과 그 속에 담긴 세계관(世界觀), 그리고 업계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고견(高見)을 듣고 독자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간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건 또한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앞만 보고 일 년을 달려왔다는 것만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 삼아 2018년에는 ICT업계와 <Journal Of ICT Leaders>에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만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프랑스 신화학자 질베르 뒤랑은 제우스의 전령(傳令) 헤르메스의 신화적 특성에 착안하여 교류와 소통이 일상화된 오늘날을 ‘헤르메스의 시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누구의 시대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와 꼬리를 지닌 미노타우로스를 꼽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복합체인 반인반수(半人半獸), 미노타우로스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 더 나아가 인간과 기계 등 인간과 모든 이타적 존재의 공존을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기술과 기술이나 과학과 인문학 등과 같은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결합을 아우를 수 있는 아이콘으로 적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노타우로스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으로 삼기에는 동양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걸리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화에서는 수간(獸姦)으로 태어난 식인 괴물이며‘인간에 의해 정리될 운



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노타우로스를 대신할 반인반수, 융·복합체로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동양의 상상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신화집 <산해경(山海經)>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산해경> 속에는 반인반수를 대표하는 ‘신농(神農)’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인간에게 농업과 의약을 가르쳐 준 신농은 당연히 미노타우로스만큼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물질과 기계적 존재와의 교감이 요구되는 미래 시대에 신화시대의 물활론(物活論)적 사유(思惟)가 우리의 메마른 심성을 감성적으로 채워주고 적응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체적으로 인간을 표준으로 삼아 나머지 동물을 비롯한 자연계에 군림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기계적 존재와의 교감과 교합은 물론 동물이나 미물(微物)에 대해서도 그것의 본래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하기에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관념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동양신화 혹은 <산해경> 같은 책 속의 신화 주인공들은 사물과의 풍부한 교감능력,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겸손, 낯선 것에 대한 호혜적 공존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의 대안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바뀌니 정신 또한 바뀌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Journal Of ICT Leaders>가 추구해야 될 목표 또한 ‘변화와 융합’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Journal Of ICT Leaders>를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맥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편집후기를 대신합니다.

국내 최고의 SW시상제도

신SW상품대상

(KOREA SOFTWARE AWARDS)



1994년 국내 최초 SW관련 시상제도로 제정되어 운영해오고 있는 본 시상제도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SW제품을 선정·시상함으로써 SW기업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홍보 및 품질개선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전개, 국내 SW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상 내역

구분	상격	비고
연말상 (대한민국SW대상)	대통령상(1개) / 국무총리상(2개)	월별 장관상 제품에 한하여 심사 진행
월별상	장관상(12개/12명) (일반SW / 멀티미디어&서비스SW / 임베디드SW)	제품 및 핵심개발자 장관상 수여

지원 내역

지원 내역	내용	비고
언론 홍보	(지원제품)전자신문 주간 신SW 추천작 코너 게재 (수상제품)전자신문 시상식 기사 및 수상제품 안내 게재	
기타	각종 전시회, 설명회 참가 지원 수상기업 CEO 커뮤니티(SW미래포럼) 활동 자격 부여	수상작에 한함

* 기인증 제품의 경우, 1차 서류심사 가점으로 지원금을 대체함

신청 및 심사 절차

신청/접수	언론홍보	1차심사	2차심사	인증절차	시상식	연말상
이메일 접수 news.award@fkii.org	전자신문 신SW추천작 코너	서류심사	발표/데모 심사	GS인증 (1등급)	제품+개발자 장관상 수여	대한민국 SW대상 -상품상 부문-
D-6월 ~ D-3월	접수순	D-3월 (홀수월초)	D-3월 (홀수월말)	D-2월 ~D-10d	D-day (짝수월말)	10월 : 심사 12월 초 : 시상

신청방법

FKII홈페이지 내 신SW>신청절차>신SW상품대상 신청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news.award@fkii.org 로 송부)

국내 유일무이한 최고의 CIO/CISO 프로그램

CIO 아카데미

Since 2000 FKII CIO Academy

교육일정

상반기(3월 ~ 5월), 하반기(9월 ~ 11월)

강의시간

주 2회 (화·목 / 18:30 ~ 21:30, 석식포함), 해외 Workshop 별도일정

교육장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강의실(서울 역삼동 소재)

모집정원

- 현직 CIO/CISO 및 예비 CIO/CISO, IT관련 부서 임직원 30명
- 기업 및 공공기관 : 현직 및 예비 CIO/CISO, IT 관련 부서 임직원, 현업 부서 임직원
- ICT기업 : CxO, 영업 및 마케팅 등 관련 임직원

교육비(VAT별도)

비회원사		회원사	· 해외 워크샵 비용 포함 · 석식, 교재, 간담회, 수료증 등 포함 ※ 회원사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원, CIO포럼 정회원
1인	2인 이상		
400만원	380만원	350만원	

입금계좌 : 850-910018-05604 (KEB 하나은행 예금주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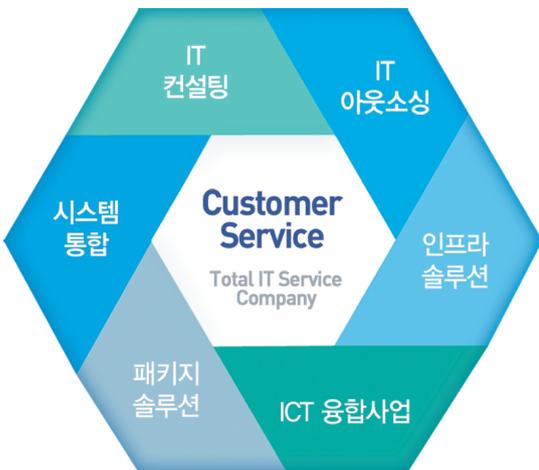
※ 현장 카드 결제 가능 / 교육 참여 후 교육비 반환 불가

문의 및 연락처

교육담당자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이영로 실장 **전화번호** | 02-2132-0731 **이메일** | rolee@fkii.org



상상을 현실로! ICT 혁신을 통한 편리한 세상!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전문기업

KCC정보통신은 한발 앞선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창의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정보사회의 리더 - KCC정보통신은 IT전문가 집단입니다.